

자녀가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 어려움의 정도를 자녀의 고통 정도, 자녀 생활 방해 정도, 부모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 정도로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사교육 여부에 따라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자녀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보면, 학습 사교육을 받은 아동과 예체능/기타 사교육과 학습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이 평균 1.80으로, 전반적으로 '약간'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기타 사교육을 받은 아동도 평균 1.75로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은 1.66으로 약간 더 낮은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 여부가 아동의 고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겪은 어려움이 아동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생활, 친구 관계, 교실 놀이, 여가활동 전반에서 유사한 수준의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은 친구 관계에서의 생활 방해 정도가 1.97로 비교적 높았으나, 다른 사교육 그룹과 큰 차이는 없었다. 또한,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 역시 가정생활, 친구 관계, 교실 놀이, 여가활동 전반에서 다른 아동들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 방해를 경험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에게 주는 부담의 경우에도 사교육 여부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의 가족 부담 정도는 2.02로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다른 그룹들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라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자녀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보면, 학습 사교육을 0개 받은 아동과 1개 받은 아동, 2개 이상 받은 아동 간에 고통의 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1개를 받은 아동이 1.81로 다른 그룹보다 조금 더 높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생활 방해 정도에서는 교실 놀이 영역에서만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개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이 교실 놀이에서 0개 받는 아동들보다 더 많은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그러나 가정생활, 친구 관계, 여가활동에서는 사교육 개수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족 부담 정도는 학습 사교육 개수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교육을 1개 받은 아동의 가족 부담 정도가 약간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1-4〉 자녀 행동 특성(2) (어려움 정도): 2024년

단위: (명), 점(표준편차)

구분	(수)	막내자녀 고통 정도 평균	막내자녀 생활 방해 정도 평균				부모, 가족 부담 정도 평균
			가정생활	친구관계	교실놀이	여가활동	
전체	( 392)	1.74(0.62)	1.75(0.68)	1.85(0.69)	1.83(0.69)	1.65(0.67)	1.93(0.71)
자녀 성별							
남	( 228)	1.76(0.63)	1.79(0.71)	1.92(0.73)	1.92(0.68)	1.68(0.68)	1.97(0.75)
여	( 164)	1.70(0.61)	1.71(0.65)	1.76(0.63)	1.70(0.68)	1.60(0.64)	1.86(0.64)
<i>t</i>		1.0	1.1	2.2*	3.1**	1.3	1.6
자녀 연령							
만2세	( 140)	1.71(0.61)	1.67(0.65)	1.70 <sup>b</sup> (0.65)	1.69 <sup>b</sup> (0.63)	1.66(0.61)	1.87(0.73)
만3세	( 139)	1.76(0.64)	1.85(0.71)	2.00 <sup>a</sup> (0.74)	1.96 <sup>a</sup> (0.77)	1.66(0.74)	1.98(0.77)
만5세	( 113)	1.74(0.61)	1.73(0.68)	1.86(0.64)	1.82 (0.63)	1.62(0.65)	1.93(0.61)
<i>F</i>		0.3	2.4	6.7**	5.5**	0.1	0.8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 125)	1.77(0.65)	1.77(0.67)	1.92(0.67)	1.79(0.68)	1.58 <sup>a</sup> (0.65)	1.95(0.71)
어린이집	( 248)	1.74(0.61)	1.75(0.69)	1.82(0.71)	1.85(0.70)	1.71 <sup>a</sup> (0.67)	1.94(0.72)
반일제학원	( 14)	1.57(0.51)	1.79(0.80)	2.00(0.55)	2.00(0.55)	1.29 <sup>a</sup> (0.47)	1.79(0.58)
가정양육	( 5)	1.40(0.55)	1.40(0.55)	1.40(0.55)	1.20(0.45)	1.40 <sup>a</sup> (0.89)	1.20(0.45)
<i>F</i>		0.9	0.5	1.5(a)	1.9	2.8*	2.0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 55)	1.78(0.60)	1.76(0.61)	1.78(0.66)	1.75(0.70)	1.67(0.61)	1.75(0.62)
전문대졸	( 98)	1.69(0.65)	1.70(0.65)	1.81(0.68)	1.82(0.66)	1.58(0.64)	1.87(0.71)
4년제대졸	( 203)	1.71(0.60)	1.76(0.71)	1.87(0.71)	1.83(0.70)	1.67(0.70)	1.98(0.73)
대학원졸 이상	( 36)	1.94(0.67)	1.83(0.74)	1.97(0.70)	1.94(0.71)	1.64(0.64)	2.06(0.67)
<i>F</i>		1.7	0.3	0.7	0.6	0.5	2.2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 65)	1.75(0.64)	1.78(0.70)	1.77 (0.58)	1.71(0.72)	1.68(0.59)	1.97(0.79)
전문대졸	( 96)	1.66(0.63)	1.72(0.63)	1.69 <sup>b</sup> (0.62)	1.79(0.68)	1.65(0.70)	1.85(0.75)
4년제대졸	( 189)	1.77(0.60)	1.75(0.70)	1.97 <sup>a</sup> (0.74)	1.87(0.68)	1.62(0.67)	1.95(0.64)
대학원졸 이상	( 36)	1.83(0.65)	1.78(0.76)	1.83 (0.74)	1.94(0.71)	1.69(0.75)	2.00(0.79)
<i>F</i>		1.0	0.1	3.9**	1.3	0.2	0.6
맞벌이 여부							
외벌이	( 135)	1.70(0.61)	1.68(0.68)	1.81(0.70)	1.74(0.62)	1.59(0.60)	1.98(0.74)
맞벌이	( 255)	1.76(0.62)	1.79(0.69)	1.87(0.69)	1.87(0.72)	1.68(0.70)	1.90(0.69)
미취업	( 2)	1.50(0.71)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50(0.71)
<i>F</i>		0.6	1.2	0.5	1.6	1.1(a)	0.9

구분	(수)	막내자녀 고통 정도 평균	막내자녀 생활 방해 정도 평균				부모, 가족 부담 정도 평균
			가정생활	친구관계	교실놀이	여가활동	
지역 규모							
대도시	( 145)	1.74(0.62)	1.83 <sup>a</sup> (0.70)	1.84(0.65)	1.90(0.67)	1.62(0.68)	1.97(0.66)
중소도시	( 190)	1.77(0.62)	1.75 (0.69)	1.86(0.72)	1.78(0.71)	1.68(0.70)	1.91(0.70)
읍면	( 57)	1.61(0.62)	1.56 <sup>b</sup> (0.60)	1.84(0.70)	1.79(0.65)	1.61(0.53)	1.88(0.85)
<i>F</i>		1.4	3.1*	0.0	1.2	0.4	0.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 33)	1.82(0.64)	1.88(0.70)	1.94(0.83)	1.94(0.79)	1.88(0.78)	1.82(0.68)
300 이상~500만원	( 162)	1.76(0.63)	1.72(0.64)	1.79(0.67)	1.78(0.68)	1.63(0.66)	1.97(0.76)
500 이상~700만원	( 131)	1.73(0.61)	1.74(0.67)	1.89(0.66)	1.79(0.65)	1.66(0.65)	1.97(0.70)
700만원 이상	( 66)	1.67(0.62)	1.80(0.81)	1.88(0.73)	1.94(0.72)	1.55(0.64)	1.79(0.60)
<i>F</i>		0.6	0.7	0.8	1.2	1.9	1.5
사교육 여부							
학습 사교육 받음	( 84)	1.80(0.62)	1.82(0.75)	1.92(0.66)	1.94(0.65)	1.77(0.72)	1.96(0.70)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 108)	1.75(0.58)	1.76(0.68)	1.87(0.71)	1.81(0.69)	1.68(0.68)	1.91(0.63)
모두 받음	( 66)	1.80(0.71)	1.74(0.64)	1.97(0.70)	1.88(0.73)	1.48(0.64)	2.02(0.81)
사교육 받지 않음	( 134)	1.66(0.60)	1.71(0.67)	1.74(0.68)	1.75(0.69)	1.63(0.62)	1.87(0.72)
<i>F</i>		1.3	0.5	2.1	1.5	2.5	0.7
학습 사교육 개수							
0개	( 242)	1.70(0.59)	1.73(0.67)	1.80(0.70)	1.77 <sup>b</sup> (0.69)	1.65(0.65)	1.89(0.68)
1개	( 85)	1.81(0.66)	1.81(0.72)	1.92(0.62)	2.01 <sup>a</sup> (0.66)	1.64(0.69)	2.00(0.74)
2개 이상	( 65)	1.78(0.65)	1.75(0.69)	1.97(0.75)	1.78 (0.70)	1.66(0.71)	1.97(0.77)
<i>F</i>		1.3	0.4	2.1	4.1*(w)	0.0	0.9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4) 4점(1. 전혀, 2. 약간, 3. 상당히, 4. 심하게) 척도로 측정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자녀와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의 경우, 응답자의 32%가 매일 책을 읽어준다고 답했으며, 35.47%는 주 1~2번 정도 읽어줬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야기 해주기 활동에서는 58.93%가 매일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이는 다른 활동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41.73%가 매일 한다고 답했으며, 미술이나 만들기 활동은 17.47%만이 매일 참여한다고 했다. 집안일 함께 하기는 응답자의 20.53%가 매일 한다고 답했다. 퍼즐이나 게임 활동의 경우 14.47%가 매일 하며, 조립용 완구 놀이와 스포츠 또는 운동 역시 매일 하는 비율은 각각 13.20%, 12.60%로 비교적 낮았다. 자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나 과학놀이의 경우, 매일 하는 비율은

14.47%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빈도는 '전혀 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활동은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과학놀이하기 12.67%, 스포츠 또는 운동하기(9.60%)와 조립용 완구 놀이(9.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5〉 부모-자녀 상호작용(전체): 2024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책 읽어주기	3.80	35.47	28.73	32.00	100.00(1,500)
이야기 해주기	0.73	16.93	23.40	58.93	100.00(1,500)
함께 노래 부르기	3.60	25.07	29.60	41.73	100.00(1,500)
미술, 만들기 도와주기	5.53	46.67	30.33	17.47	100.00(1,500)
집안일 함께 하기	7.80	44.13	27.53	20.53	100.00(1,500)
퍼즐, 게임 하기	6.27	46.40	32.87	14.47	100.00(1,500)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과학놀이하기	12.67	49.47	23.40	14.47	100.00(1,500)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9.00	48.53	29.27	13.20	100.00(1,500)
스포츠, 운동하기	9.60	50.20	27.60	12.60	100.00(1,500)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자녀 상호작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활동 유형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기, 집안일 함께 하기,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및 과학놀이하기는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책 읽어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미술 및 만들기 도와주기, 퍼즐 및 게임하기,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스포츠 및 운동하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책 읽어주기의 경우,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매일 책을 읽어주는 비율이 높았다. 만2세 아동의 부모는 39.40%, 만3세는 34.80%, 만5세는 21.80%가 매일 책을 읽어준다고 응답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미했다.

함께 노래 부르기에서는 만2세 아동 부모의 55.80%가 매일 노래를 부르며, 만3세는 43.00%, 만5세는 26.4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미술 및 만들기 도와주기의 경우, 만2세 부모의 17.60%, 만3세 부모의 18.20%, 만5세 부모의 16.60%가 매일 미술 활동을 도와준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퍼즐 및 게임하기에서는 만2세 아동 부모의 17.00%, 만3세는 13.80%, 만5세는 12.60%가 매일 퍼즐 및 게임을 한다고 답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조립용 완구 놀이는 만2세 아동 부모의 18.00%, 만3세는 12.80%, 만5세는 8.80%가 매일 함께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논다고 답했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활동 빈도가 감소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및 운동하기는 만2세 부모의 17.60%, 만3세 부모의 10.40%, 만5세 부모의 9.80%가 매일 함께 운동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했다.

〈표 IV-1-6〉 부모-자녀 상호작용(자녀 연령별): 2024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책 읽어주기					
만2세	2.60	29.40	28.60	39.40	100.00( 500)
만3세	3.00	32.00	30.20	34.80	100.00( 500)
만5세	5.80	45.00	27.40	21.80	100.00( 500)
$\chi^2(df)$	54.420(6)***				
이야기 해주기					
만2세	0.60	14.40	22.40	62.60	100.00( 500)
만3세	1.00	17.80	23.00	58.20	100.00( 500)
만5세	0.60	18.60	24.80	56.00	100.00( 500)
$\chi^2(df)$	6.247(6)(b)				
함께 노래 부르기					
만2세	1.40	13.40	29.40	55.80	100.00( 500)
만3세	2.60	25.40	29.00	43.00	100.00( 500)
만5세	6.80	36.40	30.40	26.40	100.00( 500)
$\chi^2(df)$	127.369(6)***				
미술, 만들기 도와주기					
만2세	4.80	48.20	29.40	17.60	100.00( 500)
만3세	4.40	42.60	34.80	18.20	100.00( 500)
만5세	7.40	49.20	26.80	16.60	100.00( 500)
$\chi^2(df)$	13.371(6)*				
집안일 함께 하기					
만2세	9.20	43.60	26.80	20.40	100.00( 500)
만3세	7.40	44.20	28.40	20.00	100.00( 500)
만5세	6.80	44.60	27.40	21.20	100.00( 500)
$\chi^2(df)$	2.477(6)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퍼즐, 게임 하기					
만2세	6.60	42.20	34.20	17.00	100.00( 500)
만3세	5.00	45.60	35.60	13.80	100.00( 500)
만5세	7.20	51.40	28.80	12.60	100.00( 500)
$\chi^2(df)$		14.227(6)*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 기, 과학놀이하기					
만2세	12.40	45.80	24.20	17.60	100.00( 500)
만3세	11.20	51.80	24.00	13.00	100.00( 500)
만5세	14.40	50.80	22.00	12.80	100.00( 500)
$\chi^2(df)$		9.881(6)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만2세	5.20	44.20	32.60	18.00	100.00( 500)
만3세	6.80	46.00	34.40	12.80	100.00( 500)
만5세	15.00	55.40	20.80	8.80	100.00( 500)
$\chi^2(df)$		72.933(6)***			
스포츠 운동하기					
만2세	9.00	46.20	27.20	17.60	100.00( 500)
만3세	8.40	50.40	30.80	10.40	100.00( 500)
만5세	11.40	54.00	24.80	9.80	100.00( 500)
$\chi^2(df)$		23.918(6)**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가구소득별로 부모-자녀 상호작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활동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득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일관된 증가 또는 감소 패턴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V-1-7〉 부모-자녀 상호작용(가구소득별): 2024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책 읽어주기					
300만원 미만	3.97	43.65	21.43	30.95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4.93	35.04	29.74	30.29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3.34	36.74	29.67	30.26	100.00( 509)
700만원 이상	2.52	30.91	28.39	38.17	100.00( 317)
$\chi^2(df)$		15.476(9)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이야기 해주기					
300만원 미만	0.79	22.22	24.60	52.38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1.09	18.25	23.18	57.48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0.39	16.31	23.77	59.53	100.00( 509)
700만원 이상	0.63	13.56	22.71	63.09	100.00( 317)
$\chi^2(df)$		8.974(9)(b)			
함께 노래 부르기					
300만원 미만	2.38	30.95	23.81	42.86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4.01	22.63	29.93	43.43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3.34	26.13	30.84	39.69	100.00( 509)
700만원 이상	3.79	25.24	29.34	41.64	100.00( 317)
$\chi^2(df)$		6.832(9)			
미술, 만들기 도와주기					
300만원 미만	7.94	35.71	34.92	21.43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5.84	47.99	28.28	17.88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5.50	45.97	33.20	15.32	100.00( 509)
700만원 이상	4.10	49.84	27.44	18.61	100.00( 317)
$\chi^2(df)$		13.415(9)			
집안일 함께 하기					
300만원 미만	10.32	39.68	27.78	22.22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8.21	46.35	24.82	20.62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6.88	46.76	27.90	18.47	100.00( 509)
700만원 이상	7.57	37.85	31.55	23.03	100.00( 317)
$\chi^2(df)$		12.068(9)			
퍼즐, 게임 하기					
300만원 미만	6.35	44.44	34.13	15.08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6.57	48.36	30.84	14.23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7.27	47.35	32.81	12.57	100.00( 509)
700만원 이상	4.10	42.27	35.96	17.67	100.00( 317)
$\chi^2(df)$		10.317(9)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과학놀이하기					
300만원 미만	11.90	49.21	23.02	15.87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13.14	51.64	22.08	13.14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13.56	48.72	24.56	13.16	100.00( 509)
700만원 이상	10.73	47.00	23.97	18.30	100.00( 317)
$\chi^2(df)$		7.791(9)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300만원 미만	5.56	48.41	34.92	11.11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10.04	49.27	27.92	12.77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9.63	48.72	28.29	13.36	100.00( 509)
700만원 이상	7.57	47.00	30.91	14.51	100.00( 317)
$\chi^2(df)$		6.565(9)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스포츠 운동하기					
300만원 미만	9.52	50.79	23.81	15.87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10.58	50.36	26.82	12.23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10.81	50.29	27.90	11.00	100.00( 509)
700만원 이상	5.99	49.53	29.97	14.51	100.00( 317)
$\chi^2(df)$	10.178(9)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학습 사교육 개수별 부모-자녀 상호작용 유형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라 부모-자녀 상호작용 빈도는 유형별로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책 읽어주기, 이야기 해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미술이나 만들기 도와주기, 퍼즐이나 게임하기,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및 과학놀이하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집안일 함께 하기,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그리고 스포츠나 운동하기에서는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집안일 함께하기를 매일 하는 경우를 보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는 20.25%, 1개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부모는 17.57%, 2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부모는 24.50%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세 그룹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빈도에서도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는 14.74%, 1개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부모는 14.06%, 2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부모는 7.72%가 매일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놀았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나 운동하기 빈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는 14.29%, 1개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부모는 10.54%, 2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부모는 9.73%가 매일 자녀와 함께 스포츠나 운동을 했다.



〈표 IV-1-8〉 부모-자녀 상호작용(학습 사교육 개수별): 2024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책 읽어주기					
0개	4.16	34.20	28.91	32.73	100.00( 889)
1개	2.88	38.34	29.39	29.39	100.00( 313)
2개 이상	3.69	36.24	27.52	32.55	100.00( 298)
$\chi^2(df)$		3.256(6)			
이야기 해주기					
0개	1.01	15.86	22.61	60.52	100.00( 889)
1개	0.32	21.41	22.36	55.91	100.00( 313)
2개 이상	0.34	15.44	26.85	57.38	100.00( 298)
$\chi^2(df)$		9.892(6)			
함께 노래 부르기					
0개	3.15	22.95	30.26	43.64	100.00( 889)
1개	5.11	28.43	27.80	38.66	100.00( 313)
2개 이상	3.36	27.85	29.53	39.26	100.00( 298)
$\chi^2(df)$		8.868(6)			
미술, 만들기 도와주기					
0개	6.19	45.67	29.92	18.22	100.00( 889)
1개	4.47	49.84	30.99	14.70	100.00( 313)
2개 이상	4.70	46.31	30.87	18.12	100.00( 298)
$\chi^2(df)$		4.433(6)			
집안일 함께 하기					
0개	9.22	43.98	26.55	20.25	100.00( 889)
1개	7.99	50.80	23.64	17.57	100.00( 313)
2개 이상	3.36	37.58	34.56	24.50	100.00( 298)
$\chi^2(df)$		26.960(6)***			
퍼즐, 게임 하기					
0개	6.64	46.23	32.17	14.96	100.00( 889)
1개	7.03	46.33	31.63	15.02	100.00( 313)
2개 이상	4.36	46.98	36.24	12.42	100.00( 298)
$\chi^2(df)$		4.627(6)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과학놀이하기					
0개	13.39	49.72	22.61	14.29	100.00( 889)
1개	11.50	51.44	20.77	16.29	100.00( 313)
2개 이상	11.74	46.64	28.52	13.09	100.00( 298)
$\chi^2(df)$		7.278(6)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0개	8.32	49.72	27.22	14.74	100.00( 889)
1개	9.27	46.33	30.35	14.06	100.00( 313)
2개 이상	10.74	47.32	34.23	7.72	100.00( 298)
$\chi^2(df)$		14.589(6)*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스포츠 운동하기					
0개	10.57	49.16	25.98	14.29	100.00( 889)
1개	4.79	55.91	28.75	10.54	100.00( 313)
2개 이상	11.74	47.32	31.21	9.73	100.00( 298)
$\chi^2(df)$	19.962(6)**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사교육 여부에 따른 부모-자녀 상호작용 유형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 일부 활동에서 차이가 존재했지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사교육 여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 빈도에 명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표 IV-1-9〉 부모-자녀 상호작용(사교육 여부별): 2024년

단위: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책 읽어주기					
학습 사교육 받음	3.80	39.56	29.75	26.90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3.52	34.42	29.54	32.52	100.00( 369)
모두 받음	2.71	34.92	27.12	35.25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4.62	34.04	28.46	32.88	100.00( 520)
$\chi^2(df)$	8.015(9)				
이야기 해주기					
학습 사교육 받음	0.32	19.94	23.10	56.65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0.81	16.80	21.95	60.43	100.00( 369)
모두 받음	0.34	16.95	26.10	56.61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1.15	15.19	23.08	60.58	100.00( 520)
$\chi^2(df)$	7.495(9)(b)				
함께 노래 부르기					
학습 사교육 받음	4.75	25.95	29.11	40.19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3.79	26.83	27.91	41.46	100.00( 369)
모두 받음	3.73	30.51	28.14	37.63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2.69	20.19	31.92	45.19	100.00( 520)
$\chi^2(df)$	15.777(9)				
미술, 만들기 도와주기					
학습 사교육 받음	3.80	49.68	31.65	14.87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5.69	46.61	28.46	19.24	100.00( 369)
모두 받음	5.42	46.44	30.17	17.97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6.54	45.00	30.96	17.50	100.00( 520)
$\chi^2(df)$	6.226(9)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집안일 함께 하기					
학습 사교육 받음	5.06	48.42	25.95	20.57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8.94	44.99	27.10	18.97	100.00( 369)
모두 받음	6.44	40.00	32.20	21.36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9.42	43.27	26.15	21.15	100.00( 520)
$\chi^2(df)$		12.356(9)			
퍼즐, 게임 하기					
학습 사교육 받음	6.33	48.42	31.01	14.24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6.78	45.26	32.52	15.45	100.00( 369)
모두 받음	5.08	44.75	36.95	13.22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6.54	46.92	31.92	14.62	100.00( 520)
$\chi^2(df)$		4.021(9)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과학놀이하기					
학습 사교육 받음	11.71	51.90	22.78	13.61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13.28	50.41	22.49	13.82	100.00( 369)
모두 받음	11.53	46.10	26.44	15.93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13.46	49.23	22.69	14.62	100.00( 520)
$\chi^2(df)$		4.197(9)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학습 사교육 받음	8.86	49.37	31.33	10.44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9.21	48.51	27.37	14.91	100.00( 369)
모두 받음	11.19	44.07	33.22	11.53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7.69	50.58	27.12	14.62	100.00( 520)
$\chi^2(df)$		11.644(9)			
스포츠 운동하기					
학습 사교육 받음	8.23	54.43	27.53	9.81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10.57	47.70	27.64	14.09	100.00( 369)
모두 받음	8.14	48.81	32.54	10.51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10.58	50.19	24.81	14.42	100.00( 520)
$\chi^2(df)$		12.937(9)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2.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단기적 영향

본 절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의 검사와 조사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단기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가. 조사대상 아동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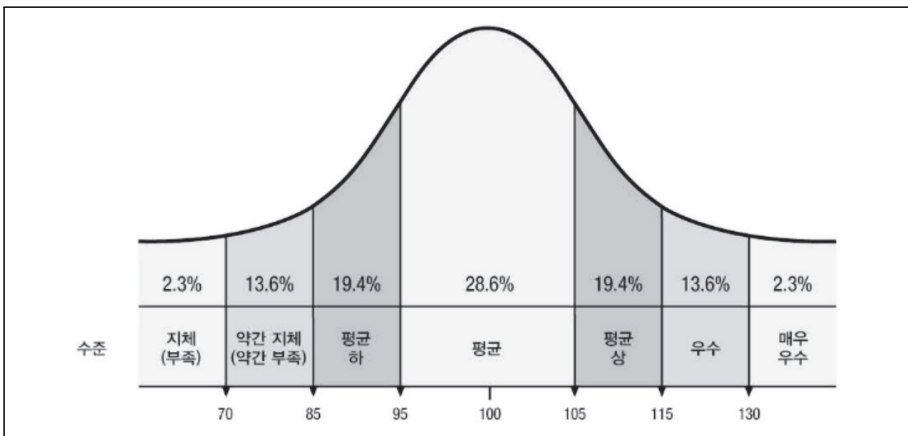
### 1) 언어능력

#### 가) 전반적 언어능력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학령기 아동 언어검사(LSSC; 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이윤경·허현숙·장승민, 2015)를 실시하였다. LSSC의 총 9개의 하위 검사를 통해 언어의 의미(상위개념 이해, 상위어 표현, 반의어 표현, 동의 표현, 비유문장 이해), 구문(구문 이해, 문법 오류 판단, 문법 오류 수정, 복문 산출), 화용-담화(단락 듣기 이해)와 같은 전반적인 언어영역을 이해와 표현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LSSC의 언어지수에 따른 해석 분류는 다음과 같다. 언어지수가 69 이하로 평균에서 -2 표준편차 이하에 속하는 경우는 전체의 하위 2.3% 이하에 해당하여 언어능력이 많이 지체된 상태이며, 언어지수가 70~84 사이로 -1 표준편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의 하위 13.6% 이하에 해당하여 약간 지체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언어지수가 115~129 사이로 +1 표준편차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13.6%에 해당하여 우수한 수준이며, 언어지수가 130 이상인 경우는 상위 2.3% 이내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V-2-1] LSSC 언어지수에 따른 해석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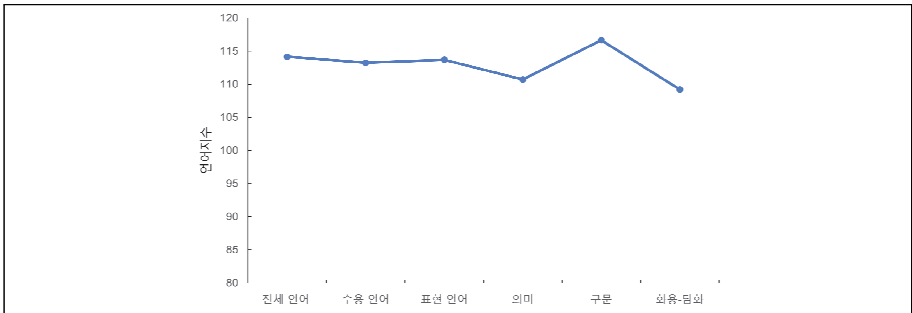
언어지수가 130 이상으로 ‘매우 우수’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18.3%, 115 이상~130 미만으로 ‘우수’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25.4%, 105 이상~115 미만으로 ‘평균 상’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29.6%, 95 이상~105 미만으로 ‘평균’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12.7%’, 85 이상~95 미만으로 ‘평균 하’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9.9%, 70 이상~85 미만으로 ‘약간 지체’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2.8%, 70 미만으로 ‘지체’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1.4%로 나타났다.

〈표 IV-2-1〉 LSSC 검사 결과

영역 구분	하위 검사	언어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언어	전체 하위 검사	114.1	16.8
수용언어	상위개념 이해 5. 구문 이해 6. 비유문장 이해 7. 문법 오류 판단 10. 단락 듣기 이해	113.2	15.3
표현언어	2. 상위어 표현 3. 반의어 표현 4. 동의어 표현 8. 문법 오류 수정 9. 복문 산출	113.7	18.2
의미	상위개념 이해 상위어 표현 반의어 표현 동의어 표현 6. 비유문장 이해	110.7	18.6
문법	5. 구문 이해 7. 문법 오류 판단 8. 문법 오류 수정 9. 복문 산출	116.6	14.9
담화/화용	10. 단락 듣기 이해	109.2	16.4

LSSC 수행 결과, 전체언어 언어지수 평균 점수는 114.1(표준편차 16.8)로 대상 아동들의 전체 언어능력은 평균 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언어 영역의 평균 언어지수 점수는 113.2(표준편차 15.32), 표현 언어영역의 평균 언어지수 점수는 113.7(표준편차 18.2)로 나타나, 대상 아동들의 수용 언어능력과 표현 언어능력은 모두 평균 상 범주에 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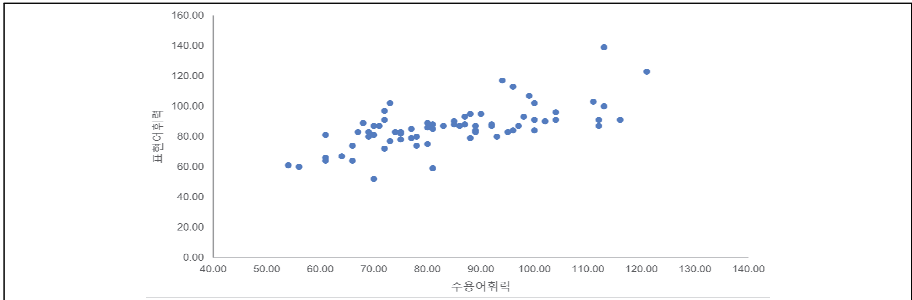
[그림 IV-2-2] LSSC 영역별 점수



나) 어휘력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용·표현 어휘 검사(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9)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 아동의 REVT 수용어휘 평균 점수는 84.1, 표준편차 15.6이며, 표현어휘 평균 점수는 85.9, 표준편차 14.1이다. REVT 수용어휘력 점수가 해당 생활 연령대의 평균 점수 이상에 속하는 아동은 45명(62.5%), 평균~+1SD에 속하는 아동은 2명(2.7%), -1SD~평균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9명(12.5%), -2SD~-1SD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11명(15.2%), -2SD 미만에 속하는 아동은 5명(6.9%)으로 나타났다. 표현어휘력의 경우, 해당 생활 연령대의 평균 이상에 속하는 아동은 42명(58.3%), 평균~+1SD에 속하는 아동은 2명, -2SD~-1SD 범주에 속하는 18명, -2SD 미만에 속하는 아동은 5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3] 아동의 수용어휘력 및 표현어휘력 점수



주: REVT는 생활연령에 해당하는 수용어휘 능력과 표현어휘 능력의 평균, 표준편차 점수를 기준으로 '정상 발달', '약간 지체/유의 요망(생활 연령대의 -2SD~-1SD)', '어휘 능력 발달 지체(-2SD 미만)'로 어휘 능력 발달의 정상성을 판정할 수 있음.

## 다) 언어능력 및 언어환경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인 KBPR(Korean Brief Parent Report, 한지윤·임동선, 2018)을 실시한 결과, 총점은 83.9(표준편차 11.8)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가족력 영역의 평균 점수는 95.2(표준편차 12.1)로 나타났다. 초기 이정표 영역의 평균 점수는 88.5(표준편차 17.7), 행동 패턴 및 활동 선호도 영역 평균 점수는 77.1(표준편차 13.2), 현재 언어능력 영역 평균 점수는 82.1(표준편차 18.8)로 나타났다.

〈표 IV-2-2〉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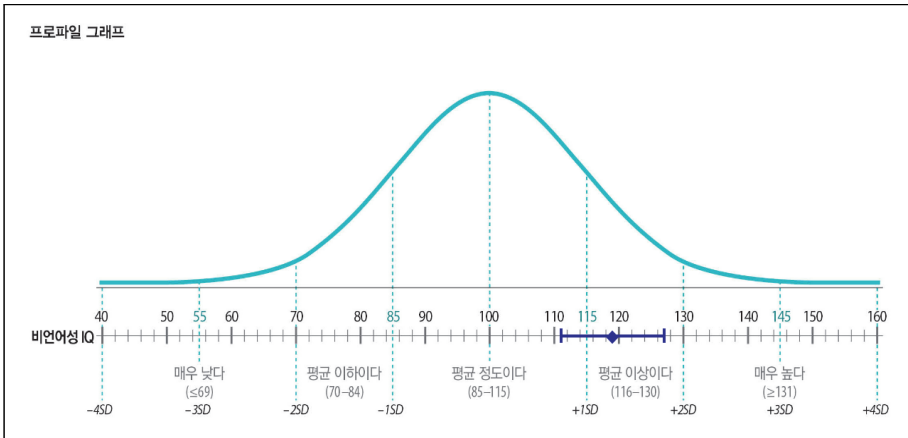
영역	평균	표준편차
초기 이정표 (걸음마 시기, 첫 낱말 시기 등)	88.5	17.7
현재 언어능력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문장 구성 능력, 현 언어 수준 등)	82.1	18.8
행동 패턴 및 활동 선호도 (책 읽기 선호도, 문해 능력, 선호하는 활동 등)	77.1	13.2
가족력 (교육 수준, 언어 및 학습 어려움에 대한 가족력)	95.2	12.1
총점	83.9	11.8

## 2) 인지 능력

### 가) 비언어성 지능

아동의 비언어성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 카우프만 간편지능검사(Korean 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2: K-BIT-2)(문수백, 2020)를 실시한 결과, 아동의 비언어성 지능 점수는 119.25(표준편차 20.84)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이상 수준에 속하는 점수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비언어성 지능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IV-2-4] 비언어성 지능 점수



#### 나) 집행기능

집행기능의 하위요소인 ‘일화적 완충기’를 측정하기 위해 단어목록회상 과제(천 소연·임동선, 2017)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어순 배열 조건과 무선 배열 조건 모두에서 어절 수가 3어절~7어절로 증가할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어순 및 배열 조건에 따른 수행력을 살펴본 결과, 문장 순 배열에서 3어절 조건에서의 수행력은 96.3점(표준편차 7.3), 5어절 조건에서의 수행력은 82.7점(표준편차 15.1), 7어절 조건에서의 수행력이 72.6점(표준편차 18.2)으로 나타났다. 무선 배열 조건의 경우, 3어절 조건에서의 수행력은 93.6점(표준편차 8.7), 5어절 조건은 65.3점(표준편차 16.6), 7어절 조건은 44.6점(표준편차 16.5)으로 나타났다. 어순 배열 조건에서의 총점은 86.3점(표준편차 37.6), 무선 배열 조건에서의 총점은 68.1점(표준편차 33.5)으로 어순 배열 조건에서의 수행력이 무선 배열 조건에서의 수행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순 배열 조건에서의 3어절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선 배열 조건에서의 7어절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이 기억해야 하는 단어목록이 길어질수록 어려움을 보였으나, 어순이라는 장기기억을 사용하여 단기기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표 IV-2-3〉 단어목록회상 과제 결과

단위: 점

	어순 배열 조건		무선 배열 조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어절	96.3	7.3	93.6	8.7
5어절	82.7	15.1	65.3	16.6
7어절	72.6	18.2	44.6	16.5
총점	86.3	37.6	68.1	33.5

## 3) 사회정서

## 가) 문제해결력

아동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해 문제해결력 검사(임동선·아이세이언어연구소, 2023)을 실시하였다.

상황/단서 추론 능력은 상황이 일어난 장소의 인물과 사물 같은 단서들을 활용하여 문제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의미하며 평균 점수는 82.2점(표준편차 12.1)으로 나타났다. 원인/이유 추론 능력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와 순서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평균 82.4점(표준편차 10.9)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상황에서 각 인물들의 감정을 유추하고 그게 상응하는 감정 어휘를 표현하는 감정 추론 능력은 평균 92.1점(표준편차 8.2)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해결 추론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아동이 보고 겪은 자신의 경험과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식 안에서 제시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균 80.6점(표준편차 13.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방책은 상황 속에서 주요 단서나 적절한 참조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 능력을 기반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였으며, 평균 74.2점(표준편차 17.1)으로 나타났다.

〈표 IV-2-4〉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

단위: 점

평가영역	평균	표준편차
상황/단서 추론	82.2	12.1
원인/이유 추론	82.4	10.9
감정 추론	92.1	8.2
문제해결 추론	80.6	13.3
예방책	74.2	17.1
총 점	81.9	8.3

## 나) 정서·행동 특성

아동 정서·행동특성검사지(CPSQ-II) 결과를 <표 IV-2-5>에 제시하였다. 각 핵심 성격 특성별 원점수를 T점수(평균 50, 표준편차 10)로 환산하였다.

먼저, CPSQ-II 검사의 성격 특성 부분은 학생들의 성격 특성의 장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내적 요인은 책임감이 높고 신중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외적 요인은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내적 요인 중 성실성(맡은 바 일을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태도) 평균 T점수는 48.1(표준편차 13.9)로 나타났고, 자존감(나에 대해 가치롭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평균 T점수는 49.5(표준편차 15.1), 개방성(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T점수는 48.9(표준편차 14.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적 요인을 살펴본 결과, 타인이해(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 T점수는 49.7(표준편차 13.7), 사회적 주도성(대인관계나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참여하는 태도) T 점수는 50.6(표준편차 12.8), 공동체의식(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태도) T점수는 49.2(표준편차 15.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 아동들의 성격 요인 발달이 평균 범주에 속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위험 문항인 학교폭력 피해의 평균 T점수는 49.1(표준편차 5.7)이었으며,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뚜렷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요인인 부모 자녀 관계의 평균 T점수는 49.1(표준편차 8.8)로, 부모 자녀 관계 영역의 점수가 평균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자녀 관계가 양호하고 부모가 자녀 양육 중 겪는 관계의 어려움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서·행동 특성 발달을 살펴본 결과, 집중력 부진(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에서 흔한 정서 및 행동문제의 경향성) 평균 T점수는 50.7(표준편차 11.3), 불안(분리불안장애 등 불안장애, 우울증, 심리적 충격, 별다른 원인 없이 나타나는 여러 신체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감, 원치 않는 생각이나 장면이 떠오르는 등의 정서 및 행동문제의 경향성) 평균 T점수는 51.5(표준편차 11.7), 학습(언어 발달의 지연 및 상황에 맞게 말하는 능력의 부진, 학습장애, 지적장애, 강박 성향 등으로 인한 학습 부진 또는 사회성 부진) 평균 T점수는 48.9(표준편차

9.4), 과민(짜증스러운 기분과 반항적인 태도를 특징으로 하는 우울증, 기분 조절 장애, 반항장애, 품행장애 등에서 흔한 정서 및 행동문제의 경향성) T점수는 49.5 (표준편차 11.7)로 나타났다.

CPSQ-II 검사의 정서·행동 특성 부분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성향이 높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서·행동 특성 총점에 따라 관심군과 정상군으로 판정된다. 관심군은 정서·행동문제 총점이 초1 남학생 20/여학생 17 이상이며 이 점수는 평균에서 1.5 SD(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판정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 대상 아동들의 정서 및 행동 특성 영역은 모두 평균 범주에 속하여 집중력 부진, 불안, 학습부진, 정서 및 행동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정서·행동 특성 T점수

구분		영역	평균	표준편차
성격특성	내적	성실성	48.1	13.9
		자존감	49.5	15.1
		개방성	48.9	14.1
	외적	타인이해	49.7	13.7
		사회적 주도성	50.6	12.8
		공동체의식	49.2	15.2
위험문항		학교폭력피해	49.1	5.7
외부요인		부모 자녀 관계	49.1	8.8
요인	정서·행동 특성	집중력 부진	50.7	11.3
		불안	51.5	11.7
		학습	48.9	9.4
		과민	49.5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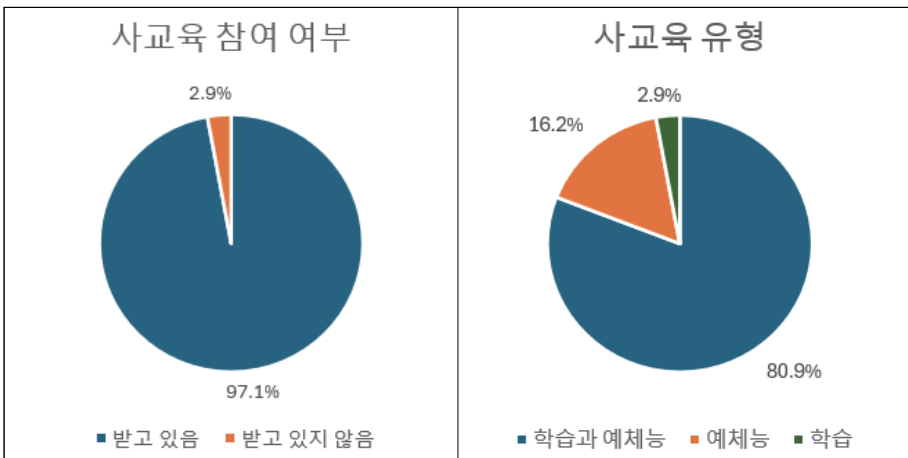
#### 4) 사교육 현황 및 인식

현재 사교육 참여 여부 응답 결과, 응답자의 97.1%(68명)는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2.9%(2명)는 현재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참여하는 사교육의 유형은 ‘학습(수, 과학, 창의, 언어 등)과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프로그램 모두 참여’로 응답한 비율이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응답한 비율이 16.2%, ‘학습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응답한 비율이 2.9%로 나타났다. 아동이 참여하는 사교육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학습 관련 프로그램은 국어, 논술, 수학, 영어, 한자, 코딩, 그리고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은 피아노, 미술, 합기도, 태권도, 축구, 줄넘기, 발레, 댄스, 리듬체조, 수영, 테니스, 바둑 등으로 응답하였다. 1주일 기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의 개수는 최소 1개~최대 10개이고, 평균 3.7개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여하는 학습 관련 사교육 개수는 최소 0개~최대 6개이고, 평균 개수는 1.6개였다. 예체능 관련 사교육 개수는 최소 0개~최대 5개이고, 평균 개수는 2.4개였다.

[그림 IV-2-5] 사교육 참여 여부와 실시 유형 조사



아동의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은 2.7시간(표준편차 1.4)이었다. 학습과 예체능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평일 하루 평균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평균 1.5시간(표준편차 1.2), 하루 평균 예체능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1.2시간(표준편차 0.5)이었다. 다음으로 주말 기준 하루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은 0.6시간(표준편차 0.9)이었다. 학습과 예체능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주말 하루 평균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평균 0.3시간(표준편차 0.6), 예체능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평균 0.3시간(표준편차 0.9)이었다.

자녀가 처음 사교육을 시작한 나이의 평균은 4.5세(표준편차 1.4), 처음 시작한 사교육 유형은 체육(18.7%), 영어(17.3%), 미술(17.3%), 무용(10.1%), 음악(8.6%),

수학(7.2%), 국어(7.2%), 창의(4.3%), 기타(5%), 과학(1.4%), 컴퓨터코딩(1.4%), 논술(0.7%), 기타외국어(0.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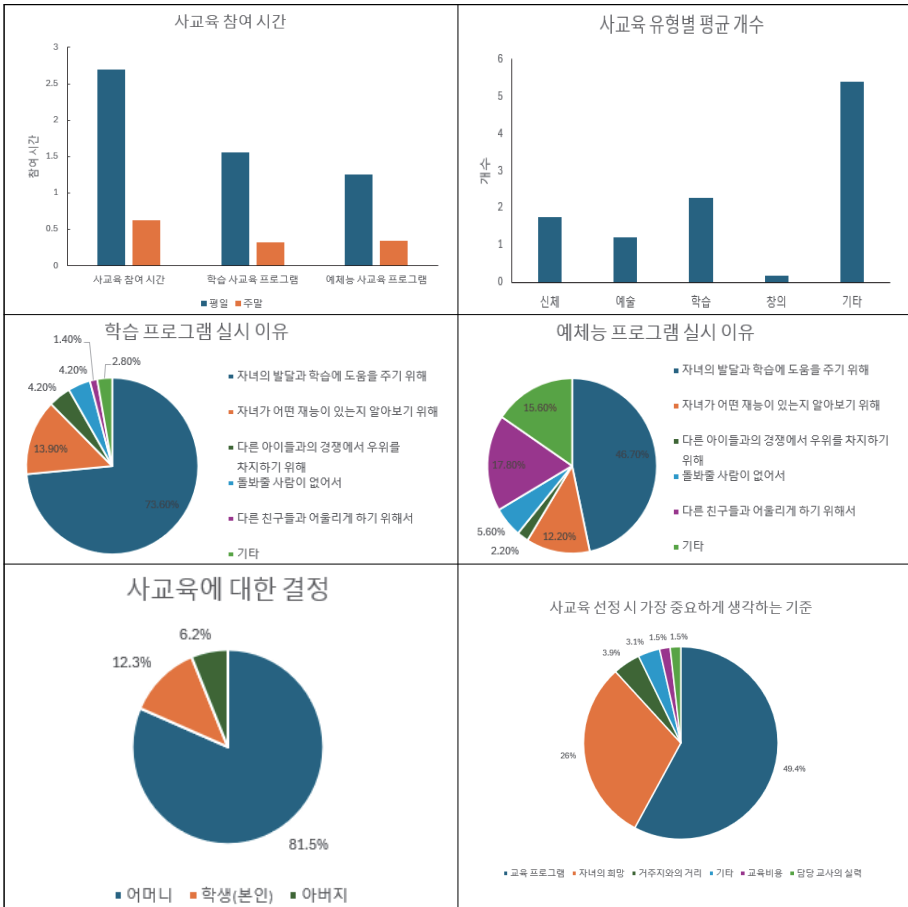
자녀의 과거 사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평균 5.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체육, 무용), 예술(음악, 미술), 학습(국어, 논술, 영어, 기타 외국어, 수학, 과학, 컴퓨터), 창의(블록 등), 기타(취미, 교양)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유형별 평균 개수는 신체 1.7개, 예술 1.2개, 학습 2.2개, 창의 0.1개, 기타 5.4개였다. 기타로는 과학관 체험, 숲 체험, 천문대 활동, 바둑, 승마 등이 제시되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을 살펴본 결과, 학습 관련 프로그램 실시 목적은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로 응답한 비율이 7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는 13.9%,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돌봄을 위해)’는 각각 4.2%, ‘기타’는 2.8%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학습 관련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로 응답한 비율이 46.7%,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17.8%, ‘기타’ 15.6%, ‘자녀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2.2%,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돌봄을 위해)’ 5.6%,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2.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응답으로는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취미 활동을 위해’라는 응답이 많았다.

사교육에 대한 결정은 주로 어머니가 한다는 응답이 81.5%, 학생 본인 12.3%, 아버지 6.2%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대한 응답은 ‘교육 프로그램’(49.4%), ‘자녀의 희망’(26%), ‘거주지와의 거리’(3.9%), ‘기타’(3.1%), ‘교육비용’(1.5%), ‘담당교사의 실력’(1.5%)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차량 이동 유무, 정서적 안정, 시간 조율 가능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IV-2-6] 현재 사교육 참여 현황 및 인식 조사



사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18.2%는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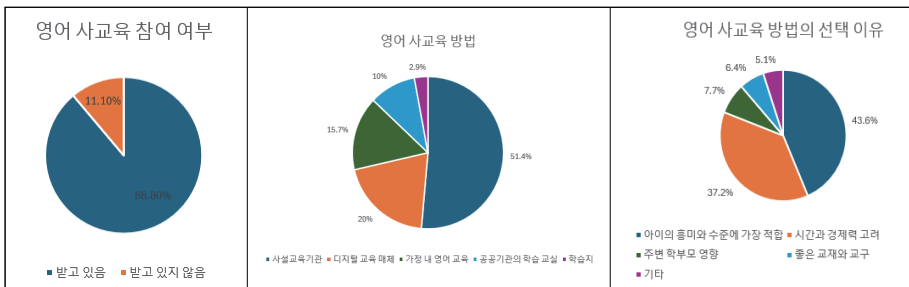
영어 사교육에 대한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8%는 현재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1.1%는 현재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영어 사교육 방법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51.4%가 사설교육기관(보습학원, 영어도서관 등)에서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디지털 교육 매체(인터넷 강의, 화상영어, 전화영어 등)를 활용하여 영어를 배우는 경우는 20%였으며,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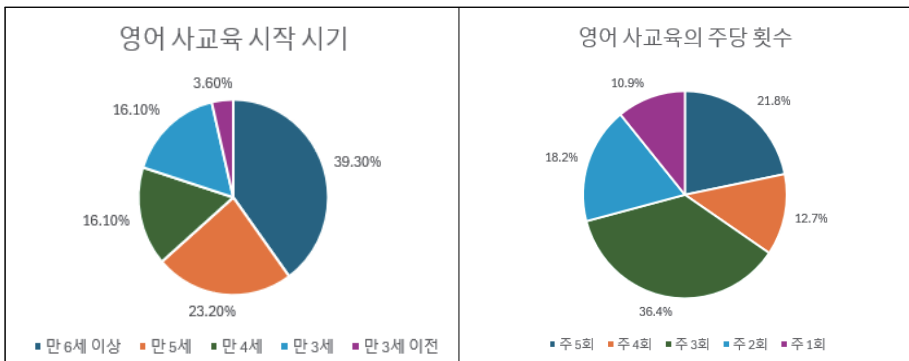
내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15.7%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학습교실(주민센터, 문화센터,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영어를 배우는 경우는 10%, 학습지로 영어를 배우는 경우는 2.9%이었다.

자녀의 영어 사교육 방법으로 해당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6%인 34명이 아이의 흥미와 수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시간과 경제력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37.2%(29명)로 나타났으며, 주변 학부모의 영향을 받아 선택한 경우는 7.7%(6명)이었다. 좋은 교재와 교구를 이유로 선택한 경우는 6.4%(5명), 기타 이유를 선택한 응답자는 5.1%(4명)로 조사되었다. 기타의 이유로는 돌봄, 안전한 이동 등이 제시되었다.

[그림 IV-2-7] 영어 사교육 참여 여부 및 방법



[그림 IV-2-8] 영어 사교육 시작 시기 및 현재 주당 실시 횟수



영어 사교육을 시작한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 만6세 이상에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39.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5세에 시작한 경우는 23.2% 이었고 만4세와 만3세에 시작한 경우가 각각 16.1%로 나타났다. 만3세 이전에 시작한 경우는 3.6%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영어 사교육의 주당 횟수에 대한 조사 결과, 주당 자녀가 받는 영어 사교육의 횟수는 3회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주 5회는 21.8%, 주 2회는 18.2%, 주 4회는 12.7%, 주 1회는 10.9%로 나타났다.

하루에 자녀가 받는 영어 사교육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시간에서 2시간을 받는 비율이 55%로 가장 많았고, 2시간에서 3시간은 20%, 30분 미만은 20%, 3시간에서 4시간은 3.3%, 5시간 이상은 1.7%로 나타났다.

## 나. 사교육 경험과 언어,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행동 특성과의 관계

### 1) 사교육 경험과 언어능력 간 관계 및 영향

아동의 언어능력과 사교육 경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언어능력으로는 전반적인 언어능력과 어휘력을 살펴보고 사교육 경험의 변인으로는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 비용, 현재 및 과거 참여 개수를 분석하였다.

먼저, 사교육 시간과 언어능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중 사교육 시간과 표현어휘, 수용어휘, 표현언어, 수용언어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사교육 시간과 언어능력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주말 사교육 시간과 언어능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말 사교육 시간 또한 어휘력, 전반적인 언어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교육 비용과 언어능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 비용과 어휘력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사교육 비용과 언어능력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경험과 언어능력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교육 경험으로는 현재 사교육 참여 개수와 과거 사교육 참여 개수를 분석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하여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 개수와 과거에



참여한 사교육 개수 모두 아동의 어휘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언어능력과의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언어능력으로는 전반적인 언어능력(표현언어, 수용언어)과 어휘력(표현어휘, 수용어휘)을 살펴보았고 사교육 경험의 변인으로는 현재 아동이 주중 및 주말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과 월 사교육 비용, 과거와 현재에 아동이 참여한 사교육 프로그램 개수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의 사교육 경험을 예측변인으로, 언어능력을 준거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주중 및 주말), 월 사교육 비용, 사교육 참여 개수(현재 및 과거)가 아동의 표현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57, p>.05$ ). 또한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주중 및 주말), 월 사교육 비용, 사교육 참여 개수(현재 및 과거)가 아동의 수용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45, p>.05$ ).

다음으로,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주중 및 주말), 월 사교육 비용, 사교육 참여 개수(현재 및 과거)가 아동의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63, p>.05$ ). 또한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주중 및 주말), 월 사교육 비용, 사교육 참여 개수(현재 및 과거)가 아동의 수용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930, p>.05$ ).

## 2) 사교육 경험과 문제해결력 간 관계 및 영향

아동의 문제해결력과 사교육 경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언어능력으로는 전반적인 언어능력과 어휘력을 살펴보았고 사교육 경험의 변인으로는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 비용, 현재 및 과거 참여 개수를 분석하였다.

사교육 시간과 문제해결력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중 사교육 시간과 상황/단서, 원인/이유, 감정, 문제해결, 예방책 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사교육 시간 또한 상황/단서, 원인/이유, 감정, 문제해결, 예방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교육 비용과 문제해결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사교육 비용과 상황/단서, 원인/이유, 감정, 문제해결, 예방책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경험과 문제해결력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교육 경험으로는 현재 사교육 참여 개수와 과거 사교육 참여 개수를 분석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하여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예체능 사교육 프로그램 개수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 개수,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총개수는 문제해결력의 모든 영역(상황/단서, 원인/이유, 감정, 문제해결, 예방책)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참여한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 개수, 학습 프로그램 개수, 창의 프로그램 개수는 문제해결력의 모든 영역(상황/단서, 원인/이유, 감정, 문제해결, 예방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과거에 참여한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 개수는 문제해결의 하위영역인 예방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32$ ,  $p<.05$ ). 또한 과거에 참여한 사교육 총개수는 문제해결의 하위영역인 예방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37$ ,  $p<.05$ ). 상관계수 .02~.04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그 관계가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결과는 현재 사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것이 아동의 문제해결력과는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거에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아동은 문제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방책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3.05$ ,  $p>.05$ ). 즉,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문제해결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사교육 경험과 집행기능 간 관계 및 영향

먼저, 사교육 시간과 집행기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 시간과 단어목록 회상 과제 수행력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교육 비용과 문제해결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사교육 비용과 단어목록회상 과제 수행력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사교육 경험과 집행기능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교육 경험으로는 현재 사교육 참여 개수와 과거 사교육 참여 개수를 분석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하여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 개수와 과거에 참여한 사교육 개수 모두 아동의 집행기능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2.45, p>.05$ ). 즉,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집행기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사교육 경험과 정서·행동 특성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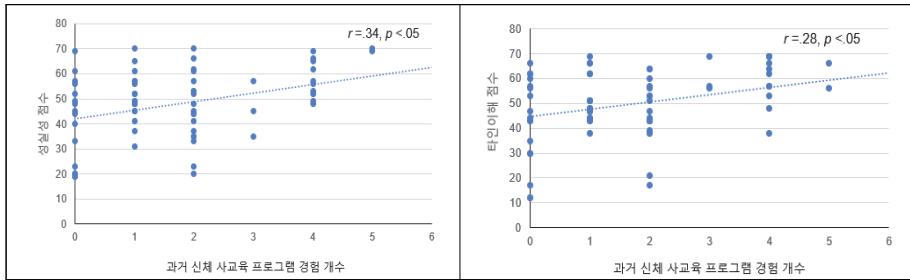
사교육 시간과 정서·행동 특성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중 및 주말 사교육 시간은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의식, 학교폭력피해, 집중력 부진, 불안, 학습, 과민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교육 비용과 정서·행동 특성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 비용은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의식, 학교폭력피해, 집중력 부진, 불안, 학습, 과민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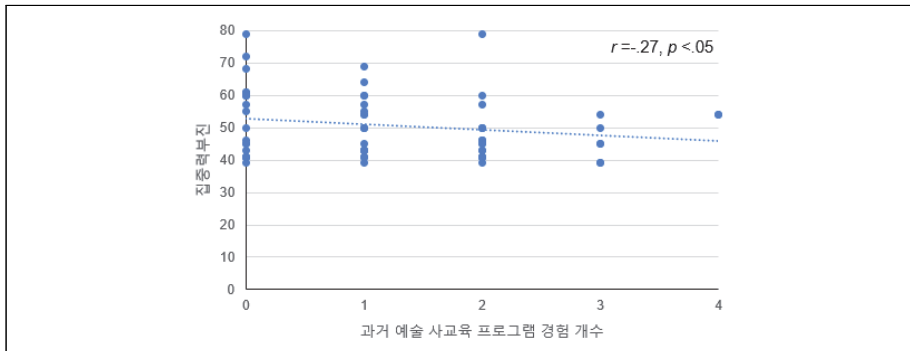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교육 경험과 정서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과거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성실성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34, p<.05$ ). 또한 아동의 과거 신체 사교육 참여 개수와 타인이해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28, p<.05$ ). 이는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아동일수록 성실성과 타인이해 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에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집중력 부진이 낮게 나타났다( $r=-.27, p<.05$ ). 이는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아동일수록 집중력 부진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관계수 .02~.04는 상관관계가 있거나 그 관계가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과거 학습 사교육 참여 개수와 자존감 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31, p<.05$ ). 이는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아동일수록 자존감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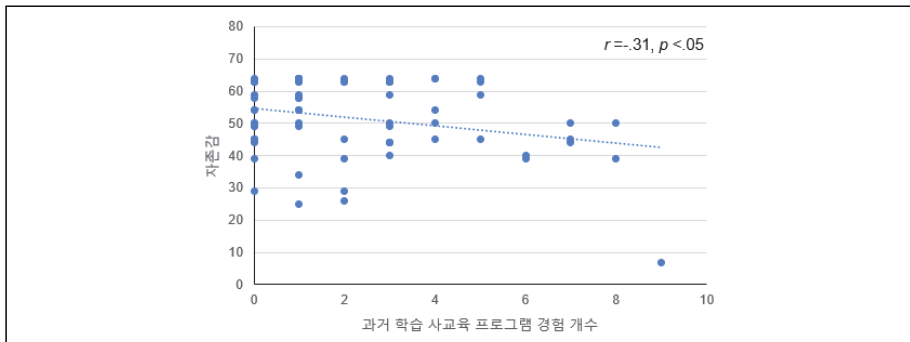
[그림 IV-2-9] 과거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성실성, 타인이해 간 관계



[그림 IV-2-10] 과거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집중력 부진 간 관계



[그림 IV-2-11] 과거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자존감 간 관계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정서 및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주중 및 주말), 월 사교육 비용, 사교육 참여 개수(현재 및 과거)가 아동의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의식, 학교폭력피해, 부모 자녀 관계, 집중력 부진, 불안, 학

습, 과민 각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모든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정서 및 행동 특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3.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본 절에서는 부모 변수가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이후 사교육 경험 및 이후의 학업 및 사회정서 발달 등의 아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아동패널<sup>7)</sup>에 포함되어 있는 부모 변수, 사교육 경험 변수, 아동 변수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IV-3-1〉 한국아동패널의 부모, 사교육 경험 및 아동 변수

사교육 경험 변수 (w5, w6, w7)	부모 변수 (w7)	아동 변수 (w8~w14)
사교육 경험 유무	출생순위 [첫째(참조집단), 둘째, 셋째, 넷째 이상]	지능지수 (w9)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무경험(참조집단), 예체능 사교육 경험, 학습 사교육 경험,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패널 거주지역 규모 [읍면지역(참조집단), 중소도시, 대도시]	학업수행능력 (w8~w14)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0개(참조집단), 1~2개, 3개 이상]	가구소득 (로그변환)	삶의 만족도 (w11~w14)
주평균 사교육 이용 개수	부모학력(부모학력 평균)	자아존중감 (w8~w11, w13~w14)
월평균 사교육 비용	모 취·학업 유무[무(참조집단), 유]	집행기능곤란 (w8~w11, w13)
	부 취·학업 유무[무(참조집단), 유]	
	부모 우울 (부모 우울 평균)	
	부부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 (부모 양육스트레스 평균)	

주: 1) w는 wave의 약자로서 반복측정을 의미하고, 뒤의 숫자는 반복측정을 실시한 것이 몇차년도인지를 의미함.  
2) 아동 변수의 경우, 학년에 따라 일부 문항이 수정되거나 추가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7)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부터 8월 중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2008년 1차년도 최초 참여가구 수 2,150)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7년까지 매해 실시되는 패널조사로서 단일 연령집단의 횡단적인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음.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5차년도 자료(중학교 2학년 시기, 참여가구 1304, 참여가구 아동 1,293명)까지 공개되어있음.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s://panel.kicce.re.kr/pskc/index.do>. 인출일: 2024. 12. 31.)

## 가. 아동의 사교육 경험

사교육 경험이 어느 정도 재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에서 7차년도까지 3년 동안 자료를 활용하여 만3세에서 만5세까지 3년 동안 영유아의 사교육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IV-3-2>~<표 IV-3-6>는 아동기(만3세~5세)에서의 사교육 관련 경험들, 즉,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사교육 무경험, 예체능 관련 사교육 경험,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예체능·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아동기의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0개, 1~2개, 3개 이상), 주평균 사교육 이용 개수, 월평균 사교육 비용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은 만3세 47.2%, 만4세 98.5%, 만5세 71.9%의 추이를 보였다(표 IV-3-2 참조). 사교육 경험 유형의 경우 만3세에는 사교육 무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만4세에는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비율이, 만5세에는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많았다(표 IV-3-3 참조).

<표 IV-3-2> 아동기의 사교육 경험의 추이

단위: 명, (%)

사교육 경험	만3세		만4세		만5세	
유	804	(47.2)	267	(98.5)	1,165	(71.9)
무	899	(52.8)	4	( 1.5)	455	(28.1)

주: 만4세의 경우 2013년 6차년도 패널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사교육 경험 결측치가 많아 표본수가 감소함.

<표 IV-3-3> 아동기의 사교육 경험 유형의 추이

단위: 명, (%)

사교육 경험	만3세		만4세		만5세	
사교육 무경험	899	(52.8)	4	( 1.5)	436	(26.9)
예체능 사교육 경험	71	( 4.2)	50	(18.5)	308	(19.0)
학습 사교육 경험	628	(36.9)	129	(47.6)	323	(19.9)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105	( 6.2)	88	(32.5)	553	(34.1)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의 경우 만3세에는 0개라고 응답한 아동이 가장 많았고 만4세에는 1~2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만5세에는 0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표 IV-3-4 참조). 아동기의 주평균 사교육 이용 개수는 만3세에는 평균 1.65개, 만4세에는 평균 2.80개, 만5세에는 평균 3.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5 참조).

〈표 IV-3-4〉 아동기의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의 추이

단위: 명, (%)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만3세		만4세		만5세	
0개	970	(57.0)	54	(19.9)	744	(45.9)
1~2개	669	(39.3)	173	(63.8)	605	(37.3)
3개 이상	64	(3.8)	44	(16.2)	271	(16.7)

〈표 IV-3-5〉 아동기의 주평균 사교육 이용 개수

단위: 개

만3세			만4세			만5세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1,703)	1.65	1.24	(271)	2.80	1.81	(1,620)	3.39	1.84

아동기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만3세에는 평균 79.4천원, 만4세에는 평균 101.0천원, 만5세에는 평균 184.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6 참조).

〈표 IV-3-6〉 아동기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의 추이

단위: 천원

만3세			만4세			만5세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1,703)	79.4	8.01	(271)	101.0	9.23	(1,620)	184.7	17.08

## 나.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대한 부모 변수의 효과

부모 변수가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가구소득, 부모학력, 부모 취·학업 유무,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월평균 사교육 비용이었다. 첫째, 사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IV-3-7〉에서와 같이 출생순위가 둘째, 셋째, 넷째 이상인 아동보다 첫째인 아동이 사교육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389$ ,  $p<0.01$ ;  $b=-0.427$ ,  $p<0.05$ ;  $b=-2.146$ ,  $p<0.001$ ).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1.256$ ,  $p<0.001$ ). 그러나 거주지역 규모, 부모학력, 부 및 모 취·학업 유무,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따라서는 사교육 경험 유무가 달라지지 않았다.

〈표 IV-3-7〉 사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영향 요인		b	S.E.	Wald	Exp(b)
출생 순위	상수항	-6.266***	1.127	30.902	0.002
	둘째 <sup>R</sup>	-0.389**	0.131	8.873	0.678
	셋째 <sup>R</sup>	-0.427*	0.202	4.478	0.652
	넷째 이상 <sup>R</sup>	-2.146***	0.594	13.043	0.117
거주 지역	중소도시 <sup>D</sup>	0.083	0.332	0.062	1.086
	대도시 <sup>D</sup>	0.047	0.334	0.019	1.048
로그가속소득 <sup>7</sup>		1.256***	0.183	47.305	3.510
부모학력 <sup>7</sup>		-0.023	0.076	0.093	0.977
모 취·학업 유무 <sup>7</sup>		-0.219	0.130	2.819	0.803
부 취·학업 유무 <sup>7</sup>		-0.367	0.314	1.370	0.693
부모 우울 <sup>7</sup>		0.025	0.133	0.035	1.025
부부갈등 <sup>7</sup>		0.126	0.109	1.356	1.135
부모 양육스트레스 <sup>7</sup>		0.048	0.153	0.098	1.049

주: 1) [참조집단] 종속변수: 사교육 무경험 집단, R: 출생순위 첫째, D: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둘째, 사교육 경험 유형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IV-3-8〉에  
서와 같이 출생순위가 둘째인 아동보다 첫째인 아동이 사교육 무경험보다 예체능  
관련 사교육 경험 및 예체능·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b=-0.355$ ,  $p<0.05$ ;  $b=-0.601$ ,  $p<.001$ ). 그리고 출생순위가 셋째 및 넷째 이상  
인 아동보다 첫째인 아동이 사교육 무경험보다 예체능·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698$ ,  $p<0.01$ ;  $b=-2.082$ ,  $p<.01$ ). 또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무경험보다 예체능관련 사교육 경험, 학습 관련 사교육 경  
험 및 예체능·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b=0.835$ ,  $p<0.001$ ;  $b=0.924$ ,  $p<0.001$ ;  $b=1.612$ ,  $p<0.001$ ). 그러나 거주지역  
에 따라서, 그리고 부모학력, 부 및 모 취·학업 유무,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따라서는 사교육 경험 유형이 달라지지 않았다.

〈표 IV-3-8〉 사교육 경험 유형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영향 요인		예체능 사교육 경험†		학습 사교육 경험†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b	S.E.	b	S.E.	b	S.E.
상수항		-5.757***	1.488	-4.765**	1.452	-8.994***	1.341
출생 순위	둘째 <sup>R</sup>	-0.355*	0.172	-0.158	0.170	-0.601***	0.152
	셋째 <sup>R</sup>	-0.466	0.277	-0.018	0.252	-0.698**	0.243
	넷째 이상 <sup>R</sup>	-1.123	0.673	-26.838	227260.25	-2.082**	0.790



영향 요인		예체능 사교육 경험†		학습 사교육 경험†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b	S.E.	b	S.E.	b	S.E.
거주 지역	중소도시 <sup>D</sup>	0.284	0.508	-0.02	0.440	-0.344	0.388
	대도시 <sup>D</sup>	0.442	0.510	-0.126	0.444	-0.252	0.391
로그가소득7		0.835***	0.238	0.924***	0.233	1.612***	0.214
부모학력7		0.117	0.100	-0.229*	0.098	0.041	0.088
모 취·학업 유무7		-0.062	0.172	-0.097	0.168	-0.297	0.152
부 취·학업 유무7		-0.527	0.378	-0.245	0.386	-0.076	0.384
부모 우울7		0.007	0.176	-0.055	0.170	0.088	0.156
부부갈등7		0.17	0.143	0.168	0.139	0.042	0.127
부모 양육스트레스7		-0.065	0.203	0.134	0.198	-0.043	0.179

주: 1) [참조집단] † : 사교육 무경험 집단, R : 출생순위 첫째, D :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셋째,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IV-3-9>에서와 같이 출생순위가 둘째 및 넷째 이상인 아동보다 첫째인 아동이 0개보다 1~2개의 학습 관련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261$ ,  $p<0.05$ ;  $b=-1.774$ ,  $p<0.05$ ).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0개보다 1~2개의 학습 관련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b=0.833$ ,  $p<0.001$ ;  $b=1.342$ ,  $p<0.001$ ), 부모학력이 낮을수록 0개보다 3개 이상의 학습 관련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0.196$ ,  $p<0.05$ ). 그러나 거주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부 및 모 취·학업 유무,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따라서는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표 IV-3-9>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영향 요인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1~2개†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개 이상†	
		b	S.E.	b	S.E.
상수항		-4.582***	1.097	-7.725***	1.440
출생 순위	둘째 <sup>R</sup>	-0.261*	0.126	-0.315	0.162
	셋째 <sup>R</sup>	-0.168	0.198	-0.343	0.265
	넷째 이상 <sup>R</sup>	-1.774*	0.766	-26.283	226817.36
거주 지역	중소도시 <sup>D</sup>	-0.303	0.335	-0.338	0.444
	대도시 <sup>D</sup>	-0.398	0.338	-0.290	0.446
로그가소득7		0.833***	0.175	1.342***	0.225
부모학력7		-0.078	0.074	-0.196*	0.095
모 취·학업 유무7		-0.179	0.126	-0.219	0.163
부 취·학업 유무7		0.145	0.306	-0.067	0.387
부모 우울7		-0.053	0.130	0.200	0.167

영향 요인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1~2개+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개 이상+	
	b	S.E.	b	S.E.
부부갈등 <sup>7</sup>	0.042	0.105	-0.034	0.137
부모 양육스트레스 <sup>7</sup>	0.086	0.149	-0.009	0.193

주: 1) [참조집단] + :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0개 집단, R : 출생순위 첫째, D :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넷째, 월평균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IV-3-10>에서와 같이 가구소득과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사교육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14.756$ ,  $p<0.001$ ;  $b=1.408$ ,  $p<.05$ ). 그러나 출생순위, 거주지역, 그리고 부 및 모 취·학업 유무,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따라서는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표 IV-3-10> 월평균 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향 요인

독립변수		b	S.E.	$\beta$	t	$R^2$	$\Delta R^2$
상수항		-74.681	8.606	-	-8.678***	.124***	.124***
출생순위	둘째 <sup>R</sup>	-1.538	1.064	-0.044	-1.445		
	셋째 <sup>R</sup>	-2.131	1.729	-0.038	-1.232		
	넷째 이상 <sup>R</sup>	2.875	8.154	0.010	0.353		
거주지역	중소도시 <sup>D</sup>	-3.679	2.950	-0.107	-1.247		
	대도시 <sup>D</sup>	-2.279	2.972	-0.066	-0.767		
로그가구소득 <sup>7</sup>		14.756	1.453	0.334	10.155***		
부모학력 <sup>7</sup>		1.408	0.620	0.071	2.270*		
모 취·학업 유무 <sup>7</sup>		-1.832	1.066	-0.053	-1.718		
부 취·학업 유무 <sup>7</sup>		0.412	2.514	0.005	0.164		
상수항		-81.709	9.643	-	-8.473***	.126***	.002
출생순위	둘째 <sup>R</sup>	-1.562	1.067	-0.045	-1.464		
	셋째 <sup>R</sup>	-2.092	1.731	-0.037	-1.208		
	넷째 이상 <sup>R</sup>	3.865	8.203	0.014	0.471		
거주지역	중소도시 <sup>D</sup>	-3.602	2.955	-0.104	-1.219		
	대도시 <sup>D</sup>	-2.190	2.975	-0.063	-0.736		
로그가구소득 <sup>7</sup>		15.093	1.474	0.341	10.239***		
부모학력 <sup>7</sup>		1.536	0.627	0.077	2.447*		
모 취·학업 유무 <sup>7</sup>		-1.872	1.070	-0.054	-1.750		
부 취·학업 유무 <sup>7</sup>		0.506	2.520	0.006	0.201		
부모 우울 <sup>7</sup>		-0.217	1.098	-0.008	-0.198		
부부갈등 <sup>7</sup>		0.515	0.897	0.022	0.574		
부모 양육스트레스 <sup>7</sup>		1.399	1.282	0.041	1.091		

주: 1) [참조집단] R : 출생순위 첫째, D :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 다. 아동 특성에 대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효과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이후 학업 및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분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들 분석방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외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 1)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사교육이 질적인 변수인 경우,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할 수도 있다(Angrist, J. D. & Pischke, J-S., 2017; 손호성·이재훈, 2018; Card & Krueger, 1994). 이중차분법은 이질 집단 전후검사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에서 종속변수의 변화점수가 이질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종속변수에 대한 ‘특정 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면,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2차 시점에서의 종속변수의 평균을 비교함에 있어서 1차 시점에서의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기타 가외변수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으므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면 1차 시점 종속변수의 영향뿐만 아니라 기타 가외변수의 영향도 통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외변수를 회귀모형에 동시에 투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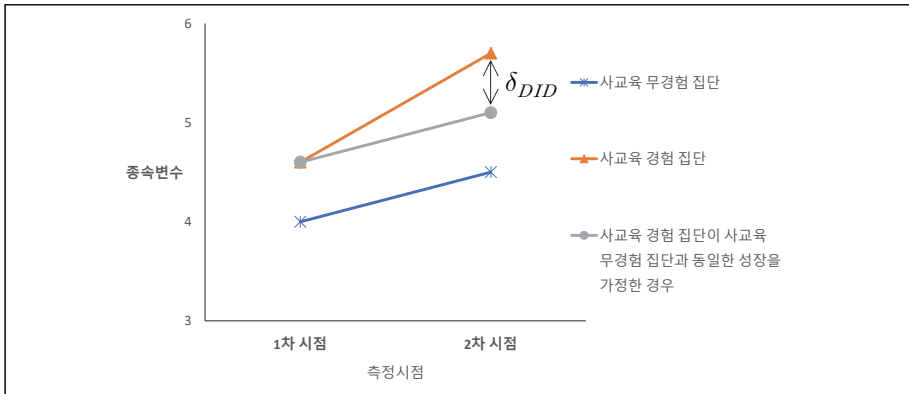
$$Y_{dt} = \alpha + \beta T_d + \gamma P_t + \delta_{DID} T_d \times P_t + f(X) + \epsilon_{dt}$$

[단,  $Y_{dt}$  : 종속변수,  $T_d$  : 사교육 경험 유무의 더미변수(경험 유 vs 경험 무),  $P_t$  : 측정시점의 더미변수(1차년도 vs 2차년도),  $T_d \times P_t$  : 사교육 경험 유무 변수와 측정시점 변수 간의 상호작용항,  $\delta_{DID}$  : 이중차분 추정값,  $f(X)$  : 기타 가외변수]

위 식에서  $\delta_{DID}$ 는 측정시점에 따른 평균 변화값을 사교육 경험 유무별로 구한 다음, 이들 값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이중차분 추정값(DID estimator)’이다. 이중

차분 추정값은 1차 시점 종속변수와 기타 가외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의미한다. [그림 IV-3-1]은 이중차분 추정값의 의미를 도식화하여 예시한 것이다. 이중차분 추정값( $\delta_{DID}$ )은 1차 시점 종속변수와 기타 가외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의미한다.

[그림 IV-3-1] 이중차분 추정값의 의미 예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학업수행능력,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차례대로 검증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한다면, 1차 시점에서의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통제함으로써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 경험 변수는 ‘사교육 경험 유무 변수’,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변수’,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변수’ 등 3가지 변수를 차례대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변수’는 사교육 경험 유형 변수를 변경한 것으로써 사교육 무경험 유형, 예체능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사교육 경험 유형,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유형 중에서 사교육 무경험 유형과 예체능 사교육 경험 유형을 0, 학습 사교육 경험 유형과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유형을 1로 코딩변경한 이분변수이다. 한편,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변수’는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변수를 변경한 것으로써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0개인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1~2개인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3개 이상인 유형 중에서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0개인 유형과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1~2개인 유형을 0,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3개 이상인 유형을 1로 코딩변경한 이분변수이다. 이중차분법 적용과정에서 결측값 처리는 분석에 필요한 변수에만 결측값이 있는 행을 제거하는 pairwise deletion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4차년도 학업수행능력을 2차 시점에서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1차 시점에서의 변수로는 8차년도 학업수행능력을 이용하였다. <표 IV-3-11>은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1차 시점에서의 학업수행능력 및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등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에 따른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유형별로 구한 학업수행능력의 변화값의 차이(즉, 이중차분 추정값)를 의미하는 '사교육 경험×학년'의 효과는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18, p>.05$ ;  $b=0.042, p>.05$ ;  $b=0.049, p>.05$ ). 이는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IV-3-11>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sup>T</sup>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sup>L</sup>	
		b	SE	b	SE	b	SE
사교육 경험 <sup>E,T,L</sup>		0.052	0.051	0.063	0.046	0.055	0.059
학년		-0.526***	0.050	-0.532***	0.045	-0.516***	0.058
사교육 경험×학년		-0.018	0.100	0.042	0.090	0.049	0.116
출생 순위	둘째 <sup>R</sup>	-0.059	0.047	-0.057	0.047	-0.061	0.047
	셋째 <sup>R</sup>	-0.13	0.074	-0.129	0.074	-0.132	0.074
	넷째 이상 <sup>R</sup>	-0.814***	0.228	-0.811***	0.228	-0.826***	0.228
거주 지역	중소도시 <sup>D</sup>	-0.03	0.125	-0.026	0.125	-0.028	0.125
	대도시 <sup>D</sup>	-0.143	0.126	-0.139	0.126	-0.143	0.126
로그가구소득 <sup>7</sup>		0.061	0.064	0.064	0.063	0.070	0.063
부모학력 <sup>7</sup>		0.094***	0.029	0.095***	0.029	0.094**	0.029
모 취·학업 유무 <sup>7</sup>		-0.004	0.046	-0.007	0.046	-0.007	0.046
부 취·학업 유무 <sup>7</sup>		0.124	0.112	0.124	0.112	0.122	0.112
부모 우울 <sup>7</sup>		-0.054	0.048	-0.053	0.048	-0.054	0.048
부부갈등 <sup>7</sup>		-0.081*	0.039	-0.079*	0.039	-0.079*	0.039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sup>T</sup>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sup>L</sup>	
	b	SE	b	SE	b	SE
부모 양육스트레스 <sup>7</sup>	0.023	0.056	0.022	0.056	0.020	0.056
지능지수 <sup>9</sup>	0.029***	0.002	0.029***	0.002	0.029***	0.002
$R^2$	.298***		.298***		.298***	

주: 1)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T: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무,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2개 이하, R: 출생순위 첫째, D: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둘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4차년도 삶의 만족도를 2차 시점에서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1차 시점에서의 변수로는 11차년도 삶의 만족도를 이용하였다. <표 IV-3-12>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1차 시점에서의 삶의 만족도 및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등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에 따른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교육 유형별로 구한 삶의 만족도의 변화값의 차이(즉, 이중차분 추정값)를 의미하는 ‘사교육 경험×학년’의 효과는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40$ ,  $p>.05$ ;  $b=0.011$ ,  $p>.05$ ;  $b=0.018$ ,  $p>.05$ ). 이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IV-3-12>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sup>T</sup>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sup>L</sup>	
		b	SE	b	SE	b	SE
사교육 경험 <sup>E,T,L</sup>		-0.016	0.024	-0.041	0.022	0.018	0.029
학년		-0.520***	0.024	-0.512***	0.021	-0.505***	0.029
사교육 경험×학년		0.040	0.047	0.011	0.043	0.018	0.058
출생 순위	둘째 <sup>R</sup>	-0.026	0.023	-0.028	0.023	-0.024	0.023
	셋째 <sup>R</sup>	-0.073*	0.037	-0.075*	0.037	-0.071	0.037
	넷째 이상 <sup>R</sup>	-0.495***	0.115	-0.505***	0.115	-0.486***	0.114
거주 지역	중소도시 <sup>D</sup>	-0.008	0.061	-0.011	0.061	-0.009	0.061
	대도시 <sup>D</sup>	0.037	0.061	0.034	0.061	0.036	0.061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sup>T</sup>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sup>L</sup>	
	b	SE	b	SE	b	SE
로그가구소득7	0.010	0.032	0.014	0.032	0.004	0.031
부모학력7	-0.031*	0.014	-0.032*	0.014	-0.031*	0.014
모 취·학업 유무7	-0.007	0.023	-0.008	0.023	-0.007	0.023
부 취·학업 유무7	0.114*	0.055	0.114*	0.055	0.115*	0.055
부모 우울7	-0.05*	0.023	-0.05*	0.023	-0.051*	0.023
부부갈등7	-0.03	0.019	-0.03	0.019	-0.030	0.019
부모 양육스트레스7	-0.039	0.027	-0.039	0.027	-0.039	0.027
지능지수9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R^2$	0.218***		0.218***		0.217***	

주: 1)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T: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무,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2개 이하, R: 출생순위 첫째, D: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셋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4차년도 자아존중감을 2차 시점에서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1차 시점에서의 변수로는 8차년도 자아존중감을 이용하였다. <표 IV-3-13>은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1차 시점에서의 자아존중감 및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등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에 따른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유형별로 구한 자아존중감의 변화값의 차이(즉, 이중차분 추정값)를 의미하는 ‘사교육 경험×학년’의 효과는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27$ ,  $p>.05$ ;  $b=-0.034$ ,  $p>.05$ ;  $b=-0.018$ ,  $p>.05$ ). 이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넷째,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3차년도 집행기능곤란을 2차 시점에서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1차 시점에서의 변수로는 8차년도 집행기능곤란을 이용하였다. <표 IV-3-14>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1차 시점에서의 집행기능곤란 및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등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에 따른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유형별로 구한 집행기능곤란의 변화값의 차이(즉, 이중차분 추정값)를 의미하는 ‘사교육 경험×학년’의 효과는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02$ ,  $p>.05$ ;  $b=0.028$ ,  $p>.05$ ;  $b=0.016$ ,  $p>.05$ ). 이는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IV-3-13〉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sup>T</sup>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sup>L</sup>	
	b	SE	b	SE	b	SE
사교육 경험 <sup>E,T,L</sup>	0.002	0.023	-0.009	0.021	0.038	0.027
학년	-0.247***	0.023	-0.251***	0.020	-0.258***	0.027
사교육 경험×학년	-0.027	0.045	-0.034	0.041	-0.018	0.054
출생 순위	둘째 <sup>R</sup>	0.022	-0.035	0.022	-0.034	0.022
	셋째 <sup>R</sup>	0.035	-0.043	0.034	-0.041	0.034
	넷째 이상 <sup>R</sup>	0.105	-0.166	0.104	-0.159	0.104
거주 지역	중소도시 <sup>D</sup>	0.058	-0.023	0.058	-0.023	0.058
	대도시 <sup>D</sup>	0.058	0.008	0.058	0.008	0.058
로가가구소득7	0.027	0.030	0.029	0.030	0.024	0.030
부모학력7	0.006	0.013	0.006	0.013	0.007	0.013
모 취·학업 유무7	-0.006	0.022	-0.006	0.022	-0.006	0.022
부 취·학업 유무7	0.004	0.052	0.004	0.052	0.005	0.052
부모 우울7	-0.023	0.022	-0.023	0.022	-0.025	0.022
부부갈등7	-0.016	0.018	-0.016	0.018	-0.015	0.018
부모 양육스트레스7	-0.064*	0.026	-0.065*	0.026	-0.065*	0.026
지능지수9	0.002**	0.001	0.002**	0.001	0.002**	0.001
$R^2$	0.079***		0.080***		0.080***	

주: 1)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T: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무,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2개 이하, R: 출생순위 첫째, D: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V-3-14〉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sup>T</sup>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sup>L</sup>	
	b	SE	b	SE	b	SE
사교육 경험 <sup>E,T,L</sup>	0.006	0.014	0.021	0.012	0.006	0.016
학년	0.063***	0.014	0.063***	0.012	0.069***	0.016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sup>T</sup>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sup>L</sup>	
		b	SE	b	SE	b	SE
사교육 경험×학년		0.002	0.027	0.028	0.025	0.016	0.033
출생 순위	둘째 <sup>R</sup>	-0.019	0.013	-0.018	0.013	-0.019	0.013
	셋째 <sup>R</sup>	-0.026	0.021	-0.025	0.021	-0.027	0.021
	넷째 이상 <sup>R</sup>	0.026	0.064	0.032	0.063	0.024	0.063
거주 지역	중소도시 <sup>D</sup>	0.02	0.034	0.021	0.034	0.02	0.034
	대도시 <sup>D</sup>	-0.005	0.034	-0.004	0.034	-0.005	0.034
로그가구소득7		-0.061***	0.018	-0.064***	0.018	-0.061***	0.018
부모학력7		-0.011	0.008	-0.011	0.008	-0.011	0.008
모 취·학업 유무7		0.039**	0.013	0.039**	0.013	0.038**	0.013
부 취·학업 유무7		0.053	0.031	0.052	0.031	0.053	0.031
부모 우울7		0.032*	0.014	0.031*	0.014	0.031*	0.014
부부갈등7		0.013	0.011	0.013	0.011	0.013	0.011
부모 양육스트레스7		0.087***	0.016	0.087***	0.016	0.086***	0.016
지능지수9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R^2$		0.077***		0.078***		0.077***	

주: 1)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T: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무,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2개 이하, R: 출생순위 첫째, D: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V-3-15〉는 이중차분법을 통해 도출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주요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IV-3-15〉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효과 주요 결과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학업수행능력(w8 vs w14)	×	×	×
삶의 만족도(w11 vs w14)	×	×	×
자아존중감(w8 vs w14)	×	×	×
집행기능곤란(w8 vs w13)	×	×	×

주: 1) vs 앞은 1차 시점, 뒤는 2차 시점을 의미함.

2) ×는 효과 없음을 의미함.

## 2)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에

서의 변화율(rates of change)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추가적인 설명량을 활용하였다(Muthen, & Muthen, 2017). 학업수행능력,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등의 종속변수의 개인별 변화율의 전체 분산 중에서 사교육 경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한다면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개인별 변화양상은 초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무변화 성장모형(no growth modeling), 직선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선형적 성장모형(linear growth modeling), 이차곡선의 형태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이차곡선 성장모형(quadratic growth modeling) 등으로 구분된다. 무변화 성장모형에서는 초기값만 추정되며, 선형적 성장모형에서는 초기값과 변화율이 동시에 추정된다. 변화율은 종속변수가 1단위 기간 동안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나타낸다. 반면, 이차곡선 성장모형에서는 초기값을 나타내는 상수와, time이 0인 시점에서의 종속변수의 순간변화율을 의미하는 일차항 계수와, 종속변수의 순간가속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차항 계수가 동시에 추정된다. 순간가속도가 0보다 크면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경험과 관련한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개인별 변화양상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개인별 변화양상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성장요인들(growth factors)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경험을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사교육 무경험, 예체능 사교육 경험, 학습 사교육 경험,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0개,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1~2개,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차례대로 검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에서도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투입하였지만 모수값이 수렴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들 변수를 통제하지 않더라도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면 사교육 경험이 ‘개인별 변화’를 설명해 주는지 검증할 수 있으므로 통제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 적용 과정에서 결측값 처리는 각 변수의 결측값이 무선적으로 발생하였다(missing at random: MAT)는 가정 하에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였다.

〈표 IV-3-16〉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독립변수	무변화 성장모형		선형적 성장모형		이차곡선 성장모형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4.189***	0.020	4.246***	0.025	4.166***	0.028
일차항, $\beta_{10}$			-0.023***	0.005	0.099***	0.016
이차항, $\beta_{20}$					-0.023***	0.003
무선효과						
상수(I) 분산, $\tau_{00}$	0.365***	0.019	0.426***	0.030	0.485***	0.042
일차항(S) 분산, $\tau_{11}$			0.005***	0.001	0.018	0.015
이차항(Q) 분산, $\tau_{22}$					0.000	0.000
I, S간 공분산, $\tau_{01}$			-0.017***	0.005	-0.063**	0.021
I, Q간 공분산, $\tau_{02}$					0.008*	0.003
S, Q간 공분산, $\tau_{23}$					-0.002	0.002
$\chi^2(df)$	258.692(26)		221.919(23)		141.982(19)	
CFI	0.856		0.877		0.924	
TLI	0.884		0.888		0.916	
RMSEA	0.090		0.088		0.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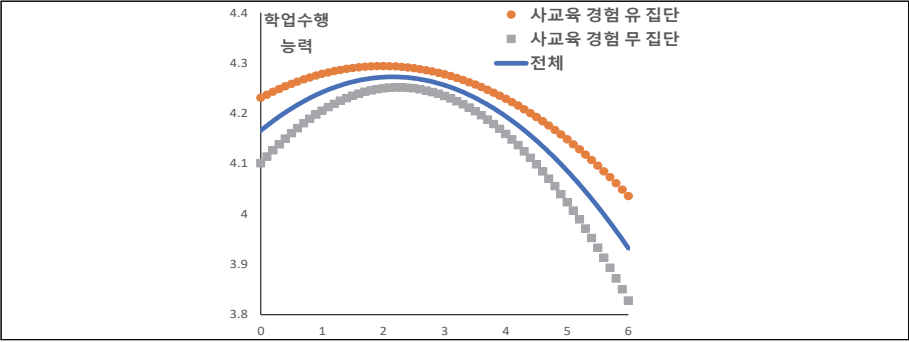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첫째,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8차년도에서 14차년도까지(w8~w14 총 7번 반복측정) 7년 동안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양상이 어떠한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16〉에서와 같이, 이차항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양상은 이차곡선 성장모형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차곡선 성장모형을 토대로 사교육 경험이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상수와 일차항 계수 및 이차항 계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17〉에서와 같이,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time이 0인 시점에서 학업수행능력은 더 높았다( $b=0.130$ ,  $p<.05$ ). 그리고,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보다 time이 0인 시점에서 학업수행능력의 순간변화율이 더 높았고( $b=-0.071$ ,  $p<.05$ ),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학업수행능력의 순간가속도가 더 높았다( $b=.014$ ,  $p<.05$ ).

이는 [그림 IV-3-2]와 같이, w8 시점에서는 ‘사교육을 받은 아동’이 학업수행능력이 더 높았고, w8 시점에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의 순간속도가 더 컸지만(순간변화율), ‘사교육을 받은 아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수행능력이 더 빠르게 향상되었다는 것으로, 사교육 경험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나

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림 IV-3-2] 사교육 경험 유무 집단별 학업수행능력의 변화궤적 평균



한편,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이 ‘예체능·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보다 time이 0인 시점에서 학업수행능력의 순간변화율이 더 높고( $b=-0.092$ ,  $p<.05$ ), ‘예체능·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학업수행능력의 순간가속도가 더 높았다( $b=0.018$ ,  $p<.05$ ).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3-17>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4.073***	0.052	4.086***	0.053	4.126***	0.041
	일차항, $\beta_{10}$	0.149***	0.029	0.134***	0.030	0.134***	0.023
	이차항, $\beta_{20}$	-0.033***	0.005	-0.031***	0.005	-0.030***	0.004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 $\beta_{01}$		0.130*	0.061				
사교육 경험 유형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2}$			0.096	0.081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3}$			0.038	0.081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4}$			0.166*	0.072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1~2개 <sup>N</sup> , $\beta_{05}$					0.059	0.061
	3개 이상 <sup>N</sup> , $\beta_{06}$					0.113	0.078
YEAR×사교육 경험 <sup>E</sup> , $\beta_{11}$		-0.071*	0.035				
YEAR×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2}$				0.000	0.046		
YEAR×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3}$				-0.027	0.046		
YEAR×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4}$				-0.092*	0.041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YEAR \times 1 \sim 27\text{개}^{\text{L}}$ , $\beta_{15}$					-0.061	0.035
$YEAR \times 3\text{개 이상}^{\text{L}}$ , $\beta_{16}$					-0.079	0.045
$YEAR^2 \times \text{사교육 경험}^{\text{E}}$ , $\beta_{21}$	0.014*	0.006				
$YEAR^2 \times \text{예체능 사교육 경험}^{\text{T}}$ , $\beta_{22}$			0.001	0.008		
$YEAR^2 \times \text{학습 사교육 경험}^{\text{T}}$ , $\beta_{23}$			0.006	0.008		
$YEAR^2 \times \text{예체능} \cdot \text{학습 사교육 경험}^{\text{T}}$ , $\beta_{24}$			0.018**	0.007		
$YEAR^2 \times 1 \sim 27\text{개}^{\text{L}}$ , $\beta_{25}$					0.013*	0.006
$YEAR^2 \times 3\text{개 이상}^{\text{L}}$ , $\beta_{26}$					0.015	0.008
무선희과						
상수(I) 분산, $\tau_{00}$	0.480***	0.042	0.480***	0.042	0.482***	0.042
일차항(S) 분산, $\tau_{11}$	0.018	0.015	0.018	0.015	0.019	0.015
이차항(Q) 분산, $\tau_{2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집단, T: 사교육 경험 없는 집단,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0개인 집단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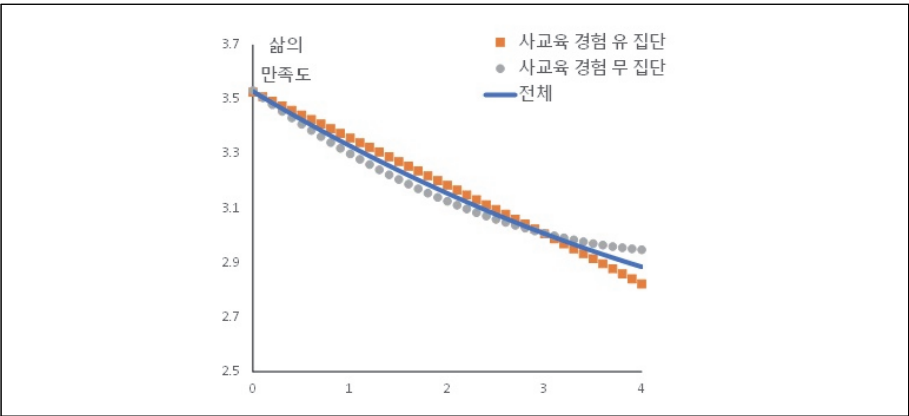
둘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1차년도에서 14차년도까지(w11~w14 총 4번 반복측정) 4년 동안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18>에서와 같이, 이차항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양상은 이차곡선 성장모형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차곡선 성장모형을 토대로 사교육 경험이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상수와 일차항 계수 및 이차항 계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19>에서와 같이,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time 이 0인 시점에서 삶의 만족도의 순간변화율이 더 높았고( $b=0.094$ ,  $p<.05$ ),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보다 삶의 만족도의 순간가속도가 더 높았다( $b=-.031$ ,  $p<.05$ ). 이는 [그림 IV-3-3]과 같이, w11 시점에서는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의 순간속도가 더 컸지만(순간변화율),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향상되었다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사교육 경험의 부정적인 효과가 일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표 IV-3-18〉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독립변수	무변화 성장모형		선형적 성장모형		이차곡선 성장모형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3.274***	0.013	3.520***	0.014	3.529***	0.015
일차항, $\beta_{10}$			-0.175***	0.006	-0.213***	0.020
이차항, $\beta_{20}$					0.013*	0.006
무선효과						
상수(I) 분산, $\tau_{00}$	0.100***	0.007	0.117***	0.010	0.185***	0.026
일차항(S) 분산, $\tau_{11}$			0.016***	0.002	0.168***	0.034
이차항(Q) 분산, $\tau_{22}$					0.012***	0.003
I, S간 공분산, $\tau_{01}$			-0.014***	0.004	-0.098***	0.029
I, Q간 공분산, $\tau_{02}$					0.021**	0.007
S, Q간 공분산, $\tau_{23}$					-0.043***	0.009
$\chi^2(df)$	862.668(8)		33.796(5)		4.666(1)	
CFI	0.000		0.963		0.995	
TLI	0.179		0.956		0.972	
RMSEA	0.311		0.072		0.058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IV-3-3〕 사교육 경험 유무 집단별 삶의 만족도의 변화궤적 평균



한편, ‘예체능관련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과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time이 0인 시점에서 삶의 만족도의 순간 변화율이 더 높았다( $b=0.133$ ,  $p<.05$ ;  $b=0.147$ ,  $p<.05$ ). 그리고,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이 ‘예체능관련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과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보다 삶의 만족도의 순간가속도가 더 높았다( $b=-.038$ ,  $p<.05$ ;  $b=-.056$ ,  $p<.05$ ).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3-19〉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3.534***	0.028	3.544***	0.028	3.534***	0.022
일차항, $\beta_{10}$	-0.284***	0.037	-0.292***	0.038	-0.237***	0.029
이차항, $\beta_{20}$	0.055*	0.025	0.039***	0.012	0.023*	0.009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 $\beta_{01}$	-0.005	0.033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2}$			-0.024	0.044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3}$			0.000	0.043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4}$			-0.027	0.038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1~2개 <sup>L</sup> , $\beta_{05}$					-0.023	0.032
3개 이상 <sup>L</sup> , $\beta_{06}$					0.028	0.042
$YEAR \times$ 사교육 경험 <sup>E</sup> , $\beta_{11}$	0.094*	0.044				
$YEAR \times$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2}$			0.133*	0.058		
$YEAR \times$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3}$			0.147**	0.057		
$YEAR \times$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4}$			0.058	0.051		
$YEAR \times 1 \sim 2$ 개 <sup>L</sup> , $\beta_{15}$					0.073	0.043
$YEAR \times 3$ 개 이상 <sup>L</sup> , $\beta_{16}$					-0.044	0.056
$YEAR^2 \times$ 사교육 경험 <sup>E</sup> , $\beta_{21}$	-0.031*	0.014				
$YEAR^2 \times$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22}$			-0.038*	0.018		
$YEAR^2 \times$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23}$			-0.056**	0.018		
$YEAR^2 \times$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24}$			-0.017	0.016		
$YEAR^2 \times 1 \sim 2$ 개 <sup>L</sup> , $\beta_{25}$					-0.027*	0.014
$YEAR^2 \times 3$ 개 이상 <sup>L</sup> , $\beta_{26}$					0.009	0.018
무선효과						
상수(I) 분산, $\tau_{00}$	0.179***	0.026	0.179***	0.026	0.177***	0.026
일차항(S) 분산, $\tau_{11}$	0.160***	0.035	0.159***	0.035	0.158***	0.035
이차항(Q) 분산, $\tau_{22}$	0.012***	0.003	0.012***	0.003	0.012***	0.003

주: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집단, T: 사교육 경험 있는 집단,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0개인 집단  
\*  $p < .05$ , \*\*  $p < .01$ , \*\*\*  $p < .001$ .

셋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8차년도에서 14차년도까지(w8~w11, w13~14 총 6번 반복측정) 7년 동안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양상이 어떠한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20>에서와 같이, 이차항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양상은 이차곡선 성장모형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차곡선 성장모형을 토대로 사교육 경험이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상수와 일차항 계수 및 이차항 계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21>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3-20>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독립변수	무변화 성장모형		선형적 성장모형		이차곡선 성장모형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3.435***	0.009	3.53***	0.012	3.431***	0.014
일차항, $\beta_{10}$			-0.043***	0.003	0.069***	0.010
이차항, $\beta_{20}$					-0.018***	0.001
무선효과						
상수(I) 분산, $\tau_{00}$	0.066***	0.004	0.084***	0.007	0.104***	0.011
일차항(S) 분산, $\tau_{11}$			0.005***	0.001	0.034***	0.005
이차항(Q) 분산, $\tau_{22}$					0.001***	0.000
I, S간 공분산, $\tau_{01}$			-0.010***	0.002	-0.031***	0.007
I, Q간 공분산, $\tau_{02}$					0.003***	0.001
S, Q간 공분산, $\tau_{23}$					-0.005***	0.001
$\chi^2(df)$	635.253(19)		271.244(16)		31.032(12)	
CFI	0.467		0.779		0.984	
TLI	0.579		0.793		0.979	
RMSEA	0.171		0.120		0.038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V-3-21>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3.421***	0.026	3.429***	0.027	3.44***	0.020
일차항, $\beta_{10}$	0.071***	0.018	0.068***	0.018	0.077***	0.014
이차항, $\beta_{20}$	-0.018***	0.003	-0.018***	0.003	-0.02***	0.002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 $\beta_{01}$	0.015	0.031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2}$			0.027	0.041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3}$			-0.036	0.041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4}$			0.014	0.036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1~2개 <sup>L</sup> , $\beta_{05}$					-0.025	0.031
3개 이상 <sup>L</sup> , $\beta_{06}$					0.003	0.039
$YEAR \times$ 사교육 경험 <sup>E</sup> , $\beta_{11}$	-0.002	0.021				
$YEAR \times$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2}$			0.020	0.029		
$YEAR \times$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3}$			0.021	0.028		
$YEAR \times$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4}$			-0.022	0.025		
$YEAR \times$ 1~2개 <sup>L</sup> , $\beta_{15}$					-0.021	0.021
$YEAR \times$ 3개 이상 <sup>L</sup> , $\beta_{16}$					0.001	0.027
$YEAR^2 \times$ 사교육 경험 <sup>E</sup> , $\beta_{21}$	0.000	0.003				
$YEAR^2 \times$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22}$			-0.004	0.004		
$YEAR^2 \times$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23}$			-0.003	0.004		
$YEAR^2 \times$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24}$			0.003	0.004		
$YEAR^2 \times$ 1~2개 <sup>L</sup> , $\beta_{25}$					0.003	0.003
$YEAR^2 \times$ 3개 이상 <sup>L</sup> , $\beta_{26}$					0.000	0.004
무선흐과						
상수(I) 분산, $\tau_{00}$	0.105***	0.011	0.104***	0.011	0.105***	0.011
일차항(S) 분산, $\tau_{11}$	0.035***	0.005	0.035***	0.005	0.035***	0.005
이차항(Q) 분산, $\tau_{22}$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주: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집단, T: 사교육 경험 있는 집단,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0개인 집단  
<sup>\*</sup>  $p < .05$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

넷째,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8차년도에서 13차년도까지(w8~w11, w13 총 5번 반복측정) 6년 동안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양상이 어떠한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22>에서와 같이, 이차항의 평균과 분산이 유의미하지 않아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양상은 선형적 성장모형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선형적 성장모형을 토대로 사교육 경험이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초깃값과 변화율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23>에서와 같이,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3-22〉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독립변수	무변화 성장모형		선형적 성장모형		이차곡선 성장모형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1.457***	0.008	1.447***	0.009	1.448***	0.009
일차항, $\beta_{10}$			0.007***	0.002	0.004	0.006
이차항, $\beta_{20}$					0.000	0.001
무선효과						
상수(I) 분산, $\tau_{00}$	0.062***	0.003	0.078***	0.004	0.063***	0.004
일차항(S) 분산, $\tau_{11}$			0.001***	0.000	0.007***	0.002
이차항(Q) 분산, $\tau_{22}$					0.000	0.000
I, S간 공분산, $\tau_{01}$			-0.006***	0.001	0.007**	0.002
I, Q간 공분산, $\tau_{02}$					-0.003***	0.000
S, Q간 공분산, $\tau_{23}$					-0.001***	0.000
$\chi^2(df)$	407.688(13)		316.744(10)		101.502(6)	
CFI	0.850		0.883		0.964	
TLI	0.884		0.883		0.939	
RMSEA	0.166		0.166		0.12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V-3-23〉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1.451***	0.018	1.444***	0.018	1.446***	0.014
일차항, $\beta_{10}$	0.005	0.004	0.006	0.004	0.007*	0.003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 $\beta_{01}$	-0.004	0.021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2}$			0.003	0.028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3}$			-0.007	0.028		
예체능 ·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4}$			0.012	0.024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1~2개 <sup>L</sup> , $\beta_{05}$					0.008	0.021
3개 이상 <sup>L</sup> , $\beta_{06}$					-0.005	0.027
YEAR×사교육 경험 <sup>E</sup> , $\beta_{11}$	0.003	0.005				
YEAR×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2}$			0.004	0.006		
YEAR×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3}$			-0.001	0.006		
YEAR×예체능 ·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4}$			0.001	0.005		
YEAR×1~2개 <sup>L</sup> , $\beta_{15}$					-0.001	0.005
YEAR×3개 이상 <sup>L</sup> , $\beta_{16}$					-0.002	0.006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무선효과	상수(I) 분산, $\tau_{00}$	0.078*** 0.004	0.078*** 0.004	0.078*** 0.004	0.078*** 0.004	0.078*** 0.004
	일차항(S) 분산, $\tau_{11}$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주: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집단, T: 사교육 경험 없는 집단,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0개인 집단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V-3-24〉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도출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주요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IV-3-24〉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효과 주요 결과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학업수행능력(w8~w14)	○	△	△
삶의 만족도(w11~w14)	△	△	×
자아존중감(w8~w11, w13~w14)	×	×	×
집행기능곤란(w8~w11, w13)	×	×	×

주: ○은 효과 있음, △는 일부 효과 있음, ×는 효과 없음을 의미함.

## 4.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 가. 유아 대상 학원의 지역분포

시도별 유아 대상 학원 수는 〈표 IV-4-1〉과 같다. 전체 학원 대비 유아 대상 학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22%이며, 그 다음은 대전으로 19%이다. 수도권, 광역시, 제주도는 10%를 넘는다. 한편, 유아 인구 1만 명당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수는 부산이 8.8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8.5곳, 울산이 7.9곳이다.

〈표 IV-4-1〉 시도별 유아 대상 학원 수

시도명	유아 대상 학원 수 (A)	학습 사교육기관 수 (B)	유아 인구 수 (C)	유아 대상 학원 밀도	
				학원 총수 대비 (A/B)	유아 만 명당 (A/C) × 1만
전국	956	8,761	2,033,033	11%	4.7
서울특별시	271	1,225	318,405	22%	8.5
부산광역시	103	795	116,709	13%	8.8
대구광역시	58	430	89,858	13%	6.5
인천광역시	45	353	124,948	13%	3.6

시도명	유아 대상 학원 수 (A)	학습 사교육기관 수 (B)	유아 인구 수 (C)	유아 대상 학원 밀도	
				학원 총수 대비 (A/B)	유아 만 명당 (A/C) x 1만
광주광역시	17	127	60,077	13%	2.8
대전광역시	29	152	59,656	19%	4.9
울산광역시	37	380	46,877	10%	7.9
세종특별자치시	12	206	26,666	6%	4.5
경기도	241	2126	608,742	11%	4.0
강원특별자치도	12	235	56,989	5%	2.1
충청북도	11	311	63,605	4%	1.7
충청남도	22	444	87,571	5%	2.5
전북특별자치도	11	468	60,714	2%	1.8
전라남도	9	359	65,893	3%	1.4
경상북도	7	387	91,534	2%	0.8
경상남도	54	588	123,956	9%	4.4
제주특별자치도	17	175	30,833	10%	5.5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24). 학원 및 교습소(2024년 3월 31일 기준) 자료

1) 사교육기관의 지역분포

세부적으로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아 사교육기관은 특광역시와 지방의 대도시의 행정구에 많이 분포한다(그림 IV-4-2). 구별로 평균 35개소가 있으며, 유아 사교육기관이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 경기 화성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전주시 덕진구, 울산 남구, 천안 서북구, 전주시 완산구의 순서이다. 가장 많은 곳은 277개에 이르며, 사교육기관이 한 개소도 없는 시군구도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등 16곳이 있다.

Hot Spot 지역은 서울의 강남3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경기 서부의 고양시 일산동구, 김포시, 파주시, 인천의 남동구와 계양구, 경기 남부의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중부권 지역의 천안시 동남구, 청주시, 세종시, 서남권 지역의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 동남권 지역의 부산, 울산, 양산시, 제주도를 포함한다. 한편, Cold Spot은 강원도와 경북 산간 및 내륙지역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산간지역에서 나타난다.

## 2)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지역분포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도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많이 분포하는데(그림 IV-4-3), 구별로 평균 3.8개 기관이 있다. 서울 용산구,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 부산 동래구, 대구 수성구, 인천 연수구,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화성시, 경남 김해시가 상위 10개 시군구인데, 가장 많은 강남구는 36개소가 있으며 상위 10개구에는 평균 25개소의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있어 전국 평균 대비 6.5배 이상 많다. 반면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없는 시군구는 121곳으로 전국의 48%에 해당한다. 이는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일부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된 정도가 유아 사교육기관의 지역 집중도 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Hot Spot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은 은평구와 강북구 등 7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포함되고, 경기도는 서부 및 남부의 대부분의 시군구에 외국어학원이 많으며, 부산은 도심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구 지역과 인근의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 진해구가 hot spot에 포함되며, 대구는 중구와 남구가 외국어학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곳으로 탐지되었다. 대구 수성구(30개소)와 달서구(10개소)는 hot spot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구는 인근 시군 지역에 학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 이웃하고 있어서 주변에 비해 이례적으로 학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Cold Spot은 8곳인데 충북 괴산군, 음성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전남 화순군, 경북 영천시, 상주시, 청송군으로 해당 시군구와 주변이 모두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없거나, 인접한 한 두 개의 시군구 내에 학원이 많아야 1~2개 정도로 적은 수만이 있는 지역이다.

## 3)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밀도의 지역분포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은 유아수가 많은 곳에 다수 분포하게 될 것이므로, 절대수가 아닌 학원의 밀도 즉, 시군구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수를 유아의 수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그림 IV-4-4). 구별로 유아 1만명당 평균 3.2개소가 있는데, 밀도가 높은 시군구는 특광역시의 자치구이거나 유아 인구가 적은 곳이다.

외국어학원 밀도가 높은 상위 10곳은 서울의 용산구, 중구, 양천구, 강남구와 부산의 중구, 강서구, 동래구, 대구의 수성구, 울산의 남구, 경북의 영양군이며, 이 상위 10개구에는 유아 1만명당 평균 23개가 있어 전국 평균 대비 7배 이상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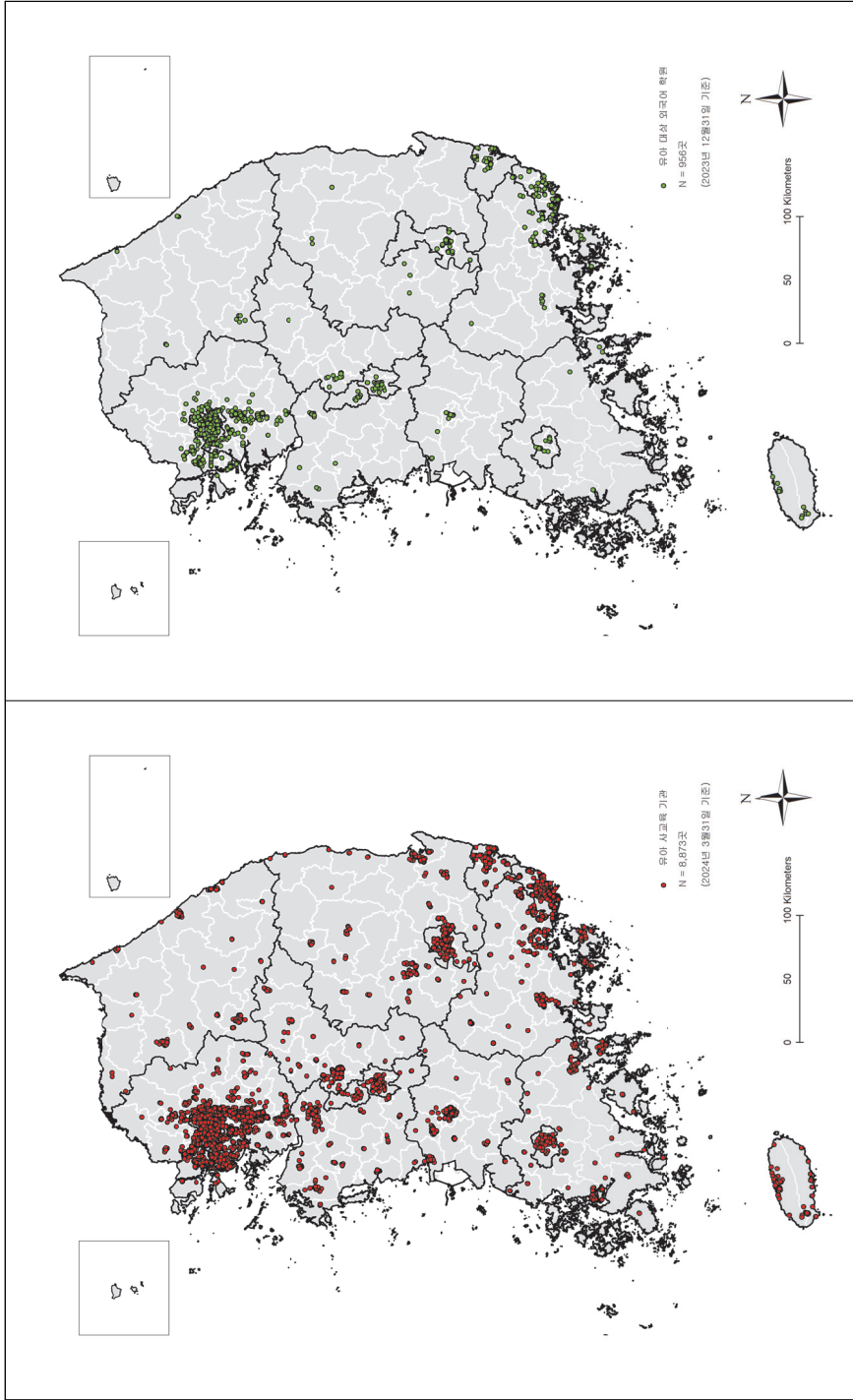
(표 IV-4-2). 그 중 서울 용산구가 가장 많아서 유아 1만명당 38개소가 있다. 한편 경북 영양군과 부산 중구는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1곳이지만 그 지역의 유아 인구가 각각 313명, 492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할 정도로 적기 때문에 외국어학원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8개의 시군구는 유아 인구비가 3% 이상 되는데 부산 강서구(7.3%)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아 인구비가 3% 대이다. 서울 용산구, 중구는 유아 만명당 밀도가 38개소와 29개소로 높은 편인데 비해 다른 6개 시군구는 16~21개소 정도로 유의미하게 적으며, 또한 전자의 자치구는 학원 총수 대비 밀도가 88%, 65%로 후자의 12~27%와 확연히 구분된다. 이는 유아 대상 사교육기관이 발달하는 초기에는 외국어학원의 비율이 높다가 점차 해당 구에 학원이 많아지면서 외국어 이외에도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4-2〉 유아 대상 학원 밀도 상위 10개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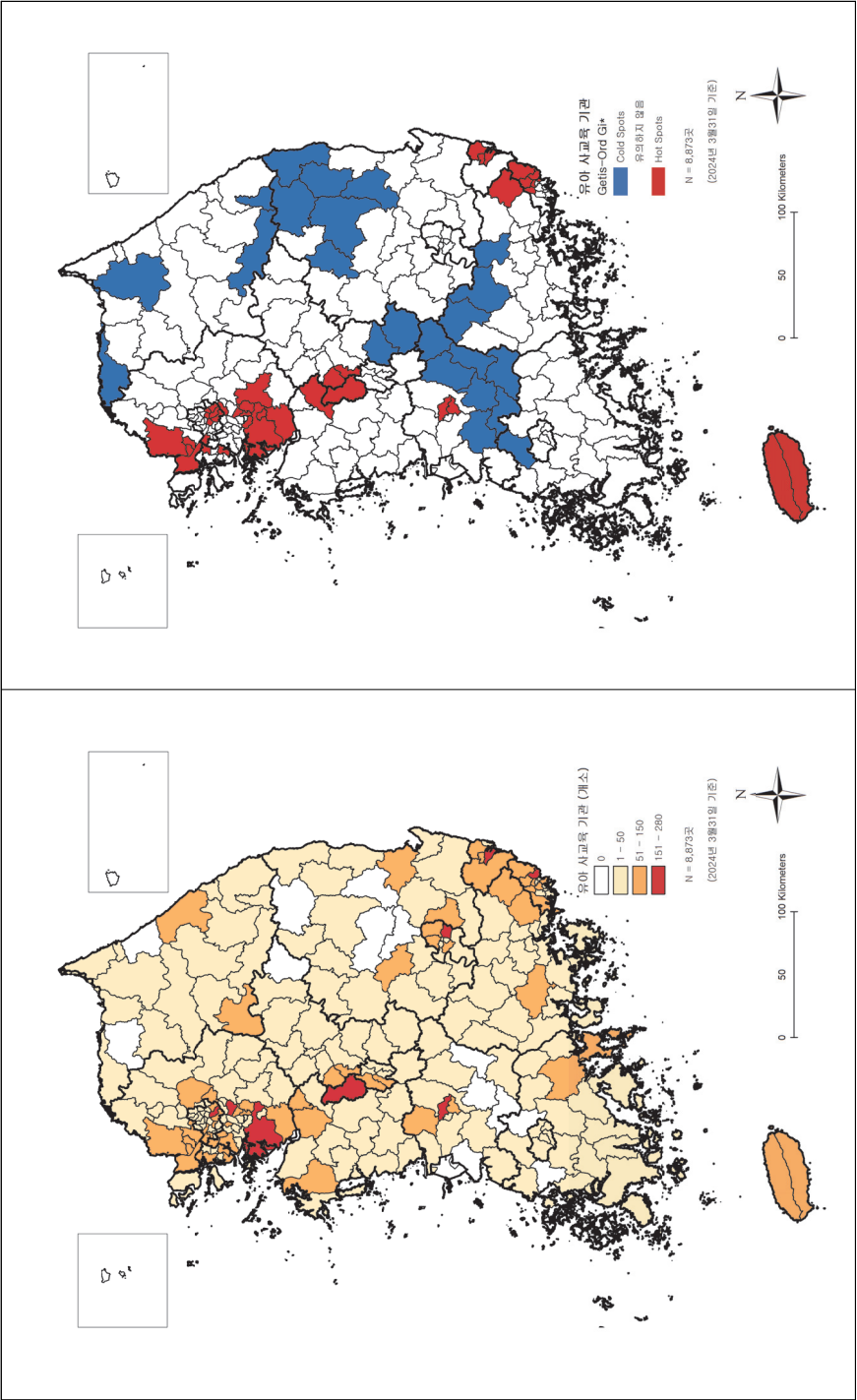
시도명	시군구명	인구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유아 대상 학원 밀도	
		유아인구비	유아	전체		학원 총수 대비	유아 만 명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3.42%	7,290	213,151	28	87.5	38
경상북도	영양군	2.00%	313	15,661	1	100.0	32
서울특별시	중구	3.12%	3,788	121,312	11	64.7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3.44%	14,005	407,331	30	19.1	21
부산광역시	중구	1.27%	492	38,619	1	50.0	20
부산광역시	동래구	3.93%	10,656	270,815	21	20.8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3.47%	18,903	544,873	36	13.0	19
부산광역시	강서구	7.30%	10,399	142,396	19	24.4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3.30%	14,375	436,028	24	27.0	17
울산광역시	남구	3.85%	11,843	307,232	19	12.3	16

Hot Spot 지역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IV-4-4, 표 IV-4-3). 서울은 10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포함되고,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에 외국어학원 밀도가 높으며, 부산은 도심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구 지역과 인근의 창원시 진해구가 hot spot에 포함되었으며, 대구는 중구, 남구, 수성구가 외국어학원의 밀도가 높은 곳으로 탐지되었다. Cold Spot은 5곳인데 전북 정읍시, 남원시, 전남 화순군, 경북 영천시, 상주시이다. 해당 시군구는 외국어학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 수가 8곳 이상으로 많지만 그 중 외국어학원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거나 있다고 해도 한 곳의 시군구에만 있는 지역으로 매우 밀도가 낮은 공간 군집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V-4-1] 유아 대상 학원의 분포 (좌: 유아 사교육기관, 우: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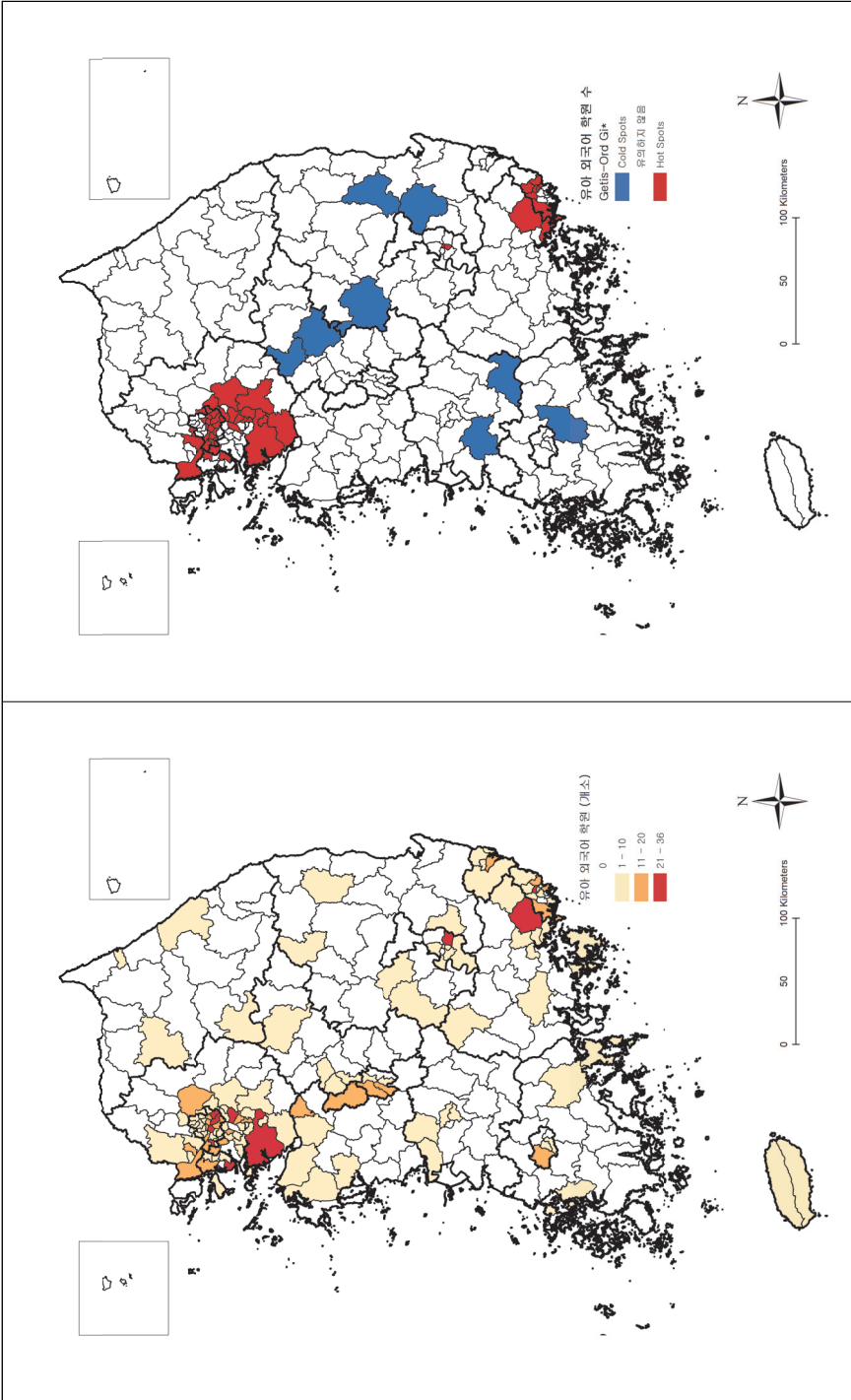


[그림 IV-4-2] 시군구별 유아 사교육기관의 분포 (좌: 학원 수, 우: Hot and Cold Sp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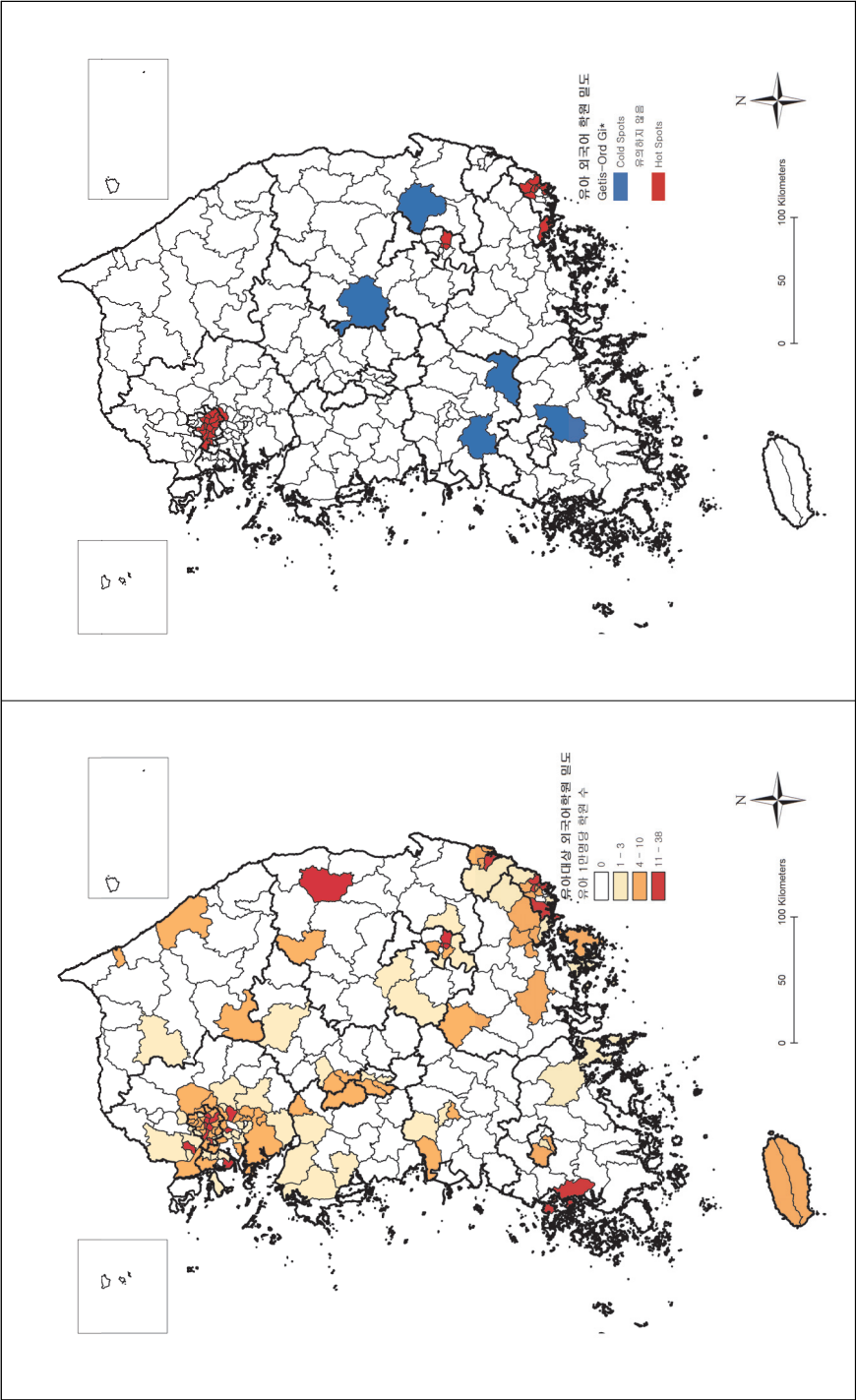




[그림 IV-4-3] 시군구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분포 (좌: 학원 수, 우: Hot and Cold Spots)



[그림 IV-4-4] 시군구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밀도 분포 (좌: 유아 1만명당 학원 수, 우: Hot and Cold Spots)



〈표 IV-4-3〉 유아 1만명당 학원수가 Hot Spots 또는 Cold Spots인 시군구

Hot/Cold Spots	시도명	시군구명
Hot Spots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부산광역시	동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대구광역시	중구
		남구
Cold Spots		수성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영천시
		상주시

## 나.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지역분포

시도별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수는 〈표 IV-4-4〉와 같다. 전국 약 6,600여개 센터 중 유아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기관은 5,100여 개소로 전체 대비 약 77%에 해당한다. 전체 대비 유아 대상 센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약 95%이며, 그 다음은 경기도로 약 87%이다. 유아 대상 센터의 비율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2/3 이상으로 대다수의 센터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4〉 시도별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수

단위: 개소, %

시도명	전체 센터수(A)	유아 치료 여부		유아 치료 센터 비율 (B/A)
		여(B)	부	
전체	6,637	5,114	1,523	77.05
서울특별시	1,499	1,024	475	68.31
부산광역시	309	239	70	77.35
대구광역시	420	347	73	82.62
인천광역시	377	320	57	84.88
광주광역시	243	207	36	85.19
대전광역시	221	175	46	79.19
울산광역시	172	142	30	82.56
세종특별자치시	43	41	2	95.35
경기도	1,172	1,014	158	86.52
강원특별자치도	240	161	79	67.08
충청북도	247	166	81	67.21
충청남도	323	259	64	80.19
전북특별자치도	264	176	88	66.67
전라남도	205	141	64	68.78
경상북도	246	191	55	77.64
경상남도	510	402	108	78.82
제주특별자치도	146	109	37	74.66

## 1) 시군구별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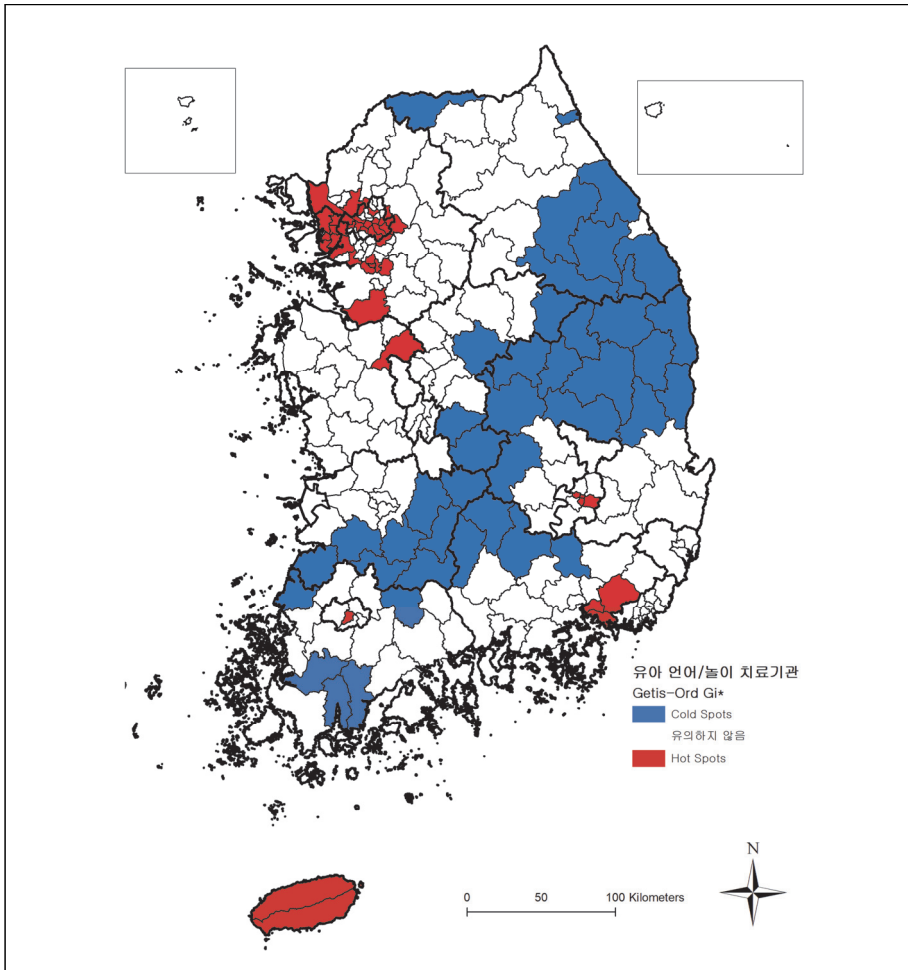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담센터와 놀이치료센터는 특광역시의 자치구와 그 인근 시지역, 그리고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는데(그림 IV-4-5), 구별로 평균 20.4개소가 있다. 유아 상담 및 치료센터가 많은 상위 10곳은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대구 수성구, 제주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천 서구, 대구 달서구, 서울 서초구, 경남 김해시, 대전 서구의 순서인데, 유아용 센터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99개가 있으며 상위 10개구에는 평균 80개소가 있어 전국 평균 대비 약 4배에 해당한다. 한편 유아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가 한 개소도 없는 시군구도 24곳이 있는데, 산간 지역, 내륙 지역, 도서 지역 등 유아 인구가 적은 곳이다. 유아 인구가 1,000명 미만인 곳이 24곳 중 18곳에 달한다.

Hot Spot 지역은 총 45곳의 시군구가 탐지되었는데, 특광역시 및 수도권과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의 대도시의 자치구와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IV-4-6).

서울은 14곳으로 서대문구와 중랑구 등 11곳을 제외한 과반수 이상의 자치구가 포함되고, 인천은 6곳, 경기도는 14곳으로 서부 및 남부의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부권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1곳, 서남권은 광주 서구 1곳, 동남권은 대구 수성구, 중구, 경남 김해시,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진해구 5곳, 제주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2곳이 포함된다. 센터의 수가 많은 시군구인 천안시 서북구(82개소)와 대전 서구(65개소)는 hot spot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구는 인근 시군 지역에 센터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아예 없는 곳을 이웃하고 있어서 주변에 비해 이례적으로 학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Cold Spot은 41곳인데 강원도와 경북 산간 및 내륙지역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산간지역, 전남의 남서부의 시군구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곳은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센터수가 위치하고 있다.



[그림 IV-4-6]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Hot and Cold Spots



## 2)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밀도의 지역분포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밀도 즉, 시군구별 유아 대상 센터의 수를 유아의 수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그림 IV-4-7). 전국의 각 시군구에는 유아 1만명당 평균 23.5개소의 유아 대상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가 있는데, 밀도가 높은 시군구는 특광역시의 자치구이거나 유아 인구가 적은 곳이다.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밀도가 높은 상위 10곳인 서울의 종로구, 강남구, 경기도의 수원시 팔달구, 대구의 수성구, 중구, 남구, 울산의 남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특광역시 또는

지역 내 대도시의 자치구나 행정구이고, 충남 부여군, 충북 단양군은 유아 인구가 적은 곳이다. 이 상위 10개구에는 유아 1만명당 평균 57.8개소가 있어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밀집되어 있다(표 IV-4-5). 그 중 서울 종로구가 유아 1만명당 85개소로 가장 많다. 한편 유아 인구가 적은 두 시군구, 즉, 부여군과 단양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여군의 유아 인구는 1,173명, 단양군은 549명이고,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는 각각 9개소, 5개소가 있다. 이처럼 해당 군은 유아 인구비가 해당 지역 전체 인구 대비 2% 미만으로 적기 때문에 상담 및 치료센터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곳 모두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없다.

〈표 IV-4-5〉 유아 대상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 밀도 상위 10개구 특성

단위: %, 명, 개소

시도명	시군구명	인구			유아 대상 상담 및 치료센터	유아 대상 상담 및 치료센터 밀도	
		유아인구비	유아	전체		치료센터 총수 대비(%)	유아 만명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2.55	3,549	139,417	30	48.4	85
대구광역시	수성구	3.44	14,005	407,331	87	85.3	62
충청남도	부여군	1.92	1,173	61,046	7	77.8	6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4.02	9,851	245,259	55	87.3	56
대구광역시	중구	5.10	4,541	89,064	25	69.4	55
충청북도	단양군	1.98	549	27,701	3	60.0	55
대구광역시	남구	2.57	3,573	139,187	19	65.5	53
서울특별시	강남구	3.47	18,903	544,873	99	80.5	52
울산광역시	남구	3.85	11,843	307,232	61	88.4	5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4.02	7,931	197,213	39	70.9	49

Hot Spot 지역은 특광역시, 대도시와 일부 지방 시군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4-7, 표 IV-4-6). 총 20곳의 hot Spot 중 서울은 5곳, 대구는 6곳이며, 경남 창원시 2곳, 경남 함안군이 포함된다. 이 14곳은 해당 지역과 인근 시군구의 밀도가 모두 높은 곳이다. 한편 나머지 6곳에 해당하는 경기 포천시, 강원도의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전북의 고창군, 경북의 영양군은 절대적인 밀도는 최상위 수준은 아니지만 이웃하고 있는 시군구의 밀도가 낮아서 이례적으로 높은 밀도를 보이는 곳으로 판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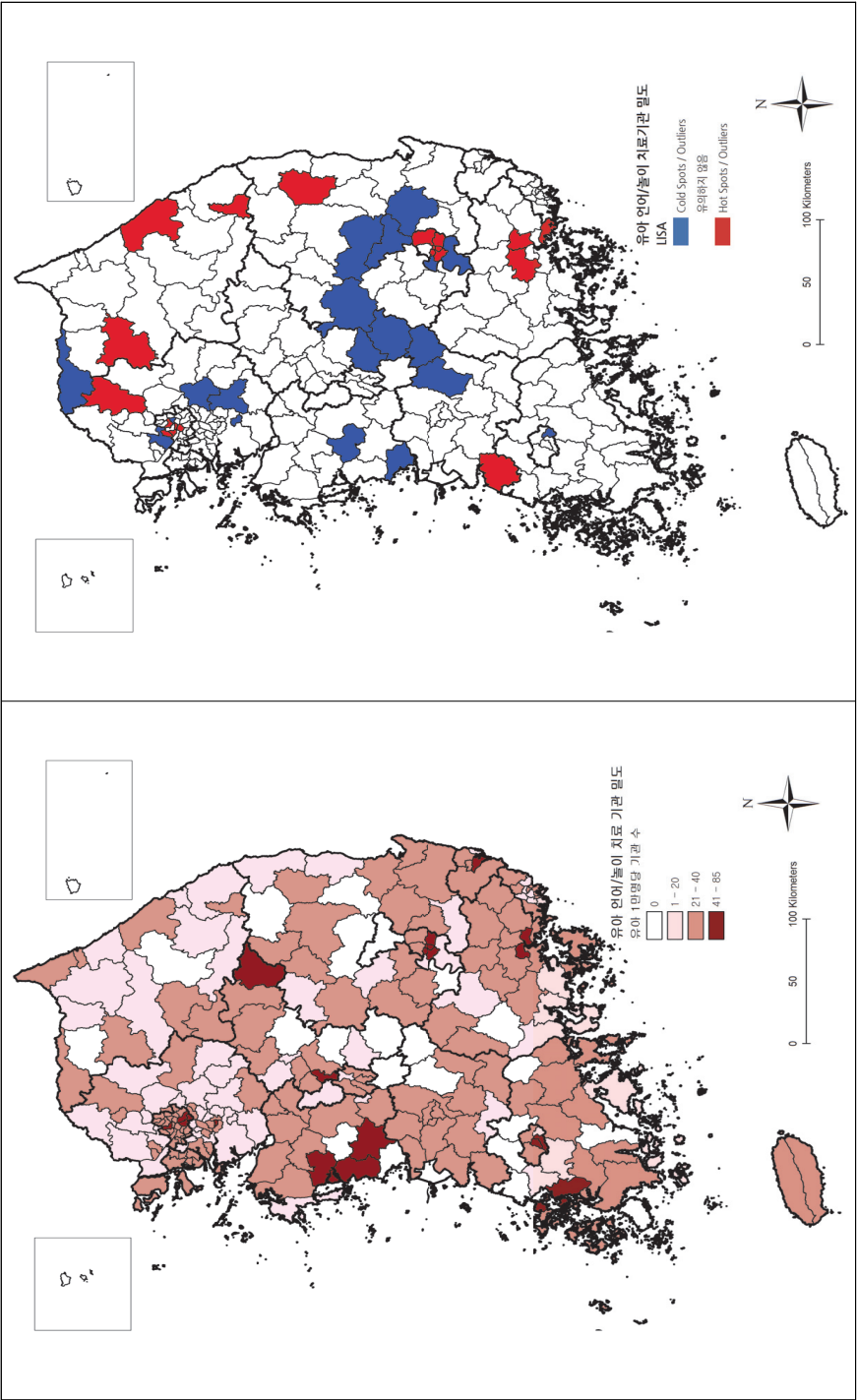


Cold Spot은 18곳인데 해당 시군구와 인근 지역 모두 밀도가 낮은 곳은 12곳이고, 나머지 6곳은 주변 지역이 밀도가 높는데 그에 비해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매우 낮은 이례적인 곳이다. 전자는 대구 군위군, 경기도 오산시, 용인시 처인구, 광주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경북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이다. 한편 후자에 해당하는 곳은 서울 동대문구, 대구 달성군, 광주 동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남 서천군과 청양군으로 해당 지역의 주변은 상대적으로 유아 대상 상담 및 치료센터가 높은 밀도로 분포하고 있다.

〈표 IV-4-6〉 유아 1만명당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가 Hot Spots 또는 Cold Spots인 시군구

Hot/Cold Spots	시도명	시군구명
Hot Spots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경기도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진해구, 함안군
Cold Spots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위군
	광주광역시	동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산시, 용인시 처인구, 광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충청남도	서천군, 청양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무주군
	경상북도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그림 IV-4-7] 유아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 밀도 (좌: 유아 1만명당 수, 우: Hot and Cold Spots)



#### 다. 유아 대상 학원과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분포의 상관성 분석

유아 대상 사교육 시설이 많은 지역에 영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가 유의하게 많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일반적인 상관관계 수만을 살펴보는데 그치지 않고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유아 대상 학원과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 센터의 밀도가 전역적으로 공간적 일치성을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별로 공간적 일치성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국지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피어슨 상관계수가 아닌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그 값은 0.377이고, p-value는 7.39e-10으로 극히 낮은 값이므로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밀도가 높은 곳은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밀도 역시 높게 나타난다(표 IV-4-7).

〈표 IV-4-7〉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과 센터 밀도의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

	상관 계수값	p-value
Spearman's rho ( $\rho$ )	0.376865	< 0.001 (7.39E-10)

공간적 자료의 특성 상 인접한 지역은 유사한 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공간적 의존성 또는 공간적 자기상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사한 값이 연속하여 나타나는 시군구가 있으면 이를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이라 하고, 두 값이 공간적 일치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웃하는 시군구의 값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으면 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이라고 하며 두 값이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밀도( $x_i$ ) 대비 인근 지역에 위치한 상담 및 놀이 센터의 밀도( $\sum_j W_{ij}y_j$ )의 공간적 일치성을 살펴본 Moran's  $I$  값은 0.127으로 나타나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나타내고 있고, p-value < 0.001이므로 확률적으로 유의하다(표 IV-4-8).

〈표 IV-4-8〉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과 센터 밀도의 이변량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결과

	상관 계수값	p-value
Moran's $I$ (이변량)	0.127	< 0.001 (999 permutation)

전역적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통해 시군구에 위치한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비율이 높은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높게 분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떠한 지역이 그러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세부 지역에서는 그 반대의 패턴, 즉, 외국어학원의 밀도가 높은 지역 주변에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밀도가 낮은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높은 값 군집 및 낮은 값의 군집, 또한 이례적인 패턴을 보이는 지역은 어디인지 살펴보기 위해 LISA를 사용하는데, 본질적으로 전역적 Moran's  $I$ 를 지역별로 분해하여 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국지적 Moran's  $I$  값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LISA 값을 지도화 하여 LISA 맵을 만들어 국지적 패턴을 시각화 할 수 있다.

시군구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과 상담 및 놀이 센터의 공간적 일치성을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하였다(그림 IV-4-8). LISA는 이변량 분석이고 이례적인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순서가 의미가 있는데, 외국어학원의 밀도  $x_i$ 를 먼저 입력하고,  $y_j$ 를 나중에 입력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자료를 해석해야 한다.

공간적 일치를 보여주는 국지적 이변량 군집(HH, LL 유형)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1.2%, 공간적 이례 지역(HL, LH 유형)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4.8%로 나타났다(그림 IV-4-8, 표 IV-4-9). 전역적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시군구별 외국어학원의 분포와 상담 및 놀이센터의 분포는 일부 지역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HH(High-High)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총 11곳으로 서울의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남구, 중구, 대구의 중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해당된다. 이 지역은 외국어학원과 상담 및 놀이센터가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난다. LISA 분석은 상관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를 모형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석 결과, 이 지역에서 두 값의 밀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서 어떤 하나의 분포가 다른 값의 분포에 원인이나 결과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향후 연구에서 유아 대상 사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이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방문과 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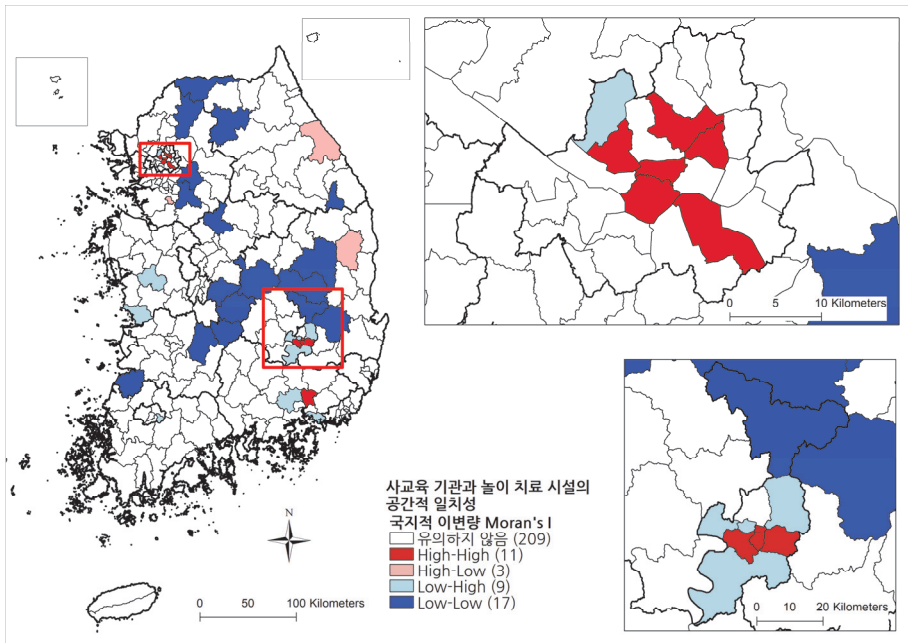
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있다면 LISA 분석 결과 역시 공간적 회귀모형(Anselin, 1988; Anselin and Rey, 2014)이나 지리가중회귀모형(Fotheringham et al., 2002) 등을 적용하여 지역별 인과의 강약을 파악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어학원과 상담 및 놀이센터가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모두 낮게 나타나는 LL(Low-Low) 군집은 총 17곳으로 대구 군위군, 경기의 용인시 처인구, 광주시, 포천시, 강원도의 춘천시, 태백시, 철원군, 충북의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전북의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경북의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이다.

LH(Low-High)에 해당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서울 은평구, 대구의 동구, 서구, 달성군, 광주 동구, 충남의 서천군, 청양군, 경남의 창원시 진해구, 함안군이다. 이곳은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어학원이 많지 않으나 인근 지역은 상담 및 놀이센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HL(High-Low)에 해당하는 3곳은 경기도 오산시, 강원 강릉시, 경북 영양군이다. 이곳은 해당 지역에는 외국어학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 주변 지역은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가 적게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4-8]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밀도와 상담 및 놀이치료 센터 밀도의 공간적 일치성



〈표 IV-4-9〉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밀도와 상담 및 놀이치료 센터 밀도의 공간적 일치성

공간적 일치성 유형 (외국어 교육기관 밀도 - 치료센터 밀도)	시도명	시군구명
High-High 군집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남구
	대구광역시	중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High-Low 이레 지역	경기도	오산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상북도	영양군
Low-High 이레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충청남도	서천군 청양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함안군
Low-Low 군집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광주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태백시 철원군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경상북도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 5. 소결

### 가.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행동 특성/부모-자녀 상호작용과의 관계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이 다른 그룹에 비해 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는데, 다른 변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세부적으로는 사교육 여부, 사교육 개수에 따라 영유아기 행동 특성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교육을 받거나 학습 사교육을 더 많이 받은 영유아의 부모가 집안일 함께 하기, 스포츠나 운동 하기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를 보였다.

### 나.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단기적 영향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교육 경험과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교육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과 사교육 비용을 살펴보았고, 또한 현재 및 과거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를 프로그램 유형별(학습, 예체능)로 살펴보았다.

아동 성별에 따른 사교육 경험과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의 현재 및 과거의 사교육 경험과 현재 아동의 언어 발달,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발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의 현재 및 과거의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언어 발달과 문제해결력, 집행기능과 유의한 정적 혹은 부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의 경험이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과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 의식, 학교폭력피해, 집중력 부진, 불안, 학습, 과민과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과거에 실시한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이 많은 아동은 성실성과 타인이해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체육과 무용 등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은 성실

성과 타인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집중력 부진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술 프로그램의 경험도 집중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에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의 경험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 비용, 또한 현재 및 과거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는 아동의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 모두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의 추이, 사교육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사교육 경험이 이후 학업 및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지능, 부모의 소득 수준, 출생순위 등 다양한 아동 및 부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중차분법과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해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를 검증했다. 분석 결과, 사교육 경험은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그 차이는 미미했다. 또한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사교육의 유의미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사교육만으로는 아동의 학업성취나 정서적 안녕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아동의 지능지수, 가구소득, 부모학력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사교육의 효과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교육 외의 다른 요인들이 아동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 종속변수인 아동 특성 변인은 시점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부모나 아동 중 응답자가 달라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집행기능 곤란의 경우 8차년도부터 12차년도까지는 어머니가 응답했으나, 13차년도부터는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측정 도구의 변화는 변수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며, 결과 해석 시 신



중합을 요한다.

## 라.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을 통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분포를 살펴보고 2개 유형 기관 분포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유아 사교육기관은 총 8,761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66% 이상 집중하고 있고,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분포한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평균 한 시군구에 34개소가 분포하는데, 서울 강남구는 277개로 전국에서 사교육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하며 그 외에도 특광역시의 자치구와 지방 대도시의 행정구에 많이 분포한다.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은 전국 총 956개소 중 85%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분포하여 사교육기관보다 공간적 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시군구에 평균 3.8개소가 분포하는데 서울 강남구가 36개소로 가장 많으며 상위 10개구는 전국 대비 6.5배 이상 많이 분포한다. 반면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없는 시군구는 121곳으로 전국의 48%에 해당한다. 이는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일부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된 정도가 유아 사교육기관의 지역 집중도 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아 인구의 분포를 고려하여 유아 인구 1만명당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밀도를 살펴보았는데, 시군구별로 평균 3.2개소 분포한다. 밀도가 높은 시군구는 특광역시의 자치구 또는 유아 인구가 적은 곳인데, 밀도가 높은 상위 10개구에는 유아 1만명당 평균 23개소가 있어 전국 평균 대비 7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위 10개구를 전체 인구 대비 유아 인구 비율에 따라 유아 인구 비율이 낮은 (1~2%) 시군 지역, 3% 대인 자치구 지역, 매우 높은(7.3%) 지역의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유아 인구비가 3% 대인 자치구를 학원 총수 대비 밀도를 기준으로 두 유형으로 세부 구분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 대상 사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증가하는 초기에는 외국어학원의 비율이 높다가 점차 해당 구에 학원이 많아지면서 외국어 이외에도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는 전국 6,637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고, 그 중 유아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기관은 5,114여 개소이다. 세부적으로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담센터와 놀이치료센터는 특광역시와 그 인근 시지역, 그리고 제주도에 많이 분포한다. 구별로 평균 20.4개소가 있는데, 상위 10개 시군구에는 평균 80개소가 있어 전국 대비 약 4배 집중 분포한다. 한편 유아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가 한 개소도 없는 시군구도 24곳이 있는데, 산간 지역, 내륙 지역, 도서 지역 등 유아 인구가 적은 곳으로 그 중 유아 인구가 1,000명 미만인 곳이 24곳 중 18곳에 달한다.

유아 인구 1만명당 유아 대상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수로 나타난 유아 대상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밀도를 살펴보면, 전국 시군구 평균은 23.5개소인데, 밀도가 높은 시군구는 특광역시의 자치구이거나 유아 인구가 적은 곳이다. 밀도가 높은 상위 10곳은 평균 57.8개소로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밀집되어 있다.

유아 대상 사교육 시설이 많은 지역에 영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가 유의하게 많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스피어만 상관관계수가 0.377(p-value: 7.39e-10)으로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밀도가 높은 곳은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밀도 역시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Moran's  $I$  값 역시 0.127(p-value < 0.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나아가 LISA 지수 및 LISA 맵을 작성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의 국지적 패턴을 검토한 결과, 약 11.2%의 시군구가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나타내어 외국어학원의 밀도 분포와 상담 및 놀이센터의 밀도 분포는 일부 시군구별 지역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LISA 분석은 상관관계를 넘어선 인과관계를 모형화하지 않으므로 분석 결과, 이 지역에서 두 값의 밀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서 어떤 하나의 분포가 다른 값의 분포에 원인이나 결과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향후 연구에서 유아 대상 사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이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방문과 인과 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있다면 LISA 분석 결과 역시 공간적 회귀모형 등을 적용하여 지역별 인과의 강약을 파악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 결론 및 시사점

01 결론

02 시사점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을 통하여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변화 추이, 영유아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영유아 사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과 영유아 사교육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첫째, 정부의 다양한 사교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 참여 비율과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80%의 부모가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영유아의 특성상 예체능 관련 사교육이나 특별활동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나, 학습 관련 사교육이나 특별활동도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셋째, 영유아 사교육 참여와 유형, 개수, 비용 등은 영유아의 특성뿐 아니라 부모의 배경, 지역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육실태조사, 선행연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는 영유아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과 비용이 증가하고, 학습 사교육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가정 배경 또한 영향을 미쳤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습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이용확률과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에 사교육 시작 연령이 빨랐다. 영유아가 거

주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 규모가 클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이 높았다.

넷째, 영유아기 사교육의 목적은 영아의 경우에는 자녀의 흥미, 유아의 경우에는 자녀의 적성이나 소질을 우선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사교육의 주된 목적이 대부분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가 뒤쳐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도 높았다.

다섯째, 부모의 인식과 실재는 차이가 있다. 부모가 영유아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의 흥미나 적성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일 제학원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예체능 못지않게 한글과 영어 등 학습 사교육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습에 대한 관심이 컸다.

## 나. 영유아기 사교육의 영향

첫째, 영유아기 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연구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기도 하며, 본 연구의 결과처럼 영유아기 사교육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별로 영향이 없음을 보고하기도 한다.

둘째, 영유아기 사교육의 긍정적인 결과는 학습요령 터득,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인지 및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등의 보고가 있으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받은 영유아의 행동문제가 낮게 나타났다. 아동패널 심층분석 결과에서는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나 일부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영유아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결과는 스트레스, 주의산만 및 끈기 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자율성 부족 등이 보고되었다.

넷째, 영유아기 사교육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은 사교육 유형과 관련이 있었다. 영유아기 예체능 사교육은 사회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던 반면 인지교육 중심의 사교육은 스트레스, 기억력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아동검사 결과에서도 예술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집중력 부진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았고, 학습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영유아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은 사교육의 개수나 횟수, 지속성과 관련이 있었다. 여러 가지 사교육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사교육의 개수나 횟수가 많아질수록 유아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유아의 공격성,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문제행동이 증가하였으며, 유아의 행복감은 감소하였다. 한편 사교육 지속기간이 길어지면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 수업내용 이해, 학습태도 등의 학습활동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본 연구의 아동검사 결과에서도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언어 발달과 문제해결력, 집행기능과 유의한 정적 혹은 부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시사점

이상의 결론에 따라 영유아 사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영유아 중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사교육 기회 격차 완화를 위한 공공 지원 확대, 부모 수요 기반 정책 설계, 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의 4가지로 정리하였다.

### 가. 영유아 중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및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기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는 미미하였으나, 사교육의 유형별로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부적으로 학습 사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예체능 사교육이 사회성(성실성, 타인이해 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배경과 상관없이 체육이나 스포츠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영유아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인 창의성·자율성·협력 등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창의·체험 기반의 예술과 체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공교육 체계나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해 큰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기에 사교육 대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사교육의 개수나 횟수가 많아질수록 유아

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유아의 공격성,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사교육 대체를 위한 공공 도서관, 과학관, 문화예술 체험 등 공공 인프라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나. 사교육 기회 격차 완화를 위한 공공 지원 확대

사교육 기회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및 부모 배경에 따라 사교육 이용률, 유형이나 개수, 비용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은 사교육 기회가 적고, 고소득층은 과잉 사교육 경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별·소득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과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공교육 특성과 프로그램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다. 반일제학원 등 유아 대상 사교육기관 밀집 지역 부모를 대상으로는 사교육 과잉 및 부모 불안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 다. 부모 수요 기반 정책 설계 필요

그동안 정부는 사교육과 관련하여 경감 정책을 펼쳐왔으나 사교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관련 연구들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23년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학 입시 관련 정책과 함께 유아 사교육 대응 정책이 포함되었다. 유아 사교육 대응 정책으로는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의 지원 계획과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 근절 방안이 제시되었다(교육부, 2023). 이러한 정책들은 시행 초기여서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정책 성과를 살펴봐야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 영유아 사교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은 사교육 축소보다는 지역 인프라 구축 및 공교



육 내 사교육 수요 수용을 선호하고, 동시에 방과후 과정에서 제공되는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우수한 질의 프로그램이 과연 무엇인지(예: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분야별 전문 강사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교육 내에서 부모의 수요에 기반한 높은 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와 감독이 요구된다.

## 라. 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부모들에게 사교육 선택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사교육의 효과(긍정적, 부정적, 효과 부재)와 한계에 대한 증거 기반의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 교육, 언론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지만,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이러한 효과는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고, 사교육 횟수나 시간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사교육을 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영유아기에는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놀고 부모와 함께 하는 경험으로 시간을 채워나감으로써 부모가 사교육을 통해 원하던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더불어 사교육 대신 공교육과 지역사회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대안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강이주(2007).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315-331.
- 권정윤(2007).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2), 1-19.
- 권혜진·정혜옥(2015).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지원연구*, 10(4), 79-96.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018). 2018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세종: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교육부 내부자료(2024). 학원 및 교습소(2024년 3월 31일 기준) 자료
- 김보용(2009). 초등학생의 사교육 경험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성숙(2013).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의 의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3), 377-400.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김근진·윤지연(2017).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Ⅲ)-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II-2 세와 5 세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옥·배호중(2021).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52(2), 1-28.
- 김지경(2004). 미취학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5(3), 66-86.

- 김희영·곽수란(2015). 유아 사교육비 지출 요인에 관한 인과관계 분석.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8, 427-445.
- 문수백(2020). 한국판 카우프만 간편지능검사2(KBIT2). 인싸이트심리검사연구소.
- 민미희(2015).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사교육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117-136.
- 박영양·이성희(2004). 유아의 과외참여 현황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4(2), 175-196.
- 박종서·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조성호·최선영·이혜정·송지은(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백승희·정혜원(2017). 영·유아의 사교육 시작 시점과 영향요인 검증: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한 생존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2(5), 233-253.
- 백지원(2009). 영·유아 초기 영어 사교육 실태 조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김현신·우남희(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23-43.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Ⅰ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2013). 유아 사교육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189-207.
- 서유현(2010). 두뇌발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감을 터치하세요. 유치원 교육의 이해: 엄마, 아빠! 꼭 읽어보세요. 교육과학기술부.
- 손호성·이재훈(2018). 행정학·정책학 연구에서의 이중차분 추정기법의 활용과 쟁점. 현대사회와 행정, 28(3), 1-31.
- 송정·양정선·차성현·정연주(2011).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경기도가족

## 여성연구원

- 신나나(2021).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법: 7차 교육과정을 경험한 만 35세 미만 엄마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진(2011).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 5(2), 96-120.
- 안주희·곽승주(2017). 영아기 사교육 유형별 실태 및 교사-부모 인식 비교. 열린 유아교육연구, 22(1), 273-302.
- 우남희·김유미·신은수(2009). 조기교육/사교육. 아동학회지, 30(6), 249-265.
-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윤소정·김진옥(2016).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연구, 23(4), 55-79.
- 이경선·김주후(2010).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구특성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1-38.
- 이광현·권용재(2015).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실태 및 지출 요인 분석. 교육정책학연구, 22(3), 83-107.
- 이기숙·김순환·김민정(2011). 유아기의 기본적인 언어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 국어 학력과 어휘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5), 299-322.
- 이기숙·김순환·정종원·김민정(2013). 만 5세 읽기능력, 어휘력 및 개인·환경 변인에 따른 초등학교 3학년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 유아교육연구, 33(4), 363-384.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승미(2015). 부모-자녀 놀이 및 사교육 현황과 유아의 인식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미·김연경(2018). 유아 사교육 현황, 사교육에 대한 유아의 불만족도 및 행복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9(3), 31-48.
- 이원준(2018). 아동 사교육 시장 및 사교육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12), 159-167.

- 이윤경·허현숙·장승민(2015). 학령기아동언어검사(LSSC). 서울: 학지사
- 이윤진·문무경·김문정·양시내(2009),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배운진·조혜주(2015).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조기 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2009).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취학전 아동의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59, 29-55.
-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임동선·아이세이언어연구소(2023). 아이세이랩 문제해결력 교재. 임동선아이세이언어연구소.
- 정복주(2010).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기주·윤성규·이지윤(2022). 인지과학 연구결과가 유아교육 실재에 주는 함의: 체화된 인지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7(2), 147-172.
- 차성현·김순남·김지경·박선옥·전경원·민병철·최보운(2010).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천소연·임동선(2017). 단어목록 회상을 통한 언어발달지체 아동과 일반아동의 덩이짓기 능력 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2(2), 233-244.
- 최정윤·양정호(2022). 영유아의 보육·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비용 결정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8), 589-608.
- 최재원(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항석(2014). 사교육의 문제점 및 경감 대책 분석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4(3), 1-14.
-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IV).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김자연·이재희·김태우(2021a).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김태우(2021b). 초등 전환기 사교육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 15(1), 3-27.
- 통계청(2022).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 하형석·정은진·최승주·구본호(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I: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지윤·임동선(2018).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 능력 평가도구(KBPR)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언어치료연구, 27(2), 69-84.
- 홍세희·노언경(2017). 유아 사교육 시작 시점의 결정요인과 시작 시점이 이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검증: 혼합생존분석의 확장. 유아교육연구, 37(3), 53-72.
- Angrist, J. D. & Pischke, J-S. (2017), 고수들의 계량경제학: 인과관계란 무엇인가 (강창희, 박상곤, 역). (주)시그마프레스. (원본 출판 2015년)
- Anselin, L. (1988). Spatial Econometrics: Methods and Models. Springer Dordrecht, The Netherlands.
- Anselin, L. (1995).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LISA. Geographical analysis, 27(2), 93-115.
- Anselin, L. and Rey, S. J. (2014). Modern Spatial Econometrics in Practice, A Guide to GeoDa, GeoDaSpace and PySAL. GeoDa Press, Chicago, IL.
- Card, D., & Krueger, A. B (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772-793.
- Cromley, E. K. & McLafferty, S. (2012). GIS and public health. New York: Guilford Press.
- Fotheringham, A.S., Brunsdon, C., and Charlton, M., (2002).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the analysis of spatially varying relationships, John Wiley & Sons.
- Getis, A., & J.K. Ord. (1992). The Analysis of Spatial Association by Use of Distance Statistics. Geographical Analysis, 24(3), 189-206.
- Mitchell, A. (2005). The ESRI Guide to GIS Analysis, Volume 2. ESRI

Press.

Muthen, L. K., & Muthen, B. O. (2017). Mplus User's Guide. Eighth Edition. Los Angeles: Muthen & Muthen.

Ren, L., Kutaka, T. S., Chernyavskiy, P., Fan, J., & Li, X. (2020). The linear and nonlinear effects of organiz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Chinese Preschoolers' development.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60, 101845.

Shi, J., Yue, Y., Zhao, W., & Huang, Q. (2022).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mpact of After-School Tutoring on Chinese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Sustainability*, 15(1). 181. <https://doi.org/10.3390/su15010181>

#### **【법령 및 자치법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9653호, 2023. 8. 16.,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96호, 2024. 2. 8.,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4492호, 2024. 5. 7.,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18호, 2023. 8. 4., 일부개정]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7741호, 2023. 8. 7., 일부개정]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조례 제5556호, 2023. 12. 28., 일부개정]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조례 제4883호, 2023. 7. 13., 일부개정]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6313호, 2023. 12. 15., 일부개정]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제5906호, 2022. 12. 30.,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6230호, 2024. 3. 29.,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7107호, 2023. 12. 20.,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608호, 2023. 4. 3., 일부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92호, 2023. 9. 27., 일부개정]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제2843호, 2023. 12. 28.,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982호, 2023. 2. 20., 일부개정]
-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조례 제4871호, 2019. 6. 13., 전부개정]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61호, 2024. 2. 16.,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22호, 2023. 12. 22., 일부개정]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417호, 2023. 5. 30., 일부개정]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조례 제4808호, 2022. 10. 14., 일부개정]

#### 【인터넷 자료】

- 교육부(2023). 사교육 경감대책.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보도·설명·반박>보도자료> 사교육 경감대책(2023. 6. 26.) <https://www.moe.go.kr/bo>

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545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인출일: 2024. 2. 23.)

교육부(2024a)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보도·설명·반박>보도자료>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2024.2.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7914> (인출일: 2024. 2. 23.)

교육부(2024b)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주요업무계획>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2024.1.24)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page=72760&m=031101&s=moe> (인출일: 2024. 2. 27.)

교육부(2024c).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보도·설명·반박>보도자료>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2024. 6. 2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923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인출일: 2024. 6. 27.)

위키백과(2024). 사교육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A%B5%90%EC%9C%A1> (인출일: 2024. 2. 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4. 6. 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소통공간>보도자료>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2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인출일: 2024. 6. 19.)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s://panel.kicce.re.kr/pskc/index.do>. 인출일: 2024. 12. 3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공표 누리집 <https://jumin.mois.go.kr> (인출일: 2024. 5. 30.)



## Abstract

# A Study on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and Development

Eunyoung Kim • Ja Yeon Koo • Jiwon Kim • Hyejin Kim  
Jae Chul Kim • Jong-Geun Kim • Sook In Cho  
Ewha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ound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on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education during infancy and early childhood, parents' perceptions and demands regarding private education, and the impact of early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on subsequent development. To achieve this,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were employed: literature review analyzing prior research, legal and policy materials; in-depth analysis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Data using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variables, parental variables, and child characteristic variables; analysis of assessment results of 72 1st-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urvey data from their 72 parents; regional distribution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 academies, counseling centers and play therapy centers for young children; survey involving 1,500 mothers with children aged 2, 3, and 5; policy forum; and expert advisory meetings.

In this study, private education is defined as education conducted privately at institutions other than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regulates private education through provisions such as regulations on after-school programs and restrictions on the use of the term "kindergarten," and specifies policies to respond

to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through the Private Education Reduction Measures(Ministry of Education, 2023). These measures propose short-term initiatives, such as the operation of “linking semesters” and the expansion of customized after-school programs for subjects like English, arts, and physical education, as well as long-term plans, including linking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ystems, revising the curriculum for children aged 3 to 5, and establishing new surveys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A review of prior studies on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during infancy and early childhood found mixed results. While some studies reported positive outcomes on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Woo, N., Baek, H., & Kim, H., 2005; Ren et al., 2020), others noted negative effects 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Kwon, J., 2007; Baek, H. et al., 2005; Kim, S., 2013). Additionally, research showed that the effects on development vary depending on the type and number of concurrent private education (Shi et al., 2022), with some studies finding no significant effects at all (Lee, K., Kim, S., & Kim, M., 2011; Lee, K. et al., 2013; Yoon, S. & Kim, J., 2016).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of this study, 65.33% of the respondents used private education services. Among these, 37.65% engaged in arts, physical education/ non-academic private education, 32.24% participated in academic private education, and 30.10% received both. The average weekly frequency of private education was 4.59 times, with sessions occurring almost daily on weekdays and lasting about 42 minutes each. Families with older children, parents with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families with higher household incomes were more likely to use additional private education. Urban children, particularly those in metropolitan areas, participated more in private education than those in small and mid-sized cities. For

academic private education, children attended an average of 1.85 academies, while for arts and physical education/ non-academic private education, they attended an average of 1.36 academies. High-income families (monthly income above 7 million KRW)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enroll their children in both academic and arts and physical education/non-academic private education. Girls participated in more arts and physical education/non-academic private education programs than boys. The starting age for private education was earlier in households where the mother had a postgraduate degree and in those attending full-day ECEC services. The first type of private education children encountered was most commonly physical education, with boys starting with sports, mathematics, and Korean, and girls starting with dance, art, and music. Monthly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averaged 198,000 KRW, with academic education costing 163,000 KRW and arts and physical education/non-academic programs costing 142,000 KRW. Higher household income groups had significantly higher monthly expenditures on private education. The average monthly tuition for half-day or longer programs is 1,829,000 KRW,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921.25, showing a significant variation between individual households.

Compared to 2016, participation rates, types, and costs of private education after kindergarten or childcare have steadily increased. Physical education remain the most popular type, while participation in mathematics and science programs continue to grow. The starting age for private education has gradually decreased, and the costs of programs and full-day academies have risen over time.

In terms of perceptions regarding private education, parents' main purpose for sending their child to private academies was primarily to support the child's development and learning. The biggest reason

parents choose private education academies over kindergartens or childcare centers is the lower teacher-child ratio and the high-quality programs offered. Most parents expressed satisfaction with private education. Among the survey respondents in this study, 79% indicated their intention to either start or continue private education, with a stronger inclination to do so as the child's age increased and household income grew. Regarding private education policies, the demand for enhanc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public education decreased compared to 2016, while the preference for accommodating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through infrastructure development significantly increased. Regardless of income, parents overwhelmingly preferred absorbing private education demands through infrastructure development. Among income groups, those earning less than 3 million KRW preferred reducing private education, while those with incomes above 7 million KRW preferred maintaining or boosting private education.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believed that specialized programs 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could replace private education decreased compared to the past, and overall, trust in such programs declined. Families with lower incomes were more likely to believe that specialized programs could replace private education. Over time, there was a growing perception that specialized programs 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were of lower quality compared to private education.

When accommodating private education demands through public education, parents considered the quality of the program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Parents of children attending kindergartens or half-day services valued program quality the most, while parents of children attending childcare centers equally prioritized both program quality and teaching methods suited to the child's characteristics. Parents who provided home care for their children placed the most

importance on developmentally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suited to the child's characteristics. Across all backgrounds, the most preferred program for accommodating private education demands in public education was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programs.

The impact of private education during early childhood was examined in various ways. First,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of this study, children who received both academic and extracurricular private education had significantly lower scores on behavior problems and hyperactivity/inattention compared to other groups. However, in detail, there were almost no differences in early childhood behavior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private education or the number of private education sessions. The younger the child, the higher the frequency of parent-child interactions. Additionally, parents of young children who received private education or more academic private education had relatively lower frequencies of both parents jointly engaging in household chores and participating in sports or physical activities.

To examine the short-term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during early childhood, a study was conducted with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parent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and language ability, problem-solving skills, executive function,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en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language ability, problem-solving skills,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hildren's gender,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and past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and the child's language development, problem-solving skills,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showed no significant positive or negative correl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language ability, problem-solving skills, or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

Meanwhile, the amount of time spent on current private education and the costs associated with it were not correlated with traits such as conscientiousness, self-esteem, openness, understanding of others, social initiative, community awareness,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lack of concentration, anxiety, learning, or hypersensitivity. However, children who had participated in physical education private programs in the past showed higher levels of conscientiousness and understanding of others. This indicates that experiences in physical education and dance programs may positively affect conscientiousness and the ability to understand others. Additionally, children with more experience in private arts education programs were less likely to have concentration difficulties, suggesting that arts programs may positively impact concentration. However, children who had more experience with academic private education programs showed a negative impact on their self-esteem, indicating that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may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emotional development.

When analyzing the impact of children's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on language ability, problem-solving skills,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e amount of time spent on current private education, private education costs, and the number of current and past private education programs the child is participating in did not significantly explain any of these factors.

To examine the medium- and long-term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during early childhood,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Korea Child Panel to analyze the trends in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the impact of parental variables on private education, and the influence of private education on subsequent academic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latent growth models were applied to verify the independent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controlling for various child and parent variables such as the child's intelligence, parental income level, and birth order. The results showed that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had some positive effects on early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 adaptation, but the differences were minimal. Furthermore, no significant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were found in socio-emotional aspects such a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overall happiness. This suggests that private education alone is unlikely to guarantee long-term academic achievement or emotional well-being for children. In particular, even after controlling for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hild's IQ, household income, and parental education level, the independent effect of private education was found to be small. This suggests that other factors, beyond private education, may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child development.

The distribution of foreign language academies, counseling and play therapy centers for young children was examined by region,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istribution of the two types of institutions was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are concentrated in metropolitan cities 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ccounting for over 66% of the total, and generally follow a distribution proportional to the population. On a district-by-district basis, an average of 34 institutions are distributed per district, with Gangnam District in Seoul having the highest number at 277,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country. Other areas with high concentrations include autonomous

districts in metropolitan cities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in large regional cities. Among the foreign language academies for young children, over 85% of the 956 institutions nationwide are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major cities, showing a higher spatial concentration compared to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On average, 3.8 institutions are distributed per district, with Gangnam District having 36 institutions, the highest in the country, and the top 10 districts accounting for more than 6.5 times the national average. In contrast, 121 districts nationwide which account for 48% of all districts, have no foreign language academies for young children, suggesting that the concentration of foreign language academies is much higher in major cities and the metropolitan area compared to the regional concentration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Counseling and play therapy centers for young children are mostly concentrated in autonomous districts of metropolitan cities, nearby urban areas, and Jeju Island. On average, 20.4 centers are distributed per district, with the top 10 districts having an average of 80 centers, showing about a 4-fold concentration compared to the national average. To investigate whether regions with many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also have a significantly higher number of counseling and play therapy centers,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analysis revealed a slight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dditionally, by constructing the LISA index and LISA map, the local patterns of spatial autocorrelation were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about 11.2% of districts exhibited positive spatial autocorrelation, indicating that the density distributions of foreign language academies and counseling and play therapy centers match in certain districts. However, LISA analysis does not model causality beyond correlation. Therefore, while the correlation results

show that the density of both values is high in some districts, this does not imply that one distribution is the cause or result of the other.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spite various government policies on private education, the participation rate and costs of privat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have continued to increase. Seco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 the participation rate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related to arts and physical education is relatively high, but many also participate in learning-related private education 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ird, the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its types, frequency, and costs vary depending on background factors. Fourth, the purpose of privat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varies: for infants, the focus is on their interests, while for preschoolers, it is on their aptitudes or talents. Fifth, there is a gap between parents' perceptions and actual behaviors. While parents often cite their children's interests or aptitudes as the main reason for enrolling them in private education, the actual participation rate in part-time private academies is increasing. Additionally, the participation rate in learning-focused private education, such as reading and writing Korean and English, is as high as that for arts and physical education, indicating a strong interest in learning.

Meanwhile,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udies on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during early childhood have not provided consistent results. Second, positive outcomes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include improved learning strategies, increased confide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ositive impacts on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In the survey of this study, young children who received both learning and

extracurricular private education had fewer behavioral problems. In the in-depth analysis of the child panel data, the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were limited, but there were positive effects on initial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 adaptation. Third, negative outcomes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include stress, inattention, lack of persistence, selfish tendencies, excessive consciousness about others, and lack of autonomy. Fourth, th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were related to the type of private education. While private education in arts and physical education was reported to be helpful in social skills development, private education focused on cognitive training showed negative effects such as stress and memory impairment. In the child assessment results of this study, children who had more experience with arts private education were less likely to experience issues with attention deficits, while those who had more experience with learning private education had negative impacts on their self-esteem. Fifth, the negative effects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were related to the number, frequency, and duration of private education. When children participated in multiple private education programs at the same time or the number and frequency of private education increased, their stress levels rose, and behavioral problems such as aggression, withdrawal, depression, and anxiety increased, while their happiness decreased. On the other hand, longer durations of private education were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social-emotional development. Sixth, there were studies showing that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adaptation, interest in school lessons, understanding of lesson content, or learning attitudes. In the child assessment results of this study,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did not show significant positive or negative relationships with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problem-solving abilities, or executive function.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s, th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education policies for young children were summarized into four points: developing and expanding the distribution of young children-focused programs, expanding public support to reduce the gap in private education opportunities, designing policies based on parental demand, and strengthening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for parents.

Keyword: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





## 부록

### 부록 1. 설문지: 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와 인식

####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 부모용 -

##### 선정문항

선문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쿼터]

1. ( ) 시/도
2. ( ) 시/군/구
3. ( ) 읍/면/동

선문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쿼터]

1. 남자 -> 설문종단
2. 여자

선문3.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쿼터]

1. 예
2. 아니오 -> 설문종단

선문4. 귀하 막내자녀의 출생연도를 말씀해주십시오. [쿼터]

1. 출생 연월 : ( )년도

[선문4 쿼터 기준]

만2세 : 2021년 생

만3세 : 2020년 생

만5세 : 2018년 생

선문5. [제시: 선문4 응답값 ( )년생] 막내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퀴터]

1. 남자
2. 여자

선문6. [제시: ( )년( )월 생] 막내자녀는 오전에 어떤 기관에 다닙니까? [단수]

1. 유치원
2. 어린이집
3. 반일제 이상(하루 3시간 이상) 학원 : 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
4. 그 외 기타기관에만 다님(문화센터, 시간제학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5. 기관에 다니지 않음

선문7.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1. 만20~29세
2. 만30~39세
3. 만40~49세
4. 만50~59세
5. 60세 이상

선문8. 현재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선문8-1. 본인의 경제활동 상태

1. 일하고 있다
2. 휴직 중이다
3. 일하고 있지 않다

선문8-2.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

1. 일하고 있다
2. 휴직 중이다
3. 일하고 있지 않다
4. 배우자 없음

//선문8-1=3인 경우, 선문9-1은 미출력//

//선문8-2=3,4인 경우, 선문9-2는 미출력//

선문9. 1주에 몇 시간을 일하십니까?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근로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주십시오.

휴직 중이실 경우, 휴직 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선문9-1. 본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오픈]

1. 본인 : 평균 ( )시간 (1주 기준)

선문9-2. 배우자(자녀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오픈]

1. 배우자 : 평균 ( )시간 (1주 기준)

선문10.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후를 기준으로 말씀해주시요.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9.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10.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1. 2천만원 이상

//선문8-2=4인 경우, 선문9-2는 미출력//

선문11. 최종 학력에 대해 응답해주시요.

선문11-1. 본인의 최종 학력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4. 대학원 이상 졸업

선문11-2. 배우자의 최종 학력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4. 대학원 이상 졸업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유아 사교육과 관련하여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만2세, 만3세, 만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법」 제31조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 ☐ 조사진행 관련: 한국리서치
- ☐ 조사내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I.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현황 및 인식

[로직 : 선문6=1,2,3 응답자만]

※ 귀하의 막내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직 : 선문6=1,2,3 응답자만]

문1. 막내자녀는 현재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미술, 음악, 체육, 수, 과학, 창의, 언어(한글, 외국어)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 1. 예
- 2. 아니오 -> 문7로 이동

[로직: 문1=1인 경우만 응답]

문2. 막내자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현재 어떤 종류의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과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대분류 제시]

학습 관련	1. 국어 2. 논술 3. 영어 4. 기타 외국어(한자 포함) 5. 수학 6. 과학(과학실험, 드론, 시관련 등) 7. 컴퓨터(코딩포함) 8. 교구(가베, 몬테소리, 프리벨 블록, 오감놀이 등) 9. 기타 ( )
예체능 관련	10. 체육 11. 무용(발레, 댄스 등) 12. 음악(창의음악, 유리드믹스, 오르프 등) 13. 미술(도예, 오감미술, 퍼포먼스 미술 포함) 14. 기타( )
기타	15. 인성교육 16. 다도 17. 이야기할머니 18. 요리 19. 기타( )

//응답자에게 묻지 않고 자동 코딩//

문2-2. 막내자녀는 1주일에 몇 가지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1. 학습 관련 프로그램	주( ) 가지
2.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주( ) 가지
3. 기타	주( ) 가지
4. 총(자동합계)	주( ) 가지

[로직: (선문6=1 OR 2) AND (문1=1)인 경우만 응답]

문2-3. 막내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비용 중 가정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오픈]

1. 월 평균 ( )원 [로직 : 0 TO 1,000,000]

[로직: 문1=1인 경우만 응답]

문2-4. 막내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 주십시오.[복수][RANK:3]

1. 자녀가 원해서
2. 자녀가 심심할까봐
3. 유치원에서 필수로 해야 해서
4. 필수는 아니지만 분위기상 안 할 수가 없어서
5.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안 하는 것이 불안해서
6. 참여하지 않았을 때 마땅한 대체활동이 없어서
7. 아이의 특기를 길러주거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8.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9.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이 지원되므로
10. 외부 학원이나 단체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11. 장소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어서
12.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서
13. 기타( )

[로직: 문1=1인 경우만 응답]

[로직: 문2=학습 & 예체능 대분류에 해당하는 응답값이 없는 경우 문항 출력하지 않음]

문2-5. 막내자녀가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현재 받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전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

다음의 학습·예체능·기타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을 현재 참여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학습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제시: 문2 학습 관련 응답]

예체능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제시: 문2 예체능 관련 응답]

프로그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1. 학습 관련(수학, 과학, 창의, 언어 등) 프로그램 [로직 : 문2=학습 대분류에 해당하는 응답값이 있는 경우]				
2.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프로그램 [로직 : 문2=예체능 대분류에 해당하는 응답값이 있는 경우]				

[로직: 문1=1인 경우만 응답]

문3. 방과후에 사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예 → 문3-1로 이동
2. 아니오 → 문3-2로 이동

[로직: (선문6=1 OR 2) AND (문3=1)]

문3-1. 방과후에 사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하므로
2. 사교육에 비해 질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강사 수준, 프로그램 내용 등)
3. 기관에서 1차적으로 선별된 프로그램이므로
4. 자녀의 재능과 소질을 충분히 개발시켜주므로
5. 기타( )

[로직: (선문6=1 OR 2) AND (문3=2)]

문3-2. 방과후에 사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 2 사교육에 비해 질이 낮으므로 (강사 수준, 프로그램 내용 등)

3. 학부모의 선택권이 적으므로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해야 하고, 필요에 의해 시작하고 그만두기 어려움)
4. 진행 과정에서 아이 발달에 대한 보고, 상담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5. 시설이나 교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6. 기타( )

## II.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카테고리(문4~문6) :

※ **막내자녀가 다니는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의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직: 선문6=3인 경우만 응답]

문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본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아이에게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학습을 시키고 싶어서
2.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우리 아이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을 줄 것 같아서
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미 다녔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시키고 싶어서
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프로그램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서
5. 아이의 소질이나 재능을 개발해주고 싶어서
6. 기타 ( )

[로직: 선문6=3인 경우만 응답]

문5. 본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에 지불하는 한 달 평균 총 비용(교재비, 특성화 프로그램 등 전체 월 지급 비용)은 얼마입니까?

1. 월 평균 ( )원 [로직 : 0 TO 4,999,999]

[로직: 선문6=3인 경우만 응답]

문6. 본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의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약간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로직: 선문6=1 OR 2 OR 3인 경우]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에 다녀온 후 막내 자녀가 참여하는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 막내자녀는 오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놀이학교)을 다녀온 후 현재 별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평일 오후·주말 포함)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제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1. 예
2. 아니오

[로직: 선문6=4 OR 5인 경우]

※ 막내자녀가 참여하는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 막내자녀는 현재 별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평일 오후·주말 포함)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제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1. 예
2. 아니오

지금부터는 막내 자녀가 해 본 적 있는 사교육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아래 예시를 보고 다음 페이지에서 질문에 응답해주시시오.

[예시]

저희 아이는 영어를 만2세반부터 만5세반 현재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체육은 만4세반부터 만5세반 현재까지 2년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교육은 한 적 없습니다.

위 예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응답하면 됩니다.

경험이 있었던 해에 모두 체크해주시면 되고, 아예 사교육을 하지 않았던 항목은 "없음"에 체크합니다.

	만 0세반	만 1세반	만 2세반	만 3세반	만 4세반	만 5세반	없음
국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선문4 기준으로 응답 범주 출력 //

문8. 막내자녀가 해 본 적 있는 사교육을 모두 표기해주십시오.

과거부터 계속하고 있는 경우, 모든 연령에 해당 사교육을 표기해 주십시오.

※ 한 개의 사교육이 '학습'과 '예체능'이 혼합된 경우, 주된 교육 목적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영어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가 주된 목적이라면 '체육'으로만 응답)

※ 학습, 예체능 관련 분야 보기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은 기타 분야에서 응답해주십시오.

※ 해 본 적 없는 사교육인 경우 "없음"에 표기해주십시오.

//선문6=1 OR 2 OR 3 (기관에 다니는 경우) 안내 문구//

유치원/어린이집 연령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0세반이었을 때 다녔던 사교육, 만1세반이었을 때 다녔던 사교육 등...

과거의 모든 경험을 빠짐없이 체크해주세요.

//선문6=4 OR 5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 안내 문구//

자녀가 기관에 다니지 않더라도, 유치원/어린이집의 연령반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0세반 [제시: ****년]	만 1세반 [제시: ****년]	만 2세반 [제시: ****년]	만 3세반 [제시: ****년]	만 4세반 [제시: ****년]	만 5세반 [제시: ****년]	없음
학습	1)국어						
	2)논술						
	3)영어						



		만 0세반 [제시: ****년]	만 1세반 [제시: ****년]	만 2세반 [제시: ****년]	만 3세반 [제시: ****년]	만 4세반 [제시: ****년]	만 5세반 [제시: ****년]	없음
	4)기타 외국어 (한자 포함)							
	5)수학							
	6)과학(과학실험, 드론,AI관련 등)							
	7)컴퓨터 (코딩 포함)							
	8)교구(가베,몬테소리, 프뢰벨,블록,오감놀이 등)							
예체능	9)체육							
	10)무용(발레,댄스등)							
	11)음악							
	12)미술							
기타	13)요리							
	14)기타(        )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은 개월 수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입니다.

//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 표 상단 [제시 : \*\*\*\*년]을 아래 표를 참고하여 띄워짐

막내자녀 연령	반	연도 (해당 부분을 제시해주세요.)
선문4=2018인 경우	만0세반	2018년 또는 2019년
	만1세반	2020년
	만2세반	2021년
	만3세반	2022년
	만4세반	2023년
	만5세반	2024년
선문4=2020인 경우	만0세반	2020년 또는 2021년
	만1세반	2022년
	만2세반	2023년
	만3세반	2024년
선문4=2021인 경우	만0세반	2021년 또는 2022년
	만1세반	2023년
	만2세반	2024년



[로직: 문8의 ‘예체능’ 파트에서 한번이라도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9-1-2.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예체능 사교육을 한 적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 예체능 관련 사교육 : [제시: 문8 응답]

- 1.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 2.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 3. 다른 아이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 4.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 5.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돌봄을 위해서)
- 6. 기타 ( )

//문7=① and 문8의 응답을 기준으로 응답값 제시//  
문9-2. 막내자녀가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전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

다음의 학습·예체능 사교육을 현재 참여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 학습 관련 사교육 : [제시: 문8 응답]  
• 예체능 관련 사교육 : [제시: 문8 응답]

프로그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1. 학습 관련(수학, 과학, 창의, 언어 등) 프로그램 [문8=학습 관련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만 응답]				
2.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프로그램 [문8=예체능 관련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만 응답]				

//문8 응답값 중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막내자녀 연령	문8 응답값 반
선문4=2018인 경우	만5세반
선문4=2020인 경우	만3세반
선문4=2021인 경우	만2세반

문9-4.※ 오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을 다  
녀온 후의 사교육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시시오.

막내자녀가 현재 하고있는 사교육 비용, 주 단위 횟수 및 시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제시 : 만\*세반] 사교육은 경험은 있으나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현재 다니고 있지  
않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막내자녀 연령	문항 제시값
선문4=2018인 경우	만5세반
선문4=2020인 경우	만3세반
선문4=2021인 경우	만2세반

//제시 : 문8에서 현재 연령 기준으로 사교육 개수대로 출력//

과목	금액 및 횟수	현재는 다니지 않음
[제시:문8(1)]	월평균 금액 ( ) [1 to 999999] [한글금액표시] 2. 평일(월~금) ( )회 3. 토~일요일 ( )회 4. 한 회당 ( )분 수업	
[제시:문8(2)]	월평균 금액 ( ) [1 to 999999] [한글금액표시] 2. 평일(월~금) ( )회 3. 토~일요일 ( )회 4. 한 회당 ( )분 수업	
[제시:문8(3)]	월평균 금액 ( ) [1 to 999999] [한글금액표시] 2. 평일(월~금) ( )회 3. 토~일요일 ( )회 4. 한 회당 ( )분 수업	
//제시 : 문8에서 현재 연령 기준 으로 사교육 개수대로 출력함//	...	...

//아래는 응답자에게 묻지 않고 문9-4번 응답으로 자동 코딩

학습 관련 평일 평균 = (평일 횟수×한 회당 시간)÷5일

학습 관련 주말 평균 = (토~일요일 횟수×한 회당 시간)÷2일

예체능 관련 평일 평균 = (평일 횟수×한 회당 시간)÷5일

예체능 관련 주말 평균 = (토~일요일 횟수×한 회당 시간)÷2일

기타 관련 평일 평균 = (평일 횟수×한 회당 시간)÷5일  
기타 관련 주말 평균 = (토~일요일 횟수×한 회당 시간)÷2일

//문8 응답값 중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막내자녀 연령	문8 응답값 반
선문4=2018인 경우	만5세반
선문4=2020인 경우	만3세반
선문4=2021인 경우	만2세반

- 문10. 향후 막내자녀에게 사교육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르겠음

[로직: 문10=1인 경우만 응답]

문10-1. 귀하는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계속 시키려고 하십니까? [척도]

프로그램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1	2
1. 학습 관련(수학, 과학, 창의, 언어 등) 사교육		
2.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사교육		
3. 기타(요리 등) 사교육		

Ⅲ. 자녀의 하루 일과

지난주 막내자녀의 하루 일과에 대해 응답해주시요.  
단, 지난주에 아파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에 가지 못하는 등 특별한 한 주였다면, 지난주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자녀의 일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막내자녀 하루 일과는 주중 평균 일과와 주말 평균 일과를 나누어 여쭙보겠습니다.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사교육 시간은 앞서 응답하신 내용을 계산하여 저장해두었습니다.

문11-1. 막내자녀는 **평일(월~금)**에 다음의 활동을 얼마 동안 하나요? 하루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시간을 기록해 주세요.

※ 앞서 응답하신 1주 기준 사교육 시간을 계산하여 자동 저장했습니다. 혹시 응답이 잘못된 경우에만 수정하여 주십시오. [커스텀]

평일 평균 일과	
평일(월~금)	
하루 평균 참여 시간	
1) 평일(주중)	
1. 밤잠시간	
일 ( )시간 ( )분	
2. 유치원/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시간	
일 ( )시간 ( )분	
3.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기관 (특기교육학원,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시간 ※ 강사에 의한 교육	학습
	예체능
	기타
4.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일 ( )시간 ( )분	
5. TV 시청,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 시간	
일 ( )시간 ( )분	
6.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 시간	
일 ( )시간 ( )분	
7.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일 ( )시간 ( )분	
8.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일 ( )시간 ( )분	
9.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일 ( )시간 ( )분	
10. 기타 시간	
일 ( )시간 ( )분	
11. 총합	
일 24시간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기관' 평균 참여 시간 수정해야 할 경우,  
사교육 하루 평균 참여 시간은 평일 총 학습 시간을 5일(평일)로 나눠서 하루 평균 시간으로 응답합니다.

[예시]  
1회에 60분, 주 3회 수업을 하는 학습 사교육을 받는 경우  
- 평일 총 학습 시간 : 60분 x 3회 = 180분  
평일'학습' 하루 평균 참여 시간 : 180분/5일 = 36분

문11-2. 막내자녀는 주말(토/일요일)에 다음의 활동을 얼마 동안 하나요? 하루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시간을 기록해 주세요.

※ 앞서 응답하신 1주 기준 사교육 시간을 계산하여 자동 저장했습니다. 혹시 응답이 잘못된 경우에만 수정하여 주십시오. [커스텀]

주말 평균 일과		
토요일/일요일(주말)		하루 평균 참여 시간
		2) 토요일일요일(주말)
1. 밤잠시간		일 (    )시간 (    )분
2. 유치원/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시간		일 (    )시간 (    )분
3.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기관 (특기교육학원,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시간 ※ 강사에 의한 교육	학습	[제시: 문9-4 자동계산 값] 일 (    )시간 (    )분
	예체능	[제시: 문9-4 자동계산 값] 일 (    )시간 (    )분
	기타	[제시: 문9-4 자동계산 값] 일 (    )시간 (    )분
4.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일 (    )시간 (    )분
5. TV 시청,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 시간		일 (    )시간 (    )분
6.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 시간		일 (    )시간 (    )분
7.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일 (    )시간 (    )분
8.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일 (    )시간 (    )분
9.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일 (    )시간 (    )분
10. 기타 시간		일 (    )시간 (    )분
11. 총합		일 24시간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기관’ 평균 참여 시간 수정해야 할 경우,

사교육 하루 평균 참여 시간은 일주일 총 학습 시간을 2일(주말)로 나눠서 하루 평균 시간으로 응답합니다.

[예시]

1회에 60분, 주 1회 수업을 하는 학습 사교육을 받는 경우

- 주말 총 학습 시간 : 60분 x 1회 = 60분

주말 ‘학습’ 하루 평균 참여 시간 : 60분/2일 = 30분

#### Ⅳ. 자녀의 행동 특성

문12. 각 문항을 읽고 지난 6개월 또는 이번 학기 동안 막내자녀의 행동에 근거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에 해당하는 칸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1	2	3
1.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한다			
2. 차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3.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한다			
4. 간식, 장난감, 또는 연필 등을 기꺼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			
5. 자주 분노발작을 보이거나, 불같이 성질을 부린다			
6. 주로 홀로 있고 혼자서 노는 편이다			
7. 일반적으로 순종적이고 평소에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한다			
8. 걱정이 많고 종종 근심스러워 보인다			
9. 누군가가 다치거나 몸 상태가 나쁘거나 아파보이면 도움을 준다			
10. 언제나 친절부절하지 못하고 꼼지락 거린다			
11.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			
12. 다른 아이들에게 종종 싸움을 걸거나 괴롭힌다			
13. 자주 불행해 보이고 낙담하며 눈물이 고인다			
14. 대체로 다른 아이들이 좋아한다			
15.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력이 산만하다			
16. 낮은 상황에서는 불안해지거나 안 떨어지려고 하고, 험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17. 자신보다 어린 아동들에게 친절하다			
//자녀 나이 2세, 3세인 경우 2세, 3세용으로 문항 출력//			
18.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2세, 3세: 종종 어른들과 논쟁한다)			
19.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20. 자주 부모나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자진해서 돕는다			
//자녀 나이 2세, 3세인 경우 2세, 3세용으로 문항 출력//			
21.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2세, 3세: 행동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할 수 있다)			
//자녀 나이 2세, 3세인 경우 2세, 3세용으로 문항 출력//			
22. 가정이나 학교 또는 어떤 곳에서 흠친다 (2세, 3세: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품을 수 있다)			
23.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더 잘 지낸다			
24.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탄다			
//자녀 나이 2세, 3세인 경우 2세, 3세용으로 문항 출력//			
25.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치고 주의력을 잘 유지한다. (2세, 3세: 집중력이 좋고, 일을 끝까지 완수한다)			



문13. 전반적으로 막내자녀는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 중 하나 이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1. 아니오 → 문14로 이동
2. 예, 조금
3. 예, 상당히
4. 예, 심하게

[로직: 문13)1인 경우만 응답]

문13-1. 막내자녀의 이러한 어려움(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1. 1개월 미만
2. 1~5개월
3. 6~12개월
4. 1년 초과

[로직: 문13)1인 경우만 응답]

문13-2. 이러한 어려움(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은 막내자녀에게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1. 전혀
2. 약간
3. 상당히
4. 심하게

[로직: 문13)1인 경우만 응답]

문13-3. 이러한 어려움(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막내자녀의 생활을 얼마나 방해합니까? [척도]

문항	전혀	약간	상당히	심하게
	1	2	3	4
1. 가정생활				
2. 친구관계				
3. 교실놀이				
4. 여가활동				

[로직: 문13)1인 경우만 응답]

문13-4. 막내자녀의 이러한 어려움(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이 당신이나 가족에게 얼마나 부담을 줍니까?

1. 전혀
2. 약간
3. 상당히
4. 심하게

## V. 부모-자녀 상호작용

문14. 다음은 막내자녀와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귀하(혹은 다른 가족들)가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활동하시는 정도를 선택해주시요.

문 항 내 용	전혀 하지 않음	1~2번	3~6번	매일함
	1	2	3	4
1)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2)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3)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4) 아이가 미술이나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요리, 청소, 상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한다.				
6)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7) 아이와 함께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과학놀이를 한다.				
8) 아이와 함께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논다.				
9)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 Ⅵ. 사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15. 향후 영유아(취학 전) 사교육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고르세요.

1.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
2.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체육시설, 체험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센터 등)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흡수시키는 방향
3.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을 축소시키는 방향
4. 사교육을 유지하거나 활성화시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
5. 기타( )

문16. 향후 공교육(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흡수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강사의 전문성
2. 프로그램의 질
3. 영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의 진행
4. 강사 대 영유아 비율
5. 기타( )

문17. 향후 공교육(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흡수한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원하십니까?

1. 신체를 움직여서 하는 체육이나 스포츠
2. 미술이나 음악 등 예체능 프로그램
3. 일반적인 과학 관련 프로그램
4. IT, AI, 코딩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프로그램
5. 영어 등 외국어 프로그램
6. 수학 관련 프로그램
7. 한글, 논술 프로그램
8. 그림책 관련 프로그램
9. 교구 등을 통한 통합적인 프로그램
10. 기타(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설문지: [유아 대상 검사 및 조사자료 분석] 영유아 사교육  
관련 부모 설문

ID		
----	--	--

영유아 사교육 관련 부모 설문

자녀 특성		응답자 특성		가족 특성	
자녀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자녀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①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② 아버지	맞벌이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② 아버지만 일함 <input type="checkbox"/> ③ 어머니만 일함	
자녀 연령	____년 ____개월	응답자 연령	만____세	학력	부
					모
				근로 시간	부
		모			
재원했던 기관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③학원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 <input type="checkbox"/> ④기관에 다니지 않음	응답자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대 <input type="checkbox"/> ④대학원 졸 이상	월평균 가구수입	____만원(세후소득)
				가족 형태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①한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②다문화가정 <input type="checkbox"/> ③해당없음

사교육 현황 및 인식

※ 학교를 다녀온 후 귀하의 자녀가 참여하는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초등학교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1. 귀하의 자녀는 하교 혹은 하원 후나 주말에,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예 (☞ 2-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8번으로 이동)

2. 귀하의 자녀는 평소 어떤 종류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학습 관련(수, 과학, 창의, 언어 등) 프로그램  
☐②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프로그램  
☐③ 학습과 예체능 프로그램 모두

2-1. 설문대상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받고 있는 사교육을 구체적으로 모두 적어주십시오.  
단답형\_(예: 논술, 피아노) \_\_\_\_\_

2-2. 귀하의 자녀는 현재 하교 후 혹은 주말에 사교육을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1주일 기준)

학습 관련 프로그램	주( ) 개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주( ) 개
기타	주( ) 개
총(합계)	주( ) 개

2-3. 귀하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습 관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①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②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input type="checkbox"/> ③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④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input type="checkbox"/> 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돌봄을 위해서)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 )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①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②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input type="checkbox"/> ③ 다른 아이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④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input type="checkbox"/> 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돌봄을 위해서)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 )

2-4. 자녀가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학습 관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③ 만족하는 편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만족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③ 만족하는 편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만족
기타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③ 만족하는 편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만족

2-5. 귀하가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월 비용은 얼마입니까? 약 (     )원

2-6.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③ 적정하다  
④ 다소 부담된다                              ⑤ 매우 부담된다

3. 자녀는 처음 사교육을 언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습니까?

3-1. 자녀가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나이

만 (     )년 (     )개월
----------------------

3-2. 자녀가 처음 시작한 사교육 유형은 무엇인지 모두 골라주세요. (복수 응답)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체육         | <input type="checkbox"/> ② 무용            | <input type="checkbox"/> ③ 음악 |
| <input type="checkbox"/> ④ 미술         | <input type="checkbox"/> ⑤ 국어            | <input type="checkbox"/> ⑥ 논술 |
| <input type="checkbox"/> ⑦ 영어         |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외국어(     ) | <input type="checkbox"/> ⑨ 수학 |
| <input type="checkbox"/> ⑩ 과학         | <input type="checkbox"/> ⑪ 컴퓨터(코딩)       | <input type="checkbox"/> ⑫ 창의 |
| <input type="checkbox"/> ⑬ 기타 (     ) |  |                               |

4. 자녀의 과거 사교육 경험의 개수를 기록해 주세요.

		0	1	2	3	4	5	비고
신체	체육							
	무용							
	소계							
예술	음악							
	미술							
	소계							
학습	국어							
	논술							
	영어							
	기타 외국어 (한자 포함)							
	수학							
	과학							
	컴퓨터 (코딩 포함)							
	소계							
	창의							
	블록 등							
기타	취미, 교양							
총계								

5.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결정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 ① 학생 본인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기타(            )

6. 사교육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교육비용    ② 교육 프로그램    ③ 담당교사의 실력    ④ 자녀의 희망  
⑤ 거주지와의 거리    ⑥ 기타 (            )

7 그만둔 사교육이 있다면 중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중단한 사교육 없음    ② 자녀가 흥미 없어 하므로    ③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④ 교육방법/내용이 좋지 않아서    ⑤ 효과가 없어서 ⑥ 기타(            )

8. 향후 자녀에게 사교육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예 (예 8-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8-1. 어떤 종류의 사교육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학습 관련(수, 과학, 창의, 언어 등) 프로그램  
☐②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프로그램  
☐③ 학습과 예체능 프로그램 모두

9. 설문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 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해서  
②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③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④ 마땅한 과외 교사나 학원을 찾지 못해서  
⑤ 사교육을 받아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서  
⑥ 사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⑦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9-1. 설문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지만 고려 중인 사교육 과목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학습 관련(수, 과학, 창의, 언어 등) 프로그램  
☐②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프로그램  
☐③ 학습과 예체능 프로그램 모두

※ 귀하의 자녀(아동 대상 조사에 참여한 자녀)가 현재 참여하는 영어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설문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자녀는 어떤 방법의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현재 어떠한 영어 사교육 및 가정내 영어 교육도 받고 있지 않다 (양육효능감 섹션으로 이동)
  - ② 비용을 지불한 사교육은 아니지만 가정 내에서 영어 교육 실시 (엄마표 영어 섹션 이동)
  - ③ 공공기관의 학습교실 (주민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방과 후 수업 등)
  - ④ 사설교육기관 (보습학원, 영어유치원, 영어도서관 등)
  - ⑤ 디지털 교육 매체 (인터넷 강의, 화상영어, 전화영어, 워크 등)
  - ⑥ 학습지 (구문, 윤선생 등)
2. 설문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영어 사교육 방법을 선택한 실제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 2순위로 응답해주십시오)
  - ① 시간과 경제력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 ② 아이의 흥미와 수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③ 좋은 교재와 교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 ④ 주변에 많은 학부모들이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 ⑤ 기타
3. 처음 영어 사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만2세 이전    ② 만3세    ③ 만4세    ④ 만5세    ⑤ 만6세 이상
4. 주당 자녀가 받는 영어 사교육의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주 1회    ② 주 2회    ③ 주 3회    ④ 주 4회    ⑤ 주 5회 이상
5. 하루에 자녀가 받는 영어 사교육의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0분 미만    ② 1~2시간 미만    ③ 2~3시간 미만    ④ 3~4시간 미만    ⑤ 5시간 이상
6. 영어 사교육에 지출되는 한 달 비용은 얼마입니까?
  - ①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②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③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④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⑤ 50만원 이상
7. 현재 영어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효과가 있다(7-1번)    ② 보통이다    ③ 효과가 없다(7-2번)
- 7-1. 만약 영어 사교육의 교육효과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면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가지 선택 가능)
  - ① 영어에 대한 아동의 흥미와 동기유발    ② 영어 문해력 증진
  - ③ 영어 작문 실력 향상    ④ 영어로 자유로운 의사소통    ⑤ 영어 발음 향상
  - ⑥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 증가    ⑦ 기타 ( )



7-2. 만약 영어 사교육의 교육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대 2가지 선택 가능)

- ① 아이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
- ② 교사의 실력과 지도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 ③ 좋은 교재 및 교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 ④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식 학습법이 아니라서
- ⑤ 기타

#### ※ 정서·행동 특성 검사

다음으로는 **자녀의 정서 행동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응답 결과는 자녀의 정서·행동 측면에서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는 자료로만 활용이 되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가 보이는 정서·행동 특성에 대해 전혀 아니다/조금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로 가장 가까운 응답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자녀는 스스로를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내 자녀는 수업시간, 공부, 오랜 책읽기 등에 잘 집중하지 못한다.				
3	내 자녀는 집을 나서거나 부모(주 양육자)와 떨어지는 것을 매우 불안해한다.				
4	내 자녀는 또래에 비해 읽기, 쓰기, 셈하기를 잘하지 못한다.				
5	내 자녀는 울거나 짜증내는 경우가 많다.				
6	내 자녀는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라고 느낀다.				
7	내 자녀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거나 손발을 계속 움직인다.				
8	내 자녀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곤해 보인다.				
9	내 자녀는 적응력이나 대처 능력이 또래에 비해 부족하다.				
10	내 자녀는 지금의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1	내 자녀는 기다리지 못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				
12	내 자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여기저기 자주 아파한다(예: 두통, 복통, 구토,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				
13	내 자녀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14	내 자녀는 어른(부모, 교사 등)에게 반항적이거나 대든다.				
15	내 자녀는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이나 질문을 한다.				
16	내 자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쉽게 상처받는다.				
17	내 자녀는 친구를 사귀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18	내 자녀는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거나 겁을 낸다.				

### 부록 3. 부록 표

〈부록 표 1〉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 구성 지표별 질문

구성 지표	질문
초기 이정표	1. 당신의 아동은 언제 걷기 시작하였나요? (15개월 이하, 16개월 이상) 2. 당신의 아동은 언제 첫 낱말을 시작하였나요? (15개월 이하, 16-24개월, 25개월 이상) 3. 당신의 아동은 언제 낱말을 나열하거나 짧은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였나요? 아동이 발화하였던 문장을 예를 들어 적어주세요. (24개월 이하, 25-30개월, 31개월 이상) 4. 당신의 아동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 또래 아동에 비교하였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현재 언어능력	1. 또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2. 또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이 단어를 발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3. 당신의 가족 또는 친구들은 아동과 대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편입니까? 4. 또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당신의 아동은 올바른 문장을 산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정확한 어휘, 올바른 문법,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긴 문장을 사용하는 것) 5. 당신은 아동의 언어능력에 만족하시나요?
행동 패턴 및 활동 선호도	1. 당신의 아동은 책을 읽거나 어른이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나요? 2. 또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의 읽기 쓰기 능력은 어떠한가요? 3. 아동이 선호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4. 당신의 아동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얼마나 빠르고 쉽게 배우나요? (예: 스포츠, 어휘, 게임, 새로운 장난감) 5. 당신의 아동이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활동패턴은 어떤가요? 6. 당신의 아동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지 못해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력	1. 가족 구성원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를 적어주세요. 2. 직계 가족이나 친척 중(형제자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보이는 가족이 있나요? 학습의 어려움, 언어 또는 발음 문제, 특수교육 경험, 말/언어 치료, 읽기/쓰기 어려움, 영어 학습 어려움, 학교 안에서서의 유급

〈부록 표 2〉 문제해결력 검사 평가 영역 및 질문

상황	평가 영역	질문
야구공에 맞아 자동차 창문이 깨진 상황	상황/단서 추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자동차 유리가 공 때문에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원인/이유 추론	자동차 유리는 왜 깨졌을까요?
	감정 추론	자동차 주인이 자기 차를 발견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문제해결 추론	이제 두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책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	평가 영역	질문
수영 가기 전 차 문에 손이 끼인 상황	상황/단서 추론	이 친구는 어디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인/이유 추론	수영장에 도착했는데, 이 친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정 추론	이 친구는 차 문에 손가락이 끼여서 다쳤어요. 이걸 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문제해결 추론	이 친구는 손을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책	이 친구가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호를 위반해서 건넌 상황	상황/단서 추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원인/이유 추론	왜 사고가 날 뻔 했을까요?
	감정 추론	운전하던 아저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문제해결 추론	아저씨가 이 친구에게 "파란불에 건너야지"라고 말하며 꾸짖으셨어요. 이 친구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방책	건너편에 친구가 지나가고 있어서 반가워요. 인사를 하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실에서 친구가 축구공에 맞은 상황	상황/단서 추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지금은 수업 시간일까요 쉬는 시간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원인/이유 추론	공을 찬 남자친구는 왜 깜짝 놀랐을까요?
	감정 추론	공을 맞은 친구는 어떤 마음일까요?
	문제해결 추론	공을 찬 친구와 공을 맞은 친구가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책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트에서 초콜릿을 사고 싶은 상황	상황/단서 추론	여기는 어디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인/이유 추론	이 아이는 왜 울고 있는 걸까요?
	감정 추론	아빠는 어떤 기분일까요?
	문제해결 추론	이 아이는 초콜릿을 하루에 두 개만 먹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이미 초콜릿을 두 개나 먹었어요. 그런데 또 사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초콜릿이 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책	초콜릿을 더 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강아지가 식탁 위 음식들을 먹은 상황	상황/단서 추론	여기는 어디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원인/이유 추론	강아지가 식탁 위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아빠는 왜 모르고 있을까요?
	감정 추론	마침 엄마가 부엌에 들어오면서 이 장면을 보았어요. 엄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문제해결 추론	이 장면을 본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예방책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미끄럼틀에서 내려가기 무서운 상황	상황/단서 추론	여기는 어디인가요? 놀이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인/이유 추론	친구들은 왜 이 친구를(미끄럼틀 위에 있는 아이) 쳐다보고 있을까요?
	감정 추론	(미끄럼틀 위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문제해결 추론	(미끄럼틀 위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도저히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가 없나 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책	동생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고 싶은데, 비가 올까 봐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황	평가 영역	질문
상을 받는 상황	상황/단서 추론	무슨 상황인가요? 누가 1등을 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인/이유 추론	시상대에 올라가 있지 않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감정 추론	3등을 한 친구는 어떤 기분인 것 같아요? 왜일까요?
	문제해결 추론	이 친구들은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다들 최선을 다해서 달렸어요. 그런데 3등을 한 친구가 속상해 한다면, 어떤 말을 해서 위로해줄 수 있을까요?
	예방책	다음 달리기 시합에서 지금보다 더 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래성이 무너진 상황	상황/단서 추론	지금은 무슨 계절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인/이유 추론	남자 아이는 왜 모래를 더 부으려고 하는 걸까요?
	감정 추론	남자 아이가 모래를 쏟아 부어서 모래성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동생은 기분이 어떨까요?
	문제해결 추론	남자 아이는 동생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예방책	남자 아이는 모래성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어요.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록 표 3〉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질문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하의 자녀는 하교 혹은 하원 후나 주말에,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평소에 별도로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li> <li>2. 귀하의 자녀는 평소에 어떤 종류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설문대상(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받고 있는 사교육을 구체적으로 모두 적어주십시오.</li> <li>2-2. 귀하의 자녀는 현재 하교 및 하원 이후 혹은 주말에 사교육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1주일 기준)</li> <li>2-3.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li> <li>2-4. 자녀가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li> <li>2-5. 귀하가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월비용은 얼마입니까?</li> <li>2-6.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li> </ol> </li> <li>3. 자녀는 처음 사교육을 언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 자녀가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나이</li> <li>3-2. 자녀가 처음 시작한 사교육 유형은 무엇인지 모두 골라주세요.</li> </ol> </li> <li>4. 자녀의 과거 사교육 경험의 개수를 기록해주세요.</li> <li>5.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결정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li> <li>6. 사교육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li> <li>7. 그만둔 사교육이 있다면 중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8. 향후 자녀에게 사교육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1. 어떤 종류의 사교육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li> </ol> </li> <li>9. 설문 대상 자녀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9-1. 설문 대상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지만 고려 중인 사교육 과목이 있습니까?</li> </ol> </li> </ol>

자료: 김보용(2009). 초등학교생의 사교육 경험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pp. 98-107 내용과 정복주(2010).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pp. 134-144 내용 및 최재원(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 pp. 67-71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함.

**〈부록 표 4〉 영어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질문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문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자녀는 어떤 방법의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li> <li>2. 설문 대상 자녀의 영어 사교육 방법을 선택한 실제적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3. 처음 영어 사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li> <li>4. 주당 자녀가 받는 영어 사교육의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li> <li>5. 하루에 자녀가 받는 영어 사교육의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li> <li>6. 영어 사교육에 지출되는 한 달 비용은 얼마입니까?</li> <li>7. 현재 영어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1. 만약 영어 사교육의 교육효과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면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7-2. 만약 영어 사교육의 교육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ol> </li> </ol>

자료: 백지원(2009). 영·유아 초기 영어 사교육 실태조사. pp. 50-55 내용과 신나나(2021).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법: 7차 교육과정을 경험한 만 35세 미만 엄마들을 중심으로. pp. 61-68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음.

〈부록 표 5〉 각 연령별 사고육 경험: (해당 연령별 사고육 경험 1개 이상인 경우) 유형별 가짓수 (1)

구분	(사고육 1개 이상인 경우) 만0세반 경험				(사고육 1개 이상인 경우) 만1세반 경험				(사고육 1개 이상인 경우) 만2세반 경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수)
전체	1.09	1.24	2.33	(234)	1.03	1.48	2.52	(434)	1.31	1.62	2.93	(663)
자녀 성별												
남	1.17	1.29	2.45	(119)	1.16	1.44	2.60	(214)	1.39	1.61	3.00	(321)
여	1.01	1.19	2.20	(115)	0.91	1.52	2.44	(220)	1.23	1.63	2.86	(342)
<i>t</i>	0.8	0.6	0.9		2.5*	-0.7	1.0		1.7	-0.2	1.0	
자녀 연령												
만2세	0.08 <sup>b</sup>	1.22	2.02	(118)	0.95	1.56 <sup>a</sup>	2.50	(220)	1.29	1.67 <sup>a</sup>	2.97 <sup>a</sup>	(316)
만3세	1.38 <sup>a</sup>	1.41	2.79	( 73)	1.13	1.55 <sup>a</sup>	2.68	(146)	1.45 <sup>a</sup>	1.71 <sup>a</sup>	3.16 <sup>a</sup>	(236)
만5세	1.40	1.00	2.40	( 43)	1.12	1.09 <sup>b</sup>	2.21	( 68)	1.06 <sup>b</sup>	1.28 <sup>b</sup>	2.34 <sup>b</sup>	(111)
<i>F</i>	4.9*(w)	1.2(w)	2.7(w)		1.7(w)	4.1*	1.6(w)		3.6*(w)	4.7**	6.9**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1.27	1.38	2.65	( 60)	1.07	1.51	2.59	(111)	1.34	1.69	3.04	(170)
어린이집	0.95	1.18	2.13	(156)	0.99	1.55	2.54	(289)	1.29	1.63	2.92	(445)
반일제학원	2.36	1.09	3.45	( 11)	1.43	0.78	2.22	( 23)	1.48	1.30	2.79	( 33)
가정양육	0.71	1.57	2.29	( 7)	0.91	0.91	1.82	( 11)	1.13	1.20	2.33	( 15)
<i>F</i>	2.2(w)	0.6	1.0(w)		1.4	3.6*	0.9		0.4	1.4	0.7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0	1.64	3.14	( 28)	1.40	1.94	3.33	( 48)	1.95 <sup>a</sup>	2.10	4.05 <sup>a</sup>	( 61)
전문대졸	1.06	1.00	2.06	( 33)	0.92	1.46	2.38	( 79)	1.15 <sup>b</sup>	1.47	2.62 <sup>b</sup>	(130)
4년제대졸	0.93	1.21	2.14	(130)	0.98	1.42	2.40	(245)	1.25 <sup>b</sup>	1.59	2.83 <sup>b</sup>	(389)
대학원졸 이상	1.33	1.26	2.58	( 43)	1.11	1.42	2.53	( 62)	1.37	1.66	3.04	( 83)
<i>F</i>	1.1(w)	1.2(w)	2.0		1.7(w)	1.6(w)	2.3(w)		4.3***(w)	2.6(w)	5.4***(w)	

단위: 개(명)

구분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0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1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2세반 경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수)
아버지 최종학력	1.21	1.29	2.50	( 28)	0.93	1.57	2.51	( 61)	1.16	1.78	2.94	( 87)
	고졸 이하											
	1.04	1.51	2.55	( 51)	1.01	1.62	2.63	( 89)	1.33	1.68	3.01	(125)
	전문대졸											
	0.97	1.15	2.12	(128)	1.02	1.45	2.47	(236)	1.35	1.57	2.92	(371)
4년제대졸	1.74	1.13	2.87	( 23)	1.27	1.18	2.45	( 44)	1.25	1.42	2.67	( 72)
	대학원졸 이상											
	1.0(w)	1.1	1.1		0.9(w)	1.4	0.2		0.9(w)	1.3	0.5	
맞벌이 여부	0.75	1.07	1.83	( 69)	0.89	1.48	2.38	(132)	1.33	1.66	2.99	(192)
	외벌이											
	1.23	1.30	2.54	(164)	1.10	1.47	2.57	(301)	1.30	1.60	2.90	(468)
	맞벌이											
	1.00	2.00	3.00	( 1)	1.00	4.00	5.00	( 1)	1.67	2.00	3.67	( 3)
미취업	-	1.0	-		1.8	2.1	1.6		0.2	0.3	0.4	
	F											
지역 규모	1.16	1.15	2.32	( 73)	1.11	1.43	2.54	(151)	1.35	1.60	2.95	(255)
	대도시											
	1.12	1.32	2.44	(118)	1.02	1.53	2.55	(209)	1.34	1.61	2.95	(306)
	중소도시											
	0.88	1.16	2.05	( 43)	0.93	1.46	2.39	( 74)	1.11	1.70	2.80	(102)
읍면	0.6	0.5	0.5		0.8	0.3	0.2		1.6	0.2	0.3	
	F											
가구소득	1.42	1.15	2.58	(26)	0.89	1.47	2.37	( 38)	1.62	1.53	3.15	( 55)
	300만원 미만											
	1.24	1.39	2.64	(66)	1.05	1.51	2.56	(142)	1.21	1.80	3.01	(223)
	300 이상~500만원											
	0.75	1.27	2.01	(83)	1.03	1.53	2.57	(150)	1.29	1.54	2.83	(221)
500 이상~700만원	1.25	1.07	2.32	(59)	1.07	1.37	2.43	(104)	1.37	1.52	2.88	(164)
	700만원 이상											
	2.5	0.8	1.3(w)		0.3	0.4	0.2		1.8	2.2	0.6	
F												

주: 1)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2) "만n세반 경험"은 어린이집·유치원 빈편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경험한 사교육 개수를 의미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6〉 각 연령별 사고교육 경험: (해당 연령별 사고교육 경험 1개 이상인 경우) 유형별 가짓수 (2)

구분	(사고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3세반 경험				(사고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4세반 경험				(사고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5세반 경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수)
전체	1.79	1.62	3.41	(590)	1.76	1.56	3.32	(330)	2.11	1.48	3.59	(439)
자녀 성별												
남	1.89	1.55	3.45	(278)	1.79	1.39	3.18	(150)	2.07	1.30	3.37	(225)
여	1.70	1.69	3.38	(312)	1.73	1.71	3.44	(180)	2.14	1.66	3.81	(214)
<i>t</i>	1.4	-1.2	0.3		0.4	-2.4*	-0.9		-0.4	-3.1**	-1.8	
자녀 연령												
만2세	-	-	-	-	-	-	-	-	-	-	-	-
만3세	1.99	1.75	3.74	(354)	-	-	-	-	-	-	-	-
만5세	1.49	1.43	2.92	(236)	1.76	1.56	3.32	(330)	2.11	1.48	3.59	(439)
<i>t</i>	3.6***	2.9**	4.1***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1.80	1.66	3.46	(300)	1.76	1.65	3.41	(182)	2.14	1.58 <sup>a</sup>	3.72 <sup>a</sup>	(235)
어린이집	1.76	1.59	3.35	(258)	1.66	1.43	3.10	(122)	1.97	1.30 <sup>a</sup>	3.28 <sup>a</sup>	(178)
반일제학원	1.88	1.59	3.47	( 32)	2.19	1.54	3.73	( 26)	2.73	1.73 <sup>a</sup>	4.46 <sup>a</sup>	( 26)
가정양육	-	-	-	-	-	-	-	-	-	-	-	-
<i>F</i>	0.1	0.2	0.2		1.1	1.1	1.0		2.0(w)	3.2*	3.4*(w)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6	1.66	3.81	( 58)	1.70	1.60	3.30	( 30)	2.14	1.33	3.48	( 42)
전문대졸	1.60	1.60	3.19	(134)	1.94	1.48	3.42	( 79)	2.27	1.42	3.69	(105)
4년제대졸	1.74	1.62	3.36	(335)	1.76	1.59	3.35	(194)	2.09	1.55	3.63	(253)
대학원졸 이상	2.14	1.68	3.83	( 63)	1.26	1.59	2.85	( 27)	1.77	1.36	3.13	( 39)
<i>F</i>	2.7*	0.1	1.5		1.2	0.2	0.4		0.7	0.6	0.5	

단위: 개(명)



구분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3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4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5세반 경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수)
아버지 최종학력	1.49 <sup>b</sup>	1.68	3.17	( 82)	1.41	1.57	2.98	( 51)	2.13	1.48	3.61	( 62)
	1.93	1.64	3.57	(118)	1.74	1.43	3.17	( 69)	2.32	1.32	3.64	( 88)
	1.73	1.57	3.30	(315)	1.86	1.62	3.48	(169)	2.00	1.49	3.49	(236)
	2.19 <sup>a</sup>	1.67	3.87	( 67)	1.80	1.54	3.34	( 35)	2.34	1.75	4.09	( 44)
	2.7*	0.2	1.4		1.0	0.3	0.8(w)		0.8(w)	1.2	0.5(w)	
맞벌이 여부	1.51 <sup>a</sup>	1.70	3.21	(189)	1.65	1.56	3.21	(117)	1.97	1.60	3.57	(150)
	1.91 <sup>a</sup>	1.58	3.50	(399)	1.82	1.57	3.38	(213)	2.18	1.42	3.60	(289)
	3.00 <sup>a</sup>	3.00	6.00	( 2)	-	-	-	-	-	-	-	-
	4.4*	1.5	2.0		-0.9	-0.1	-0.6		-1.2	1.5	-0.1	
지역 규모	1.88	1.76	3.63	(241)	1.82	1.75	3.57	(136)	2.13	1.59	3.72	(178)
	1.73	1.51	3.24	(262)	1.62	1.44	3.06	(140)	2.11	1.40	3.51	(195)
	1.72	1.60	3.32	( 87)	1.96	1.41	3.37	( 54)	2.05	1.41	3.45	( 66)
	0.6	2.1	1.6		1.0	2.4(w)	1.5(w)		0.1	1.2	0.4	
가구소득	2.26	1.60	3.86	( 42)	2.12	1.65	3.76	( 17)	2.82	1.75	4.57	( 28)
	1.75	1.77	3.52	(203)	1.74	1.49	3.23	(111)	2.01	1.45	3.45	(146)
	1.83	1.59	3.42	(205)	1.73	1.54	3.27	(122)	2.05	1.42	3.48	(164)
	1.65	1.47	3.12	(140)	1.75	1.69	3.44	( 80)	2.14	1.54	3.68	(101)
	1.6	1.4(w)	1.5(w)		0.3	0.4	0.3		1.7	0.7	1.6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3) "만n세반 경험"은 어린이집·유치원 빈칸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경험한 사교육 개수를 의미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sup>a</sup>  $p < .05$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



구분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10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11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12세반 경험					
	학습 관련	계(수)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계(수)	학습 관련	계(수)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계(수)	학습 관련	계(수)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이상 F	1.79 ( 19)	( 19)	1.89 ( 19)	2.50 ( 19)	( 28)	1.24 ( 46)	1.96 ( 46)	2.51 ( 49)	( 61)	1.55 ( 65)	2.12 ( 73)	2.94 ( 87)		
	1.56 ( 34)	( 34)	2.03 ( 38)	2.55 ( 51)	( 51)	1.48 ( 61)	2.03 ( 61)	2.63 ( 71)	( 89)	1.89 ( 88)	2.04 ( 103)	3.01 (125)		
	1.35 ( 92)	( 92)	1.79 ( 82)	2.12 (128)	(128)	1.35 (179)	1.92 (179)	2.47 (178)	(236)	1.78 (282)	1.95 (299)	2.92 (371)		
	2.35 ( 17)	( 17)	1.86 ( 14)	2.87 ( 23)	( 23)	1.75 ( 32)	1.63 ( 32)	2.45 ( 32)	( 44)	1.96 ( 46)	1.79 ( 57)	2.67 ( 72)		
	1.4(w)		0.4	1.1		2.0(w)	1.1	0.2		1.6	1.1	0.5		
맞벌이 여부 외벌이 맞벌이 미취업 F	1.13 ( 46)	( 46)	1.72 ( 43)	1.83 ( 69)	( 69)	1.26 ( 94)	1.85 ( 94)	2.38 (106)	(132)	1.77 (145)	2.02 (158)	2.99 (192)		
	1.70 (119)	(119)	1.93 (111)	2.54 (164)	(164)	1.45 (227)	1.96 (227)	2.57 (226)	(301)	1.79 (339)	1.97 (380)	2.90 (468)		
	1.00 ( 1)	( 1)	2.00 ( 1)	3.00 ( 1)	( 1)	1.00 ( 1)	4.00 ( 1)	5.00 ( 1)	( 1)	1.67 ( 3)	3.00 ( 2)	3.67 ( 3)		
	-		0.6	-		-	2.3	1.6		0.0	0.9	0.4		
지역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1.60 ( 53)	( 53)	1.75 ( 48)	2.32 ( 73)	( 73)	1.50 (111)	1.91 (111)	2.54 (113)	(151)	1.76 (196)	1.96 (208)	2.95 (255)		
	1.59 ( 83)	( 83)	1.97 ( 79)	2.44 (118)	(118)	1.35 (158)	1.95 (158)	2.55 (164)	(209)	1.84 (223)	2.00 (247)	2.95 (306)		
	1.27 ( 30)	( 30)	1.79 ( 28)	2.05 ( 43)	( 43)	1.30 ( 53)	1.93 ( 53)	2.39 ( 56)	( 74)	1.66 ( 68)	2.04 ( 85)	2.80 (102)		
	0.7(w)		0.8	0.5		1.2	0.0	0.2		0.7	0.1	0.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0 이상~500만원 500 이상~700만원 700만원 이상 F	1.95 ( 19)	( 19)	1.67 ( 18)	2.58 ( 26)	( 26)	1.31 ( 26)	1.81 ( 26)	2.37 ( 31)	( 38)	1.98 ( 45)	2.00 ( 42)	3.15 ( 55)		
	1.64 ( 50)	( 50)	2.04 ( 45)	2.64 ( 66)	( 66)	1.38 (108)	1.97 (108)	2.56 (109)	(142)	1.78 (152)	2.10 (191)	3.01 (223)		
	1.27 ( 49)	( 49)	1.81 ( 58)	2.01 ( 83)	( 83)	1.38 (112)	2.00 (112)	2.57 (115)	(150)	1.69 (169)	1.97 (173)	2.83 (221)		
	1.54 ( 48)	( 48)	1.85 ( 34)	2.32 ( 59)	( 59)	1.46 ( 76)	1.82 ( 76)	2.43 ( 78)	(104)	1.85 (121)	1.86 (134)	2.88 (164)		
	1.3(w)		0.6(w)	0.2		0.2	0.6	0.3(w)		1.1	1.2	0.6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3) "만10세반 경험"은 어린이집·유치원 반편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경험한 사교육 개수를 의미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부록 표 8〉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 (해당 연령별 각 항목별(학습, 예체능/기타)로 사교육 경험 1개 이상인) 유형별 가짓수 (2)

단위: 개

구분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3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4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5세반 경험)							
	학습 관련	계(수)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계(수)	학습 관련	계(수)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계(수)	학습 관련	계(수)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계(수)	
전체	2.43	(435)	2.03	(471)	3.41	(590)	2.43	(239)	1.90	(272)	3.32	(330)	2.76	(335)	3.59	(439)
자녀 성별																
남	2.40	(219)	2.07	(209)	3.45	(278)	2.36	(114)	1.82	(114)	3.18	(150)	2.69	(173)	3.37	(225)
여	2.45	(216)	2.01	(262)	3.38	(312)	2.49	(125)	1.95	(158)	3.44	(180)	2.83	(162)	3.81	(214)
t	-0.4		0.5		0.3		-0.7		-0.9		-1.0		-0.8		-1.8	
자녀 연령																
만2세	-		-		-		-		-		-		-		-	
만3세	2.55	(276)	2.16	(287)	3.74	(354)	-		-		-		-		-	
만5세	2.21	(159)	1.84	(184)	2.92	(236)	2.43	(239)	1.90	(272)	3.32	(330)	2.76	(335)	3.59	(439)
t	2.3*		2.9**		4.1***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2.56	(211)	2.02	(247)	3.46	(300)	2.52	(127)	1.93	(156)	3.41	(182)	2.87	(175)	3.72 <sup>a</sup>	(235)
어린이집	2.31	(197)	2.09	(196)	3.35	(258)	2.28	(89)	1.84	(95)	3.10	(122)	2.56	(137)	3.28 <sup>a</sup>	(178)
반일제학원	2.22	(27)	1.82	(28)	3.47	(32)	2.48	(23)	1.90	(21)	3.73	(26)	3.09	(23)	4.46 <sup>a</sup>	(26)
가정양육	-		-		-		-		-		-		-		-	
F	1.9		0.7		1.6		0.8(w)		0.2		1.0		2.1		3.4*(w)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0	(48)	2.34	(41)	3.81	(58)	3.00	(17)	1.85	(26)	3.30	(30)	3.21	(28)	3.48	(42)
전문대졸	2.28	(94)	2.02	(106)	3.19	(134)	2.39	(64)	1.89	(62)	3.42	(79)	2.80	(85)	3.69	(105)
4년제대졸	2.38	(245)	2.01	(269)	3.36	(335)	2.36	(145)	1.94	(159)	3.35	(194)	2.67	(198)	3.63	(253)
대학원졸 이상	2.81	(48)	1.93	(55)	3.83	(63)	2.62	(13)	1.72	(25)	2.85	(27)	2.88	(24)	3.13	(39)
F	1.8		1.1		1.5		1.1		0.3		0.4		1.1		0.5	

구분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3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4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5세반 경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계(수)	총계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계(수)	총계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계(수)	총계	계(수)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이상 <i>F</i>	2.30 (53)	2.12 (65)	3.17 (82)	2.06 (35)	1.78 (45)	2.98 (51)	2.81 (47)	1.84 (50)	3.61 (62)		2.81 (47)	1.84 (50)	3.61 (62)		
	2.45 (93)	2.05 (94)	3.57 (118)	2.45 (49)	1.87 (53)	3.17 (69)	3.00 (68)	1.73 (67)	3.64 (88)		3.00 (68)	1.73 (67)	3.64 (88)		
	2.35 (231)	1.98 (250)	3.30 (315)	2.44 (129)	1.96 (139)	3.48 (169)	2.57 (184)	1.85 (190)	3.49 (236)		2.57 (184)	1.85 (190)	3.49 (236)		
	2.77 (53)	2.04 (55)	3.87 (67)	2.74 (23)	1.80 (30)	3.34 (35)	3.43 (30)	2.03 (38)	4.09 (44)		3.43 (30)	2.03 (38)	4.09 (44)		
	1.3	0.3	1.4	1.1	0.4	0.8(w)	2.6(w)	0.6	0.5(w)		2.6(w)	0.6	0.5(w)		
맞벌이 여부 외벌이 맞벌이 미취업 <i>F/t</i>	2.29 (125)	1.99 (161)	3.21 (189)	2.27 (85)	1.94 (94)	3.21 (117)	2.66 (111)	1.97 (122)	3.57 (150)		2.66 (111)	1.97 (122)	3.57 (150)		
	2.48 (308)	2.05 (308)	3.50 (399)	2.51 (154)	1.88 (178)	3.38 (213)	2.81 (224)	1.79 (228)	3.60 (289)		2.81 (224)	1.79 (228)	3.60 (289)		
	3.00 ( 2)	3.00 ( 2)	6.00 ( 2)	-	-	-	-	-	-		-	-	-		
	0.9	0.8	2.0	-1.2	0.4	-0.6	-0.9	1.4	-0.1		-0.9	1.4	-0.1		
지역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i>F</i>	2.38 (190)	2.08 (203)	3.63 (241)	2.40 (103)	2.11 <sup>a</sup> (113)	3.57 (136)	2.77 (137)	1.94 (146)	3.72 (178)		2.77 (137)	1.94 (146)	3.72 (178)		
	2.48 (183)	1.99 (199)	3.24 (262)	2.34 (97)	1.73 <sup>b</sup> (117)	3.06 (140)	2.69 (153)	1.81 (151)	3.51 (195)		2.69 (153)	1.81 (151)	3.51 (195)		
	2.42 (62)	2.01 (69)	3.32 (87)	2.72 (39)	1.81 (42)	3.37 (54)	3.00 (45)	1.75 (53)	3.45 (66)		3.00 (45)	1.75 (53)	3.45 (66)		
	0.2	0.3	1.7	1.0(w)	3.3*(w)	1.5(w)	0.7	0.8	0.4		0.7	0.8	0.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0 이상~500만원 500 이상~700만원 700만원 이상 <i>F</i>	2.50 (38)	2.09 (32)	3.86 (42)	2.77 (13)	1.75 (16)	3.76 (17)	3.16 (25)	2.33 (21)	4.57 (28)		3.16 (25)	2.33 (21)	4.57 (28)		
	2.48 (143)	2.18 (165)	3.52 (203)	2.24 (86)	1.92 (86)	3.23 (111)	2.76 (106)	1.77 (119)	3.45 (146)		2.76 (106)	1.77 (119)	3.45 (146)		
	2.59 (145)	2.02 (161)	3.42 (205)	2.51 (84)	1.88 (100)	3.27 (122)	2.70 (125)	1.83 (127)	3.48 (164)		2.70 (125)	1.83 (127)	3.48 (164)		
	2.12 (109)	1.82 (113)	3.12 (140)	2.50 (56)	1.93 (70)	3.44 (80)	2.73 (79)	1.88 (83)	3.68 (101)		2.73 (79)	1.88 (83)	3.68 (101)		
	2.3	2.0(w)	1.5(w)	0.8	0.1	0.3	0.4(w)	1.6	1.6		0.4(w)	1.6	1.6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다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3) "만5세반 경험"은 어린이집·유치원 반편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경험한 사교육 개수를 의미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 9〉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여부: 2016년 VS. 2024년

단위: %(명)

구분	참여 여부			(참여하는 경우) 유형			
	참여함	안함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예체능/ 기타 모두	(수)
2세	2016	78.51	21.49	100.00( 456)	3.63	52.23	44.13 ( 358)
	2024	86.38	13.62	100.00( 470)	3.94	19.70	76.35 ( 406)
5세	2016	89.50	10.50	100.00( 657)	3.91	25.34	70.75 ( 588)
	2024	94.20	5.80	100.00( 500)	2.34	7.86	89.81 ( 471)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부록 표 10〉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여부: 2024년

단위: %(명)

구분	참여 여부			(참여하는 경우) 유형			
	참여함	안함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예체능/ 기타 모두	(수)
전체	90.75	9.25	100.00(1,470)	3.22	11.47	85.31	(1,334)
자녀 성별							
남	89.96	10.04	100.00( 757)	2.94	11.16	85.90	( 681)
여	91.58	8.42	100.00( 713)	3.52	11.79	84.69	( 653)
$\chi^2(df)$		1.154(1)			0.528(2)		
자녀 연령							
만2세	86.38	13.62	100.00( 470)	3.94	19.70	76.35	( 406)
만3세	91.40	8.60	100.00( 500)	3.50	7.88	88.62	( 457)
만5세	94.20	5.80	100.00( 500)	2.34	7.86	89.81	( 471)
$\chi^2(df)$		18.016(2)***			41.942(4)***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94.87	5.13	100.00( 507)	3.53	8.32	88.15	( 481)
어린이집	88.46	11.54	100.00( 910)	2.86	13.42	83.73	( 805)
반일제학원	90.57	9.43	100.00( 53)	6.25	10.42	83.33	( 48)
$\chi^2(df)$		15.938(2)***			9.433(4)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92.90	7.10	100.00( 155)	2.78	13.19	84.03	( 144)
전문대졸	90.09	9.91	100.00( 323)	4.81	12.03	83.16	( 291)
4년제대졸	90.40	9.60	100.00( 844)	2.62	10.62	86.76	( 763)
대학원졸 이상	91.89	8.11	100.00( 148)	3.68	13.24	83.09	( 136)
$\chi^2(df)$		1.373(3)			5.069(6)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91.19	8.81	100.00( 227)	2.90	14.01	83.09	( 207)
전문대졸	90.91	9.09	100.00( 286)	3.85	9.23	86.92	( 260)
4년제대졸	90.77	9.23	100.00( 780)	2.68	11.16	86.16	( 708)
대학원졸 이상	90.32	9.68	100.00( 155)	5.71	15.00	79.29	( 140)
$\chi^2(df)$		0.088(3)			8.298(6)		

구분	참여 여부			(참여하는 경우) 유형			
	참여함	안함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예체능/ 기타 모두	(수)
맞벌이 여부							
외벌이	88.64	11.36	100.00( 493)	2.97	12.59	84.44	( 437)
맞벌이	91.87	8.13	100.00( 972)	3.36	10.97	85.67	( 893)
미취업	80.00	20.00	100.00( 5)	0.00	0.00	100.00	( 4)
$\chi^2(df)$		4.759(2)(b)			1.542(4)(b)		
지역 규모							
대도시	93.01	6.99	100.00( 558)	3.28	11.95	84.78	( 519)
중소도시	90.22	9.78	100.00( 675)	3.45	11.33	85.22	( 609)
읍면	86.92	13.08	100.00( 237)	2.43	10.68	86.89	( 206)
$\chi^2(df)$		7.762(2)*			0.808(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9.43	10.57	100.00( 123)	5.45	7.27	87.27	( 110)
300 이상~500만원	89.70	10.30	100.00( 534)	3.13	13.78	83.09	( 479)
500 이상~700만원	90.22	9.78	100.00( 501)	2.65	11.50	85.84	( 452)
700만원 이상	93.91	6.09	100.00( 312)	3.41	9.22	87.37	( 293)
$\chi^2(df)$		4.835(3)			7.900(6)		

주: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부록 표 11〉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가짓수: 2016년 VS. 2024년

단위: (명), 개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전체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2세	2016	( 171)	1.51	0.76	( 345)	2.08	0.86	-	-	-	( 358)	2.72	1.22
	2024	( 326)	1.55	0.84	( 388)	1.98	0.83	(111)	1.42	0.65	( 406)	3.52	1.74
	<i>t</i>		-0.52			1.63			-			-7.40***	
5세	2016	( 439)	2.03	1.03	( 565)	2.33	0.98	-	-	-	( 588)	3.76	1.65
	2024	( 434)	2.65	1.43	( 455)	2.07	0.86	(265)	1.55	0.79	( 471)	5.32	2.52
	<i>t</i>		-7.34***			4.50***			-			-11.65***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

〈부록 표 12〉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가짓수: 2024년

단위: (명), 개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기타			전체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34)	1.96	1.40	(1334)	1.98	0.94	(1334)	0.70	0.92	(1334)	4.64	2.37
자녀 성별												
남	( 681)	1.95	1.39	( 681)	1.95	0.92	( 681)	0.70	0.90	( 681)	4.60	2.27
여	( 653)	1.97	1.43	( 653)	2.02	0.96	( 653)	0.70	0.94	( 653)	4.68	2.47
<i>t</i>		-0.2			-1.4			0.0			-0.6	
자녀 연령												
만2세	( 406)	1.24 <sup>c</sup>	0.97	( 406)	1.89	0.91	( 406)	0.39 <sup>b</sup>	0.72	( 406)	3.52 <sup>c</sup>	1.74
만3세	( 457)	2.11 <sup>b</sup>	1.32	( 457)	2.04	0.98	( 457)	0.79 <sup>a</sup>	0.96	( 457)	4.93 <sup>b</sup>	2.35
만5세	( 471)	2.44 <sup>a</sup>	1.55	( 471)	2.00	0.92	( 471)	0.87 <sup>a</sup>	0.97	( 471)	5.32 <sup>a</sup>	2.52
<i>F</i>		118.3***	(w)		2.9(w)			43.9***	(w)		94.7***	(w)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 481)	2.30 <sup>a</sup>	1.43	( 481)	2.02	0.96	( 481)	0.89 <sup>a</sup>	1.02	( 481)	5.21 <sup>a</sup>	2.48
어린이집	( 805)	1.73 <sup>b</sup>	1.31	( 805)	1.97	0.92	( 805)	0.60 <sup>b</sup>	0.84	( 805)	4.30 <sup>b</sup>	2.18
반일제학원	( 48)	2.38	1.86	( 48)	1.73	1.03	( 48)	0.54 <sup>b</sup>	0.80	( 48)	4.65	3.12
<i>F</i>		26.5***	(w)		2.3(w)			14.4***	(w)		22.3***	(w)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 144)	2.03	1.44	( 144)	1.99	0.94	( 144)	0.92 <sup>a</sup>	1.02	( 144)	4.94	2.63
전문대졸	( 291)	1.96	1.39	( 291)	1.96	1.01	( 291)	0.74	0.97	( 291)	4.66	2.45
4년제대졸	( 763)	1.96	1.39	( 763)	2.00	0.91	( 763)	0.65 <sup>b</sup>	0.87	( 763)	4.60	2.27
대학원졸 이상	( 136)	1.93	1.49	( 136)	1.91	0.93	( 136)	0.66	0.94	( 136)	4.51	2.42
<i>F</i>		0.1			0.4			3.7*			1.0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 207)	1.98	1.49	( 207)	2.00	0.97	( 207)	0.84	0.99	( 207)	4.82	2.59
전문대졸	( 260)	2.10	1.50	( 260)	1.98	0.97	( 260)	0.72	0.93	( 260)	4.81	2.52
4년제대졸	( 708)	1.92	1.34	( 708)	1.96	0.91	( 708)	0.65	0.88	( 708)	4.52	2.22
대학원졸 이상	( 140)	1.86	1.44	( 140)	2.03	0.99	( 140)	0.66	1.02	( 140)	4.55	2.45
<i>F</i>		1.3(a)			0.3			2.4			1.5(a)	
맞벌이 여부												
외벌이	( 437)	1.93	1.39	( 437)	1.98	0.91	( 437)	0.66	0.88	( 437)	4.57	2.33
맞벌이	( 893)	1.98	1.41	( 893)	1.98	0.95	( 893)	0.71	0.94	( 893)	4.67	2.38
미취업	( 4)	2.50	1.29	( 4)	2.00	1.41	( 4)	1.00	0.82	( 4)	5.50	3.11
<i>F</i>		0.5			0.0			0.7			0.5	
지역 규모												
대도시	( 519)	1.99	1.47	( 519)	2.01	0.97	( 519)	0.71	0.95	( 519)	4.70	2.52
중소도시	( 609)	1.96	1.37	( 609)	1.93	0.91	( 609)	0.65	0.88	( 609)	4.54	2.26
읍면	( 206)	1.91	1.35	( 206)	2.05	0.94	( 206)	0.82	0.96	( 206)	4.78	2.29
<i>F</i>		0.2			1.6			2.5			1.0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기타			전체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 110)	2.10	1.43	( 110)	1.80	0.85	( 110)	0.77	0.90	( 110)	4.67	2.32
300 이상~500만원	( 479)	1.94	1.42	( 479)	2.00	0.95	( 479)	0.73	0.95	( 479)	4.67	2.46
500 이상~700만원	( 452)	1.94	1.43	( 452)	2.04	0.93	( 452)	0.63	0.86	( 452)	4.62	2.30
700만원 이상	( 293)	1.97	1.34	( 293)	1.92	0.95	( 293)	0.72	0.97	( 293)	4.61	2.34
F		0.4			2.4			1.2			0.1	

주: 1)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부록 표 13〉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가짓수: 2024년

단위: (명), 개

구분	(1개이상) 학습 관련			(1개이상) 예체능 관련			(1개이상) 기타			(1개이상) 전체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181)	2.22	1.29	(1281)	2.06	0.87	(606)	1.54	0.76	(1334)	4.64	2.37
자녀 성별												
남	( 605)	2.20	1.27	( 655)	2.02	0.85	(313)	1.52	0.73	( 681)	4.60	2.27
여	( 576)	2.23	1.31	( 626)	2.10	0.88	(293)	1.55	0.79	( 653)	4.68	2.47
t		-0.4			-1.6			-0.5			-0.6	
자녀 연령												
만2세	( 326)	1.55 <sup>c</sup>	0.84	( 388)	1.98 <sup>b</sup>	0.83	(111)	1.42	0.65	( 406)	3.52 <sup>c</sup>	1.74
만3세	( 421)	2.29 <sup>b</sup>	1.21	( 438)	2.13 <sup>a</sup>	0.90	(230)	1.57	0.77	( 457)	4.93 <sup>b</sup>	2.35
만5세	( 434)	2.65 <sup>a</sup>	1.43	( 455)	2.07	0.86	(265)	1.55	0.79	( 471)	5.32 <sup>a</sup>	2.52
F		103.1***(w)			3.2*(w)			1.9(w)			94.7***(w)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 441)	2.51 <sup>a</sup>	1.30	( 457)	2.13 <sup>a</sup>	0.86	(261)	1.63 <sup>a</sup>	0.84	( 481)	5.21 <sup>a</sup>	2.48
어린이집	( 697)	2.00 <sup>b</sup>	1.20	( 779)	2.03	0.86	(326)	1.47 <sup>b</sup>	0.69	( 805)	4.30 <sup>b</sup>	2.18
반일제학원	( 43)	2.65 <sup>a</sup>	1.77	( 45)	1.84 <sup>b</sup>	0.95	( 19)	1.37	0.68	( 48)	4.65	3.12
F		23.0***(w)			3.3*			3.6*(w)			22.3***(w)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 125)	2.34	1.29	( 139)	2.06	0.88	( 80)	1.65	0.81	( 144)	4.94	2.63
전문대졸	( 256)	2.23	1.27	( 274)	2.08	0.91	(134)	1.60	0.81	( 291)	4.66	2.45
4년제대졸	( 682)	2.19	1.29	( 738)	2.06	0.85	(335)	1.48	0.72	( 763)	4.60	2.27
대학원졸 이상	( 118)	2.23	1.37	( 130)	2.00	0.85	( 57)	1.58	0.80	( 136)	4.51	2.42
F		0.5			0.3			1.5(w)			1.0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 178)	2.30	1.35	( 200)	2.07	0.91	(108)	1.61	0.80	( 207)	4.82	2.59
전문대졸	( 236)	2.31	1.41	( 248)	2.08	0.89	(122)	1.54	0.75	( 260)	4.81	2.52
4년제대졸	( 629)	2.16	1.22	( 682)	2.03	0.84	(312)	1.48	0.73	( 708)	4.52	2.22
대학원졸 이상	( 119)	2.19	1.30	( 132)	2.15	0.88	( 52)	1.77	0.90	( 140)	4.55	2.45
F		1.1(w)			0.8			2.6			1.5(a)	

구분	(1개이상) 학습 관련			(1개이상) 예체능 관련			(1개이상) 기타			(1개이상) 전체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맞벌이 여부												
외벌이	( 382)	2.20	1.27	( 420)	2.06	0.83	(195)	1.48	0.73	( 437)	4.57	2.33
맞벌이	( 795)	2.22	1.30	( 857)	2.06	0.88	(408)	1.56	0.77	( 893)	4.67	2.38
미취업	( 4)	2.50	1.29	( 4)	2.00	1.41	( 3)	1.33	0.58	( 4)	5.50	3.11
<i>F</i>		0.1			0.0(w)			0.9			0.5	
지역 규모												
대도시	( 457)	2.26	1.36	( 500)	2.08	0.90	(233)	1.57	0.80	( 519)	4.70	2.52
중소도시	( 540)	2.21	1.24	( 583)	2.02	0.83	(265)	1.50	0.72	( 609)	4.54	2.26
읍면	( 184)	2.14	1.24	( 198)	2.13	0.86	(108)	1.56	0.78	( 206)	4.78	2.29
<i>F</i>		0.5(w)			1.6(w)			0.6			1.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 102)	2.26	1.35	( 103)	1.92	0.74	( 58)	1.47	0.71	( 110)	4.67	2.32
300 이상~500만원	( 413)	2.25	1.28	( 460)	2.08	0.88	(225)	1.55	0.81	( 479)	4.67	2.46
500 이상~700만원	( 400)	2.20	1.32	( 437)	2.11	0.87	(193)	1.48	0.68	( 452)	4.62	2.30
700만원 이상	( 266)	2.17	1.25	( 281)	2.00	0.88	(130)	1.63	0.81	( 293)	4.61	2.34
<i>F</i>		0.3			2.1(w)			1.2(w)			0.1	

주: 1)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부록 표 14〉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 2016년 VS. 2024년

단위: %(명), 천원

구분		0원	2만원 미만	2~4만원	4~6만원	6~8만원	8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2세	2016	9.22	9.78	24.02	25.42	16.48	15.08	100.00( 358)	46.33	34.78
	2024	5.81	11.62	11.62	14.65	15.40	40.91	100.00( 396)	69.78	48.97
	<i>t</i>								-7.66***	
5세	2016	34.35	5.44	17.01	17.69	12.76	12.76	100.00( 588)	37.76	40.25
	2024	26.56	7.81	11.38	9.60	7.59	37.05	100.00( 448)	60.31	59.96
	<i>t</i>								-7.05***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

〈부록 표 15〉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 2024년

단위: %(명), 천원

구분	0원	2만원 미만	2~4만원	4~6만원	6~8만원	8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6.64	9.18	10.65	11.74	10.58	41.21	100.00(1,286)	66.98	56.23
자녀 성별									
남	16.16	8.69	9.15	12.65	12.35	41.01	100.00( 656)	68.78	56.86
여	17.14	9.68	12.22	10.79	8.73	41.43	100.00( 630)	65.11	55.55
$\chi^2(df)/t$			8.323(5)						1.2
자녀 연령									
만2세	5.81	11.62	11.62	14.65	15.40	40.91	100.00( 396)	69.78 <sup>a</sup>	48.97
만3세	16.29	8.37	9.05	11.31	9.28	45.70	100.00( 442)	71.23 <sup>a</sup>	57.87
만5세	26.56	7.81	11.38	9.60	7.59	37.05	100.00( 448)	60.31 <sup>b</sup>	59.96
$\chi^2(df)/F$			81.817(10)***						4.6*(w)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28.27	7.28	13.10	10.19	7.28	33.89	100.00( 481)	55.29	56.78
어린이집	9.69	10.31	9.19	12.67	12.55	45.59	100.00( 805)	73.96	54.75
$\chi^2(df)/t$			89.321(5)***						-5.8***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9.58	10.49	13.29	12.59	4.90	39.16	100.00( 143)	63.00	57.84
전문대졸	16.49	8.77	11.23	13.33	9.12	41.05	100.00( 285)	69.35	59.83
4년제대졸	16.83	9.03	9.99	11.35	12.18	40.63	100.00( 731)	66.38	55.03
대학원졸 이상	12.60	9.45	10.24	9.45	11.02	47.24	100.00( 127)	69.59	53.08
$\chi^2(df)/F$			13.119(15a)						0.5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18.14	9.80	12.75	8.33	9.31	41.67	100.00( 204)	68.20	60.90
전문대졸	18.58	8.70	8.70	13.83	9.49	40.71	100.00( 253)	67.20	57.16
4년제대졸	15.67	8.93	10.54	12.01	11.57	41.29	100.00( 683)	66.87	54.75
대학원졸 이상	14.96	10.24	11.02	12.60	11.02	40.16	100.00( 127)	64.92	54.17
$\chi^2(df)/F$			7.888(15)						0.1
맞벌이 여부									
외벌이	21.09	9.24	12.09	10.19	9.24	38.15	100.00( 422)	60.91 <sup>b</sup>	55.25
맞벌이	14.53	9.19	10.00	12.44	11.28	42.56	100.00( 860)	69.80 <sup>a</sup>	56.53
미취업	0.00	0.00	0.00	25.00	0.00	75.00	100.00( 4)	100.50	42.50
$\chi^2(df)/F$			15.734(10)(b)						4.3*
지역 규모									
대도시	14.49	10.00	9.18	13.67	13.27	39.39	100.00( 490)	67.09	54.75
중소도시	14.00	9.44	12.31	10.12	9.11	45.03	100.00( 593)	70.45 <sup>a</sup>	56.51
읍면	29.56	6.40	9.36	11.82	8.37	34.48	100.00( 203)	56.57 <sup>b</sup>	57.87
$\chi^2(df)/F$			42.255(10)***						4.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6.67	7.41	10.19	12.04	10.19	43.52	100.00( 108)	63.25	48.44
300 이상~500만원	20.46	9.07	11.18	9.70	9.70	39.87	100.00( 474)	64.37	57.66
500 이상~700만원	15.56	9.38	10.07	12.36	12.59	40.05	100.00( 437)	68.40	57.62
700만원 이상	11.61	9.74	10.86	14.23	8.99	44.57	100.00( 267)	70.78	54.21
$\chi^2(df)/F$			16.429(15)						1.0

주: 1)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2)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부록 표 16〉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 2016년 VS. 2024년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가 심심할까봐	기관에서 필수여서	기관 분위기상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대체활동 부재	특기개발, 적성 파악	발달·학습에 도움	정부비용 지원	외부학원 보다 저렴	장소이동 없음	프로그램 질이 높아서	기타	계(수)
		13.13	8.38	5.59	5.59	2.51	4.47	15.92	40.22	0.84	0.84	1.40	1.12	-	100.00(358)
2세	2016	3.20	10.59	18.72	19.70	7.64	10.34	5.17	20.94	0.99	0.74	1.23	0.74	-	100.00(406)
	2024	23.13	4.25	10.03	3.40	2.89	3.74	14.29	31.80	2.21	0.85	1.53	1.53	0.34	100.00(588)
5세	2016	15.07	4.88	23.14	10.19	3.82	8.49	5.31	20.81	2.34	2.55	2.55	0.64	0.21	100.00(471)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부록 표 17〉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 2024년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가 심심할까봐	기관에서 필수여서	기관 분위기상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대체활동 부재	특기개발, 적성 파악	발달·학습에 도움	정부비용 지원	외부학원 보다 저렴	장소이동 없음	프로그램 질이 높아서	기타	계(수)
		9.52	8.32	20.91	13.94	5.10	9.22	5.77	20.16	2.85	1.35	2.02	0.52	0.30	100.00(1,334)
자녀 성별	남	7.20	9.40	22.03	14.24	3.96	9.10	6.02	21.29	2.06	1.76	1.76	0.73	0.44	100.00( 681)
	여	11.94	7.20	19.75	13.63	6.28	9.34	5.51	18.99	3.68	0.92	2.30	0.31	0.15	100.00( 653)
	$\chi^2(df)$	22.678(12)*													
자녀 연령	만2세	3.20	10.59	18.72	19.70	7.64	10.34	5.17	20.94	0.99	0.74	1.23	0.74	0.00	100.00( 406)
	만3세	9.41	9.85	20.57	12.69	4.16	8.97	6.78	18.82	5.03	0.66	2.19	0.22	0.66	100.00( 457)
	만5세	15.07	4.88	23.14	10.19	3.82	8.49	5.31	20.81	2.34	2.55	2.55	0.64	0.21	100.00( 471)
	$\chi^2(df)$	97.255(24)***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가 신심할 까봐	기관에서 필수여서	기관 분위기가상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대체활동 부재	특기개발, 적성 파악	발달· 학습에 도움	정부비용 지원	외부학원 보단 자렴	장소이동 없음	프로그램 질이 높아서	기타	계(수)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학원 $\chi^2(df)$	11.85 8.07 10.42	6.86 9.19 8.33	25.36 17.89 27.08	8.11 17.76 8.33	3.33 6.34 2.08	8.52 9.57 10.42	5.20 5.59 14.58	19.33 20.87 16.67	5.20 1.49 2.08	1.66 1.24 0.00	3.33 1.37 0.00	0.83 0.37 0.00	0.42 0.25 0.00	100.00( 481) 100.00( 805) 100.00( 48)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이상 $\chi^2(df)$	3.47 9.62 9.70 14.71	6.94 6.19 8.52 13.24	18.75 24.05 20.31 19.85	18.75 16.15 11.93 15.44	9.03 8.59 3.54 2.21	8.33 7.90 9.70 10.29	6.25 5.50 6.68 0.74	20.14 17.53 21.49 18.38	4.86 2.41 2.62 2.94	0.69 0.34 2.10 0.00	1.39 1.03 2.62 1.47	0.69 0.34 0.66 0.00	0.69 0.34 0.13 0.74	100.00( 144) 100.00( 291) 100.00( 763) 100.00( 136)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이상 $\chi^2(df)$	7.73 9.23 8.19 18.57	6.28 8.46 8.19 10.71	24.15 20.00 21.47 17.14	12.56 16.92 13.56 12.86	5.31 5.00 5.65 1.43	10.14 9.23 9.04 9.29	6.76 5.00 5.93 5.71	19.32 20.38 20.62 18.57	1.93 3.08 2.40 4.29	2.90 0.77 1.41 0.00	1.45 1.15 2.68 1.43	0.48 0.38 0.71 0.00	0.97 0.38 0.14 0.00	100.00( 207) 100.00( 260) 100.00( 708) 100.00( 140)
맛별이 여부 와별이 맛별이 미취업 $\chi^2(df)$	7.32 10.64 0.00	6.64 9.07 25.00	21.28 20.72 25.00	13.50 14.22 0.00	5.72 4.59 50.00	9.15 9.29 0.00	4.58 6.38 0.00	24.94 17.92 0.00	3.43 2.58 0.00	2.06 1.01 0.00	1.14 2.46 0.00	0.23 0.67 0.00	0.00 0.45 0.00	100.00( 437) 100.00( 893) 100.00( 4)
지역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chi^2(df)$	10.60 8.37 10.19	7.71 9.52 6.31	19.65 22.50 19.42	15.80 11.82 15.53	5.78 4.11 6.31	8.09 10.51 8.25	6.36 5.75 4.37	20.23 20.36 19.42	1.73 2.63 6.31	0.77 1.81 1.46	2.31 1.97 1.46	0.58 0.66 0.00	0.39 0.00 0.97	100.00( 519) 100.00( 609) 100.00( 206)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가 심심할까봐	기관에서 필수여서	기관 분류기상	다른 아이들이 하나까	단체활동 부재	특기개발, 적성 파악	발달·학습에 도움	정부비용 지원	외부학원 보다 저렴	장소이동 없음	프로그램 질이 높아서	기타	계(수)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36	10.00	25.45	10.00	9.09	8.18	5.45	20.91	2.73	0.00	0.91	0.00	0.91	100.00( 110)
300 이상~500만원	8.35	6.89	21.29	14.82	5.22	7.93	5.43	22.96	2.92	1.67	1.88	0.63	0.00	100.00( 479)
500 이상~700만원	9.29	9.29	20.35	15.27	4.20	9.29	5.75	19.47	2.65	1.99	1.77	0.66	0.00	100.00( 452)
700만원 이상	12.97	8.53	19.45	11.95	4.78	11.60	6.48	16.38	3.07	0.34	3.07	0.34	1.02	100.00( 293)
$\chi^2(df)$	41.784(36)(b)													

주: 감정 통제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고와 경험과 발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 표 18〉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이유: 2024년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가 심심할까봐	기관에서 필수여서	기관 분류기상	다른 아이들이 하나까	단체활동 부재	특기개발, 적성 파악	발달·학습에 도움	정부비용 지원	외부학원 보다 저렴	장소이동 없음	프로그램 질이 높아서	기타	계(수)
1순위	9.52	8.32	20.91	13.94	5.10	9.22	5.77	20.16	2.85	1.35	2.02	0.52	0.30	100.00(1,334)
2순위	2.92	4.87	4.12	8.32	9.45	16.34	8.47	23.54	5.32	6.52	7.27	2.62	0.22	100.00(1,334)
3순위	2.62	4.95	3.37	7.05	6.37	16.27	7.80	17.92	7.05	11.39	10.57	3.97	06.67	100.00(1,334)
1+2순위	12.44	13.19	25.04	22.26	14.54	25.56	14.24	43.70	8.17	7.87	9.30	3.15	0.52	-
1+2+3순위	15.07	18.14	28.41	29.31	20.91	41.83	22.04	61.62	15.22	19.27	19.87	7.12	1.20	-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고와 경험과 발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임.

단위: %(명)

〈부록 표 19〉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만족도: 2016년 VS. 2024년

단위: (명), 점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수)	평균	표준편차	t	(수)	평균	표준편차	t
2세	2016 ( 171)	3.51	0.57	3.57***	( 345)	3.54	0.61	-0.60
	2024 ( 326)	3.31	0.66		( 388)	3.57	0.56	
5세	2016 ( 439)	3.48	0.67	3.04**	( 565)	3.52	0.66	0.47
	2024 ( 434)	3.34	0.65		( 455)	3.50	0.57	

주: 만족도는 4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 매우 만족한다)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부록 표 20〉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만족도: 2024년

단위: (명), 점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81)	3.36	0.63	(1,281)	3.52	0.57
자녀 성별						
남	( 605)	3.37	0.64	( 655)	3.53	0.57
여	( 576)	3.35	0.63	( 626)	3.51	0.57
$t$		0.4			0.5	
자녀 연령						
만2세	( 326)	3.31	0.66	( 388)	3.57	0.56
만3세	( 421)	3.41	0.58	( 438)	3.51	0.57
만5세	( 434)	3.34	0.65	( 455)	3.50	0.57
$F$		2.4			1.7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 441)	3.38	0.60	( 457)	3.50	0.56
어린이집	( 697)	3.35	0.66	( 779)	3.55 <sup>a</sup>	0.57
반일제학원	( 43)	3.26	0.49	( 45)	3.31 <sup>b</sup>	0.56
$F$		0.9(a)			4.2*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 125)	3.42	0.67	( 139)	3.58	0.56
전문대졸	( 256)	3.37	0.62	( 274)	3.52	0.58
4년제대졸	( 682)	3.34	0.63	( 738)	3.52	0.57
대학원졸 이상	( 118)	3.39	0.61	( 130)	3.48	0.56
$F$		0.7			0.6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 178)	3.42	0.56	( 200)	3.57	0.53
전문대졸	( 236)	3.37	0.68	( 248)	3.52	0.58
4년제대졸	( 629)	3.33	0.62	( 682)	3.52	0.56
대학원졸 이상	( 119)	3.34	0.69	( 132)	3.45	0.66
$F$		1.1(a)			1.2(a)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여부						
외벌이	( 382)	3.35	0.61	( 420)	3.52	0.55
맞벌이	( 795)	3.37	0.64	( 857)	3.53	0.58
미취업	( 4)	2.75	0.50	( 4)	3.25	0.50
<i>F</i>		2.0			0.5	
지역 규모						
대도시	( 457)	3.35	0.59	( 500)	3.51	0.55
중소도시	( 540)	3.33	0.67	( 583)	3.51	0.59
읍면	( 184)	3.44	0.62	( 198)	3.60	0.52
<i>F</i>		2.0(a)			2.0(a)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 102)	3.39	0.68	( 103)	3.59 <sup>a</sup>	0.57
300 이상~500만원	( 413)	3.37	0.62	( 460)	3.54 <sup>a</sup>	0.56
500 이상~700만원	( 400)	3.38	0.65	( 437)	3.54 <sup>a</sup>	0.57
700만원 이상	( 266)	3.29	0.61	( 281)	3.44 <sup>a</sup>	0.58
<i>F</i>		1.2			2.7*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만족도는 4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 매우 만족한다)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